

잔 보우드리 국제불교학교 교수
'마음챙김' 유지하면
이타행 저절로 생겨나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8월 14일) · 주간

제958호 2013년 9월 18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잡보장경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 말라.
허약해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재가불자 70% '수행 NO' 불교, 수행의 종교 맞나?

불교사회연구소, 2013년 대국민 여론 조사 발표

'수행의 종교' 라고 자칭하는 불교의 재가자들 10명 중 7명이 수행을 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이웃 종교인보다도 수행을 안했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의 '2013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를 통해 나타났다.

정치 · 사회와 종교를 아우르는 올해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불자와 타종교인 수행법 현황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불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실천 중인 수행 · 기도법 유무에 대한 질문에 29.6%만이 '수행법' 이 있다고 답했으며, 70.4%가 수행법이 없었다. 반면 타종교인들은 39.1%가 수행을 한다고 밝혀 불자보다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수행을 한다고 밝힌 불자들은 대부분 염불과 호흡명상(21.3%)을 선호했으며, 경전 읽기(18.7%), 봉사(12%), 절 수행(9.3%)이 뒤를 이었다. 조계종의 수행법인 간화선은 4%만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현재의 수행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과 병행하기 쉽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58.7%, 이해와 실천이 쉽다는 답변도 20%였다. 수행을 통해서 큰 효과를 기대한다는 답변은 8%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불자들이 수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수행하지 않는 불자들은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서(32.0%)' 가 가장 높았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9.2%)' 와 '수행이 어려워서(18.5%)' 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심층 분석을 맡은 박수호 덕성여대 사회학과 겸임 교수는 "불교가 수행의 종교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수행을 하지 않는 불자들이 70%에 이른다는 것은 현재 신행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며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수행을 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신자들을 정기적으로 사찰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수행 문화의 확산과 직결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수행법이 없는 이유가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자가 많다" 며 "현재 불교 신행 문화 속에서 수행문화가 확산 되지 못한 이유는 쉽고 체계적인 수행방법을 보급하지 못했고 수행의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못 일깨워 줬다" 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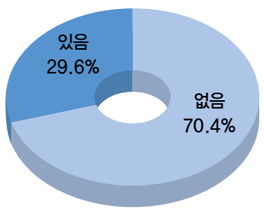
오는 10월 10일 치러지는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차기 총무원장의 첫 덕목으로 응답자의 45.6%가 '도덕성과 청렴성' 을 꼽았다. 다음으로 '다른 종교나 정부와의 소통(16.3%)' '불교적 수행력(12%)' '종단 쇄신과 결사에 대한 의지력(9.7%)' 의 순서로 답했다.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이 종단 행정수반임에도 '종무행정 능력' 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한국불교의 과제도 '불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 증대' (31.6%)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나눔과 봉사 등 사회참여 확대' (27.4%) '사찰재정 투명화와 사찰운영에 사부대중 참여 확대' (17.3%)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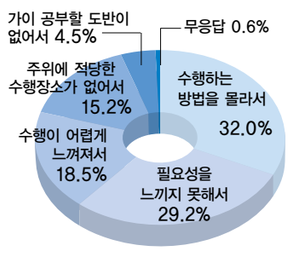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8%는 '종교는 사회의 일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고 답해 중립을 지킬 것을 권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실천 중인 수행법/기도법 유무



■현재 수행법이 없는 이유



타종교보다 수행 안해 '충격'
'수행법 몰라 안한다' 가 이유
수행자 호흡명상, 염불 선호
간화선 수행자는 4%에 그쳐
대중적 수행법 교육 급선무

차기 총무원장에 바라는 것
국민 절반 '도덕성 · 청렴성'
사회적 고통 치유 역할 기대



40년 주석처 조계사와 작별된 범어사로 운구됐다.

조계종 원로의원 혜명당 무진장 대종사의 원적을 추모하는 대숙야제가 9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가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스님의 법구는 법사로 주석했던 동국대를 거쳐 영결식장이 마련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 원적

9일 법납 57세, 세수 82세… 13일 범어사서 영결식

사찰, 車 등 일곱가지 없어 '7無' 스님… 청빈의 사표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이 9월 9일 오전 4시30분경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원적했다. 법납 57세, 세수 82세.

1932년 제주에서 태어난 무진장 스님은 1956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을 이수한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태국에서 남방불교를 연구하기도 했다.

이후 조계종 2대와 4대 포교원장을 역임하고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으며, 2008년에 대종사 품계를 받았다. 2010년에는 서울 조계사 회주로 추대됐다.

사찰, 승용차, 돈, 모자, 목도리, 장갑, 솜옷 등 고가품이 일절 없는 '일곱 가지가 없는 스님' 으로 유명한 무진장 스님은 평생을 법문을 통한 대중 교화에 힘썼다.

무진장 스님의 장례는 원로회의 장으로 치러졌으며, 출가 본사인 부산 금정총림 범어사와 오랫동안 회주로 주석했던 서울 종로 조계사에 동산 불교대 분향소가 마련됐다.

평생 포교 원력으로 대중들을 교화했던 스님인 만큼 분향소는 사부대중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10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 호법부장 정안 스님, 문화부장 진명 스님 등 교역직 스님과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과 맏상좌 진관 스님에게 인사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9월 12일 조계사에서는 다비식 전날 밤 봉행되는 불교식 추모 의례인 대숙야제(大宿夜祭)가 봉행됐다.

이날 대숙야제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前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홍윤식 교수가 스님을 회고했으며 포교원장 지원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등의 조시 낭송이 이어졌다. 또한 스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 온 동산불교대학, 조계사 청년회 등의 추모의 시간도 마련됐다. 대숙야제 이후 스님의 법구는 조계사를 떠나 영결식장이 마련된 범어사로 이운됐다.

영결식과 다비식은 13일 범어사에서 엄수됐다. 초재는 15일 범어사에서 49재는 10월 27일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영결식 차주 상보〉

신중일 · 정혜숙 기자

추모특집 2, 31면

"총무원장 피선거권 제한은 합헌"

법규위, 법일스님 청구 기각… 원장 선거 예정대로 진행

총무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선거법 제13조 1항이 '종헌 위배' 라는 주장에 대해 법규위원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은해사 법일 스님의 위헌 청구는 기각됐으며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예정대로 10월 10일 치러지게 됐다.

앞서 법일 스님은 '총무원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선거법 제13조 1항은 '종헌위배'라며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종헌 제53조에는 총무원장의 자격에 대해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고만 규정돼 있을 뿐 '자격요건은 종법으로 정한다' 는 등의 단서조항이 없다는 게 심판청구의 이유였다.

법규위원회(위원장 몽산)는 9월 12일 제80차 회의를 열어 법일 스님이 제기한 '선거법 제13조 제1항 종헌 위배여부 심판 청구의 건' 을 논의했다. 법규위원회는 40여 분의 비공개 토론 끝에 "선거법 제13조 제1항은 종헌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결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몽산 스님은 "법규위원 다수가 법일 스님의 심판청구에 대해 종헌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놨다" 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958호 INDEX

시방세계 5
2013 나란다 축제 현장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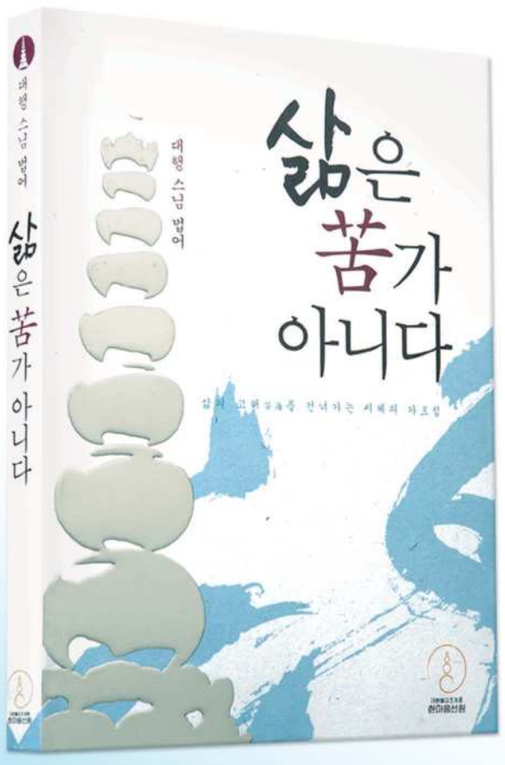
종합 3
템플스테이 특화프로그램 매뉴얼

신행 포교 6
동대부여고 지역민에게 불교 알려

학술 문화재 9
2013년 후기 학위논문
직지사 사천왕상 묵서 발견

화엄만다라 16·17
봉사단체 무량감로회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나를 모르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듣는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 법문

2005년 10월 동국대 정각원 법회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의 생애는 ‘전법’과 ‘대중 법문’으로 귀결된다. 그만큼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200일 앞둔 2005년 10월 20일 당시 동국역경원 후원회장이였던 무진장 스님이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문했다. 이제는 원적에 든 무진장 스님의 그리운 법문을 다시 듣는다. 〈편집자 주〉



생전 무진장 스님의 법문 모습. 스님은 대중법문을 통해 전법활동을 펼쳤다. 현대의 장년층 불자 중 스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가 드물정도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고요하게 살아라, 그 속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러 갈 때 제일먼저 만난 것이 문수보살입니다. 53번째 만난 보살이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자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불교의 핵심이 자비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재동자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법문을 문수보살에게서 듣습니다. 왜 그 법문이 위대한가 하면,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거울속에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비춰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분들도 법사의 말을 듣지 말고 부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기 바랍니다. 불교를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며 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귀한 법문을 듣고 실천하면 확실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수행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 존재인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빌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창조적 인격을 만들자

동양에서 유교사상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핵심사상이 될 수 있는 ‘중용’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중도’를 모르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불교의 중도는 연기를 말하지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서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연관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를 모르고는 절대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에서 행복해 질수 있는 방법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나 외에 모든 이들을 공양하라’고 가르칩니다. 공양이란 불교식으로 나 말고 다른 이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 진다는 겁니다. 나만 위해 살면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놓아버리라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백년을 삶아도 향기가 나지 않는 놈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는 한 절대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혜와 인격을 갖추는 것을 ‘성불(成佛)’이라고 합니다.

성불이란 인격을 완성하는 거라 했는데 그럼, 인격의 완성은 불교인들만이 독점 가능한 것인가요? 모두들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스스로 교만하고 자존심을 세우며,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부처님을 닮기 위해 불교를 믿는 겁니다. 내가 따로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어 내가 부처님을 따르면 부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창조적 인격상을 만들어 부처님과 같은 이상적 인격을 갖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 생각 바꾸는 것이 ‘禪’

그런데, 입으로만 진리를 말해서는 만겁의 세월이 지나도 견성은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법당 안으로 들어와 보니 어둡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흔히 세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법당 안을 환하게 밝힐까 논리적 · 학문적 연구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이 깜깜한 방안에서 스위치를 눌러 단박에 어둠을 밝히는 ‘선(禪)’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짓는 ‘사특한 지혜’를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생각을 바꿀 때라야만 가능하며, 그런 면에서 ‘선’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대하다는 겁니다. 일평생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손가락 하나로 스위치만 누르면 법당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을 닦는데 어떤 자격이나 차별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닦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선’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오직 한 생각 바꾸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일체의 반야지혜가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지혜의 출발점은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기 앉은 이들 모두 한분도 빠짐없이 다 부처입니다. 그런데 다들 자신이 중생이라는 생각에 집착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고 가장 놀라웠던 것이 일체중생이 부처인데 왜 중생의 탈을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주만물이 연기법에 의해 다 얽혀 있는데 오직 나밖에 모르는 중생심만 앞세워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착각속에 살지말고 자기 성찰을

오늘 제가 말한 모든 것이 비단 불교만의 진리는 아닙니다. 혹시, 오늘 법회 나오기 전에 나는 불교를 안 믿으니 법회 안 간다 했던 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어리석은 두꺼비처럼 뒤집어진 눈으로 ‘전도몽상(顚倒夢想)’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착각 속에 살지 말고 모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살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지 550호 지상백고좌〉

■무진장 스님 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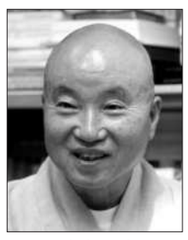
연 도	세수	법랍	이 력
1956년 3월 15일	25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0년 3월 15일	29	5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60년	29	5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에서 대교과 이수
1964년 2월	33	9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1967년 2월	36	12	동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1968년 3월	37	13	태국 wat benchamabopit사원에서 남방불교연구
1970년 9월	39	15	일본 경도불교대학 대학원에서 천태교학 연구
1971년 ~	40	16	조계사에서 주석하시며 40여년간 수행과 포교 정진
1975년	44	2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강사
1976년	45	21	동국대학교 법사 취임
1980년 1월	49	2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제2대 포교원장 취임
1981년 12월	50	26	대만 제3회 세계불교승가대회 한교대표(부단장) 참석
1987년 6월 3일	56	32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1989년 9월	58	34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제4대 포교원장 취임
1992년 8월	61	37	동산불교대학교 학장 취임
1996년	65	4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2000년 9월 ~	69	45	동국대학교 대학원 겸임 교수
2005년 11월 25일	74	50	제3회 대원상 대상 수상
2007년 12월 11일	76	52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2008년 10월 31일	77	53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수
2010년 4월 14일	79	55	조계사 회주 추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 / 종교분과위원장

‘전법’ 평생 원력…조계종 포교 초석 다지신 스님

내가 만난 무진장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은 ‘대중 법문을 통한 전법’을 평생의 원력으로 살아왔다. 그만큼 스님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곱씹고 추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스님을 그리워하는 사부대중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이번 무진장 스님의 장례에 호상을 맡은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은 “훌륭하신 무진장 스님은 그야말로 거지 같이 살다 가셨다. 거지 중에 상거지셨다. 6년 동안 쓰레기통 뒤지고 노숙하며 거지들과 함께 생활했다”며 “그렇게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참 비구셨다. 온갖 역사의 흐름 속에 밥 굶고 쫓겨나고 화염병 맞고 똥바가지 쏟아지는 속에서 조계사를 지키셨다”고 회고했다.



법산 스님



수불 스님



홍윤식 교수



선진규 법사

이어 “스님의 역량은 무궁무진해 지혜의 혜명을 받들어 왔다. 스님은 조계사를 떠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았다. 스님 빨리 옷 갈아 입고 다시 오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무진장 스님을 “조계종 포교의 초석을 다지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수불 스님은 “반세기 이상을 서울 조계사에서 주석하시면서 영원한 포교원장으로 살아오신 스님은 조계종 포교의 초석을 다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추모했다.

9월 9일 무진장 스님이 원적에 들기 5일 전에 만났다는 홍윤식 前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은 환한 웃음을 보여 오래 살 것이라고 착각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홍 교수는 무진장 스님과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도반이기도 했다.

홍 교수는 “무진장 스님은 나눠주는 삶을 실천하신 분”이라며 “스님이 법문을 많이 해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문을 하고 보시를 받으면 모두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나 역시 스님에게 돈을 받아 공부했다. 눈물겹고 슬퍼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고 도반 스님의 원적을 슬퍼했다.

함께 포교사에 합격해 활동했던 선진규 봉화 정토원 원장은 무진장 스님이 부처와 보살의 길을 보여줬다고 추모했다.

선 원장은 “스님의 법문은 내용이 충실하며 험 잡을 때가 없었고 연사의 품위가 느껴져 청중을 압도했으며 성향이 풍부해 청중을 포용할 수 있었다. 순간 순간 청중의 심리를 파악해 청중과 하나가 됐다”며 “스님은 포교사의 길은 험하다 순교의 길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회고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천수천안보살처럼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
– 종책 제안 분야 –
수행 · 교육 · 포교 · 문화 · 복지 · 재정 · 인사 · 교구운영
불교의 오늘을 생각하는 종도들의 모임 〈옛 무량회, 무차회, 백상도량〉
boseon34@hanmail.net

"무산된 후보 추천위 다시 구성돼야 한다"

도법 스님, 12일 재촉구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9월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8월 30일 5자 회담을 통해 합의된 15인 추천위 구성 합의에 대한 약속을 재촉구했다.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5자 회담에 참가한 스님들은 아름다운 약속의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도법 스님은 "원장이 재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며 "적명 스님이 제안한 15인 추천위 방식으로 원장을 추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재임포기 약속이행 촉구

수좌회 12일 결의대회 개최

전국선원수좌회 대책위원회(위원장 석곡, 봉암사 주지)는 9월 12일 서울 조계사 천막정진단 앞에서 '자승 원장 재임포기 약속 엄수 및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대원 스님(오등선원 조실),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정찬 · 원각 스님, 선원수좌복지회 대표이사 의정 스님을 비롯해 100여명의 스님들이 동참했다.

이날 수좌 스님들은 촉구법회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 청사 앞에서 △자승 스님의 재임포기 선언 △종회 계파의 기득권 포기 등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총무원장 종책선거 사부대중이 유도한다

불시넷 등 전국 순회 대화마당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불시넷)와 결사 모임 '붓다로 살자'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2013 전국순회 대화마당'을 개최한다.

'화쟁적 문제해결, 결단을 촉구하는 전국순회 야단법석'이라는 부제가 붙은 행사는 9월 11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 서울 대화마당을 시작으로 △광주, 9월 12일(목) 오후 7시 선덕사 △대전, 9월 13일(금) 오후 7시 백제불교회관 △전주, 9월 14일(토) 오전 12시 전북불교대학△제주, 9월 15일(일) 오후 2시 제주시 시민포교원 등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이후 종단 쇄신의 방향과 구체적 제안 과제 도출을 위한 주제별 집중토론이 9월 24일~27일 템플스테이 기념관 3층 보현실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우리 사찰 템플스테이 이렇게

문화사업단, 공모 특화 프로그램 보급 매뉴얼 발표

소위 대박 음식점에는 그 집만의 비법이 있듯이 유명 템플스테이 사찰에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 일선 템플스테이 사찰들의 운영 수준을 높이고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매뉴얼이 보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9월 10일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템플스테이 특화프로그램 매뉴얼과 명상 및 요가 프로그램 매뉴얼, 운영사찰 프로그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찰의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해 개성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 실무진의 개발 능력 향상, 운영사찰의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특화 프로그램 선정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들을 통해 공모했으며, 이중 7개 사찰이 대상을 받았다. 특화프로그램 매뉴얼은 이들 사찰들의 프로그램을 상세히 분석해 놓은 곳이다.

실제 매뉴얼을 통해 수록된 사찰들의 프로그램들은 신선하다. 산청 대원사가 진행하는 'Happy 동행' 탬플스테이는 108 에니어그램과 역할극, 호흡명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심신의 안정을 찾아주고 있다. 인제 백담사의 '알깨기 도시락' 템플스테이는 꿈의 지도, 비전 명함 만들기 등 자기계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서울 봉은사의 영상 템플스테이는 명상 치유와 마음나누기 등을 통해 가족 간 신뢰와 단합을 도모한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는 여주 신륵사의 청소년 힐링 캠프 △섬 여행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만족도가 높은 완도 신흥사의 '도도(島島)한' 템플스테이 △여성을 특화한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여성의 행복을 위한 길라잡이' △게임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명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한 논산 지장정사의 '내 마음 바로보기' 템플스테이 등의 매뉴얼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백담사, 봉은사 등 7개 사찰
섬 걷기, 힐링프로그램 독특
세부 매뉴얼 배포 일선 보급
제1기 청년 서포터즈도 모집

명상 및 요가 프로그램 매뉴얼은 산사 명상, 감사 명상, 힐링 요가 등의 개요와 운영법 등을 담아 템플스테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운영사찰 프로그램 사례집은 김제 금산사, 부안 내소사, 보성 대원사, 영암 도갑사, 용인 법륜사, 남양주 봉인사와 화운사, 화성 용주사, 구례 화엄사 등의 프로그램 사례와 지도법사 연구모임의 결과보고서, 활용자료 등을 수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최초 발간한 매뉴얼 책자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서포터즈(Templestay Promotion Suppoters, T.P.S)를 모집한다. 또 외국인을 도와 함께 활동할 한국 청년 서포터즈도 모집한다.

내외국인 청년으로 구성되는 서포터즈는 템플스테이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 사찰 생활 익히기와 한국 불교 교リング와 수행에 대해 배우게 된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청년 또는 국내 청년들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9월 30일까지 이메일(educham203@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서포터즈 선발은 서류 심사와 10월1일~3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을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신중일 기자

시대에 맞고 지속가능한 정책 시급

3자연대 종책토론회서 논의… 보선 스님 "재임 않겠다"

"차기 집행부의 종책은 불교정신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종책이어야 한다."

차기 집행부의 종책 과제의 기조와 방향을 모색하는 종책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불교의 오늘을 생각하는 종도들의 모임(옛 무량회, 무차회, 백상도량)은 9월 12일 전남 구례 프라자 호텔에서 '불교발전을 위한 종책토론회'을 개최했다.

'여법한 종단 운영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주제 발제와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과 도정 스님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금강 스님은 차기 집행부의 종책 기조로 △불교정신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종책 △국민 대중을 위한 종책 △지속 가능한 종책 수립 △결실을 맺을 때까지 독려하는 행정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종책 입안 △국민의 행복과 안락을 위한 종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종단의 종책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채 '찻잔 속의 태풍'처럼 과거의 훈습에만 의존했다"며 "사회가 불교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불교정신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되

불교광장도 3차 좌담회 개최
교구책임제 등 종책과제 논의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인 도정 스님은 수행종풍 진작과 재정 투명화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범계 문제에 있어서 계율이나 종법이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에 연연하는 관습에서 벗어나야 하며, 단계적으로 사찰의 재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직후 3자연대 측 추대 후보인 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당선될 시 계파 정치를 하지 않고 재임도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불교광장도 9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차 종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교구 책임제'와 불교성장 동력 준비, 불교의 사회 책임 확대, 포교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박재현 월정사 종무실장은 교구책임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와 교구책임제의 의미, 실천 방향을 차례로 짚어 눈길을 끌었다.

박 실장은 "포교 종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하는데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생산 · 하달하면 교구에서는 문서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진단하고 △직할교구 분리 △교구책임제 로드맵 작성 △입안을 위한 전문가 모임 구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아프리카에 자비 씨앗 뿌리다

아름다운 동행, 9일 다르에스살람 농업학교 건립 기공식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기술학교 건립을 선포한 아름다운동행이 첫 삽을 떴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9월 9일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테메케군 학교 건립부지에서 '체케니 무와송가 농업기술고등학교'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대표단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광 스님(조계종 사회부장)과 사무총장 혜일 스님, 선원수좌회를 대표해 육문 스님과 영운 스님, 경기도 광주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 등이 참석했다. 탄자니아에서도 정일 주탄자니아 한국대사, 김승범 코이카 탄자니아 사무소장, 소피아 음제마 행정장관 등 정관계 인사, 마을 주민 등 400여 명이 참가해 미래 농업지도자 양성의 요람이 될 학교 기공식을 축하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광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탄자니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공부하게 될 학교를 설립하는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기공식은 대한민국과 탄자니아 국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워질 농업기술학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교육비, 생활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농업을 통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공식에 앞서 아름다운동행은 부밀리오코니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마을주민의 식수 지원을 위한 우물 통수식을 개최했다. 학교에 설치된 우물은 태양열 패널을 이용한 모터펌프로 지하 80m의 물을 끌어 올려 사용할 수 있는 최신 시설로 일반적인 핸드펌프에 비해 고장이 적어 마을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일방적인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광 스님은 "물이 고장나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선적으로 우물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9월 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체케니 무와송가 마을에서 열린 아름다운동행 농업기술고등학교 기공식에서 참가 내빈들이 개토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아름다운동행〉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후보작 공모

10월 18일까지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제21회 불교언론문화상 후보작 및 후보자를 공모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18일까지 TV와 라디오, 신문 등 분야에서 불교언론문화상 후보작 및 후보자를 접수받는다. 공모 부문은 불교와 관련한 보도, 제작, 출판물 등으로 접수는 TV와 라디오, 신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특별상 분야를 확대해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광고, 뉴미디어(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포함) 등에 대한 부문도 공모한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불교언론문화상은 지난 1993년 대한불교신문사와 보리방송 모니터회가 공동으로 발의해 2004년 조계종이 동참하면서 교계에서 수여하는 언론분야 최고의 상으로 거듭났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TV · 라디오 · 신문 부문에는 상패와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특별상에는 상패와 함께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또 불교언론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지원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후보작과 함께 불교언론문화상운영위원회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02)745-5811 신중일 기자

육조혜능 스님 열반 1300주기
퇴옹성철 스님 열반 20주기

육조혜능과 퇴옹성철, 그리고 한국불교

추모 학술포럼



일 시 불기2557(2013)년 9월 25일(수) 오후 1시30분 ~ 6시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문 의 백련불교문화재단 02-2198-5101

진행순서

1:30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1:35 개회사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1:45 기조법문 '육조혜능과 퇴옹성철, 그리고 한국불교' 고우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전체 포럼 사회 서재영(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2:45 발제 1 '내가 본 혜능과 성철' 이은윤(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
3:30 휴식
3:45 발제 2 '혜능과 한국 선불교 전통' 한형조(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4:30 발제 3 퇴옹성철과 육조혜능 : 성철 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현토 • 편역 고찰 서명원(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5:20 전체토론
6:00 사홍서원, 폐회

주최 _ 성철 스님 문도회 주관 _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

일 주 문



추석맞이 소년소녀 가장 돕기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9월 11일 추석을 앞두고 소년소녀가장 60명에게 각각 20kg 쌀 1포대 씩을 전달했다.



예비 목회자 대상 불교 특강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은 9월 11일 삼육대학교 신학관 대학원 소강당에서 예비 목회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특강을 진행했다.



제65주년 국군의날 초청강연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9월 25일 성남비행장 기지강당에서 건군 65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2013 수능 백일기도

장성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11월 7일까지 경내 대웅전에서 2013 수능백일기도를 진행한다. (061)392-0100



흥천사 삼각선원 개원

서울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은 9월 14일 경내 참선 선방인 삼각선원을 개원했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산사음악회

화순 도원사 주지 진철 스님은 도원사 개원 7주년을 겸해 10월 2일 소년소녀가장을 돕기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평생교육 활성화 책임자 선정

박선형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3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비학위과정' 책임자로 선정됐다.

동국대 불교대학 '비전2020' 추진

비전수립위원회 위원장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11월 26일 비전2020 선포식 거행
교육·세계화·네트워크 3개 분야
TF팀 구성, 10월 중 세부계획 수립

종립 동국대 불교대학이 '비전2020'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11월 26일 불교대학 내 불교학과·인도철학과·선학과를 비롯해 불교대학원의 각 동문회가 총결집하는 자리에서 '비전2020'을 선포한다.

정승석 불교대학 학장은 9월 11일 "'비전2020' 추진을 위해 불교대학 학과 동문회와 유관 조직을 일원화 해 '비전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학 선진화 ; 교육과 연구 △한국불교 세계화 ; 국제화와 세계화 △불교의 사회적 소통 ;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의 3개 분과에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비전수립위원회는 현재 불교대학 학장인 정승석 교수가 위원장<사진>을 맡았으며 TF팀 총괄은 우제선 동국대 교수가 맡는다. 자문위원에 동국대 교수인 보광·혜원·계환 스님, 박경준 교수가 포진하고 집행위원으로 해주 스님을 비롯해 김용표, 김호성, 박인성, 지창규, 이지수 교수 등 불교대학 교수들이 비전 수립에 앞장선다. TF팀은 10월 중으로 비전2020 세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먼저 개괄적인 계획으로는 제1분과는 교육과 연구 분야로 종호 스님과 고영섭 교수가 비전 수립을 맡는다. 세부 방향으로는 대학원 및 학부구조, 학문 체계를 정비하고 역경 및 포교, 불교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또 불교 외전 및 학제 간 연구 활성화와 불교대학원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포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분과는 국제화와 세계화 분야로 황순일 교수와 김종욱 교수가 비전 수립을 맡는다. 세부방향으로는 해외 불교대학과 자매결연 확대, 국제적 불교인재 육성, 동북아 3국 복수학위 취득, 동아시아 수행프로그램 교류 등이다.

제3분과는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분야로 신성현 교수와 김학주 교수가 비전 수립을 맡는다. 세부방향으로는 불교 및 교사(敎史) 전시사업과 불교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해 일바인들에게 불교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또 사찰 및 불교단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동국불교 투어를 통한 홍보 또한 진행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대학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입니다. 오늘날 동국대에 대한 사회적 위상, 또 대학 내에서 불교대학의 위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 교수는 이번 비전2020 선포식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불교대학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승석 교수는 "그동안 동국대가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불교학의 중심'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며 "먼저 불교대학과 동문들이 뜻을 모은다면 불교계에서도 불교대학 발전에 대한 참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석 교수는 끝으로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불교대학과 동국대, 그리고 한국불교가 발전하는 힘이 모아졌으면 한다"며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공명선거위원단 발족

중앙선관위, 총 21명 위촉
청정 선거 견인차 다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1일 공명선거위원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부정선거 감시 등 청정한 선거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오는 10월 10일 열리는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공명 정대한 선거로 이끌기 위한 조직이 공식 발족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9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장에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공명선거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개정된 선거법 8조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전국 교구본사 중 21개 본사에서 각 1인 씩 참가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종단은 과거 선거에서 비방, 금품살포 등 옳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선거 직후 그 후유증으로 많은 고초를 겪어왔다"며 "이번 공명선거위원단 발족은 부정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1명의 스님에게 공명선거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촉된 스님들은 부정선거 감시에 충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종법에 의한 처벌을 받겠다는 골자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공명선거위원단은 중앙선관위의 지휘를 받아 활동하게 되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 △각 교구별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교구종회 참관 △부정, 탈법, 금권 등 선거 부정 감시 활동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공명선거위원단 지일 스님(선운사)은 "공명선거는 한국불교의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위원단 스님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천태종 종전연구원장 서윤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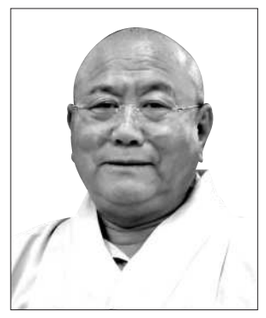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는 9월 4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천태종 초대 종전(宗典)연구원 원장에 위촉됐다. 종전연구원은 천태종 소의종전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다. 원장 임기는 3년. 이날 위촉식에서는 운영위원으로 도원 스님(前 교육부장)·용암 스님(前 교육부장)·무원 스님(前 총무부장)·월도 스님(현 총무부장)·경혜 스님(교무부장)·월중 스님(재무부장)·도웅 스님(현 교육부장)도 위촉됐다.

서윤길 명예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0여 년 간 불교학과 교수로 지내며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김주일 기자

"불자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일"

정각원장 법타 스님, 9월 7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7일 정각원 토요법회 6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각원장 법타 스님, 정각원 교법사 마가 스님, 정인악 신도회장 등 23명이 희망등록했다"고 밝혔다.

법타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심정민 사무총장에게 정각원 신도들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전달하며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강조한 수행 덕목이 보시"라면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숭고한 공덕을 짓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고사리 손으로 모은 한가위 자비심

부산 동항초·용호초 사랑의 쌀 모금해 복지관 전달



부산 남구 동항초등학교(교장 이규섭)와 용호초등학교(교장 송영복)는 지난 9월 10~11일 초등학생이 모은 사랑의 쌀을 부산용호복지관(관장 이춘성)에 전달했다.

이춘성 관장은 "2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전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쌀 한 봉지가 모여 만들어진 큰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섭 동항초등학교 교장은 "아이들이 나눔과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송영복 용호초등학교 교장은 "쌀 봉지에 적은 아이들의 바람처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 초등학교는 올 해로 2년째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경주 동국대, '파라미타 칼리지' 운영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9월 11일 신입생 기숙형 대학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라미타 칼리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학부교육 선진화를 위해 대학교육철학과 인재관에 대한 교육, 참사람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신입생 학사지도 및 관리, 저학년부터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학사지도교수제 신설 및 운영, 교양기초교육 강화, 신입생 기숙형 대학(레지덴셜 칼리지) 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2014학년도부터 한의예과를 제외한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파라미타 칼리지를 운영한다. 신입생 중 580명을 선발해 RC(레지덴셜 칼리지) 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RC교육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공간을 교육공간으로 전환해 정규 교과학습활동뿐 아니라 역량개발 중심의 다양한 비교과 학습활동을 위한 통합형 교육체계이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파라미타 칼리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추구하는 참사람 핵심인재가 갖춰야할 역량 개발을 위해 입학에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별화된 교육체계"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분한신고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은 오늘에 이어 종도들의 새로운 원융화합과 그 이상을 높이고, 범불교적인 여러문제들을 해결하고 청정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한국불교조계종은 다종교 다문화와의 충돌과 갈등속에서 신심이 떨어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한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각 사암 및 종도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4일

(사)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대봉 합장

분한 안내

분한신고 기간 : 2013년 9월4일부터 10월30일까지

접 수 처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신고요령 및 절차

-. 승려 및 분한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통 -.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등록증 사본 1부 -. 주지 임명장 사본 1부 -. 명암판 사진 2매

유의사항

1. 기간내에 본 종단에 분한 신청하지 않는 종도는 탈종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기간내 분한신고을 필하지 않은 종도님들은 본 종단에서 앞서 발행한 모든 증빙서류는 효력이 상실되며, 분한신고를 필하신 종도님께서는 제반 서류를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구 종무원 및 총무원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교구 종무원

교 구	종무원장	사 찰 명	연 락 처
서울교구	능혜스님	용화선원	010-3133-9252
경기교구	법성스님	성 안 사	017-798-1259
부산교구	지암스님	약 사 암	010-4082-1933
경북교구	지연스님	장 룡 사	010-2618-3673
전북교구	탄오스님	금 당 사	010-5423-7767
전남교구	진성스님	매 봉 사	010-6405-2244
대구교구	대화스님	무 상 사	010-3566-7989
경남교구	혜원스님	대 광 사	010-3117-3265
충북교구	해성스님	관 음 사	011-9844-7799

■ **총무원**(총본산 백봉사)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리 300번지 **전화** : 1577-1016 / 054)572-1034 / 571-1030 **전송** : 054)571-7498



나란다 축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 1회 은정 B-boy 댄스경연대회. '은정, 꿈을 나누다'를 주제로 마련된 'B-boy 그랑프리'는 사전 심사를 거친 7개 팀이 참석해 세계 속 한국 비보이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B-boy댄스 경연대회를 지켜보고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과 이사 스님들.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부스도 마련돼 직접 시연하며 전통문화를 익혔다.

꿈 나누는 '나란다 축제'…B-boy 댄스경연 등 신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7일 동국대서 흥겨운 한마당

9월 7일 동국대 일대는 흥겨운 축제로 뜨거웠다. B-boy팀의 댄스경연과 다채로워진 전통문화 체험행사, 사관생도들의 교학경연 등으로 구성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제5회 나란다 축제로 참가자 모두가 한바탕 흥겨운 축제를 벌였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B-boy팀의 댄스경연과 외국인을 위한 '도전, 범종을 울려라' 등이 신설돼 눈길을 끌었다. 오전 10시 30분 첫 순서로 진행된 일반부를 위한 '도전범종을 울려라'는 총 69개 팀이 참가해 퀴즈로 세대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이 행사에는 봉은사 청년회, 조계사청년회, 동대부속여고 평생교육원, 한국불교대관음사,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 등 전국 각지 신행단체의 소속 불자들이 팀을 이루어 참가한 것.

이중 육사 화랑호국사는 장병과 사관생들이 주축으로 이뤄진 20여개 팀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송재훈 상병(22)은 "호국사지도 법사님을 통해 축제를 알게 되었다. 불교네비게이션 교재를 가지고 3주 정도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준비를 하는 동안은 1등을 목표로 했는데 아쉽게도 우수상을 받았다. 내년 7월에 제대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전해 대상을 받고 싶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하윤 씨(21,동국대경 · 캠 사회복지학과)는 대구의 한국불교 대관음사 칠곡도량 대학생불교회 소속으로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씨는 "두 달 동안 도반들과 팀을 만들어 매일 1~2시간 씩 공부를 했는데 그 노력의 결실로 대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지도해주신 담당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드리며 함께한 도반들도 너무 고맙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한국불교 대관음사 칠곡도량은 5개 팀 중 4개 팀이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2개를 휩쓸며 그 위력을 과시했다.

일반부에 이어 진행된 외국인을 위한 '도전범종을 울려라'는 올해 최초로 개설돼 눈길을 끌었으나 50명 정원 중 8명만이 참가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대회에는 불교와 전통문화를 혼합한 문제로 종교와 언어를 넘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교사 미국인 데이지(24) 씨는 "친구의 소개로 이 축제를 알게 되었다. 한국불교에 관심이 많아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기쁘다. 1주일 정도 예상문제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며 참가 과정을 전했다.



일반부를 위한 '도전범종을 울려라'는 총 69개 팀이 참가해 퀴즈로 세대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B-boy, '크로하츠' 팀 대상 수상
'도전 범종…' 외국인 8팀 첫 도전
일반부 총 69팀…육사 20팀 참가
대관음사 '연꽃사랑' 대상 영예

같은 시각 동국대 중강당에서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 1회 은정 B-boy 댄스경연대회의 막이 올랐다. '은정, 꿈을 나누다'를 주제로 마련된 'B-boy 그랑프리'는 사전 심사를 거친 7개 팀이 참가해 세계 속의 한국 비보이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겜블루 크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참가 팀들은 열정의 무대를 펼쳤다. 또한 이 자리에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 등이 참여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대회에 참가한 리얼브로 장순호 씨(25)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춤을 추며 B-boy의 꿈을 펼쳐왔다. 그는 "정적으로 보이는 불교에서 이런 행사를 여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 참가를 결정했다. 객석에 스님들이 앉아 계시니 색다르기까지 하다. 또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조명을 받으며 공연을 하니 춤에도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 다음 대회에도 계속 참가하고 싶다"며 의지를 밝혔다. 로우패밀리 안정윤 씨(19)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축제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춤을 시작한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VIP, 유니버셜, 리얼브로, 크로하츠 등 네 팀이 본선에 진출해 춤배틀로 우승팀을 가렸다. 대상은 크로하츠(상금 200)가 최우수상은 리얼브로(상금 100만원)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올해 B-boy 그랑프리를 시작으로 국악 등 전통문화 경연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축제는 초등부 도전범종을 울려라가 이어졌고 동국대 만해광장에는 20개의 전통문화체험 마당 부스가 마련되어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의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부 △대상 이은지 (덕두초등학교 · 부산 보국사,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박민진(서정초등학교 6 · 서울 국제선센터, 상금 80만원), 홍승엽 (율목초등학교 5 · 경기 용주사, 상금 80만원) 등이 수여된다. 외국인 부문은 △대상 홍찬라(말레시아,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피게로아 몰리나카트린 루시아(과테말라, 상금 80만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일반부는 △대상 한국불교대 칠곡도량 연꽃사랑 양기순 · 김종형 · 이하윤(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한국불교대 칠곡청법 1팀 김영출 · 박혜숙 · 박진경(상금 100만원), 금륜사 4팀 강병주 · 설경옥 · 정선우(상금 100만원) 등이 차지했다.

또한 나란다 축제 둘째날인 8일에는 전국 33개 법당에서 2천 200여명의 군장병들이 경시대회를 치렀다. 11일에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관생도 1천여명의 경시대회도 진행됐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국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포교 · 신행 소식

평화재단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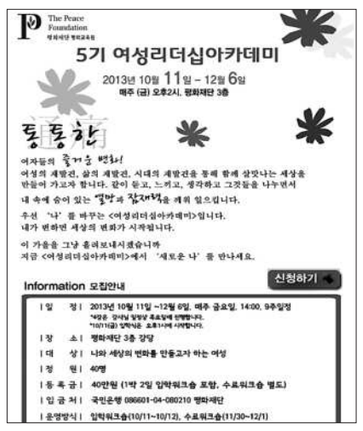
10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법륜 스님, 심상정 등 강연

여성의 가치를 재발견해 새로운 여성 리더십을 이끌어 내는 강좌가 열린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제5기 청년 리더십아카데미' 를 10월 11일~12월 6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평화재단 3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여성들의 즐거운 변화를 위해 법륜 스님, 윤여준, 고미숙, 심상정, 최재천, 문은희 등 10명의 멘토가 강의를 펼친다.

강좌가 열리는 첫째 날 고미숙 고전평론가의 '인생 有 반전' 을 시작으로 △법륜 스님의 '갈등의 대한민국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문은희 알트루사 대표의 '리더십특강: 나와 연애하기' △박해천 디자인연구자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윤여준 평화재단 교육원장의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상이 제주대 교수의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세상' △김진혁 한예종 방송영상과 교수 '네 생각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심상정 정당인의 '내가 걸은만큼 내 인생이다' 등 삶, 복지, 정치, 사회,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이 진행된다. 나와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40명 모집한다. 평화재단은 "여성과 삶, 시대의 재발견을 통해 함께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같이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나누며 내 속에 숨어있는 열망과 잠재력을 깨워 일으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02)6925-0522



관악산 원각사, 10월 5일 힐링바자회

힐링음악회도 개최, 수익금 일부 소외이웃에 전달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원각사(주지 연호)는 '제5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힐링바자회' 를 개최한다.

원각사는 10월 5~6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도들이 기증한 헌옷과 생활용품 등 벼룩시장 장터와 각종 먹거리, 토속식품 등도 판매한다.

오후 1시부터는 김난영, 이찬, 국악가수 권미희 등을 초청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를 진행한다.

이날 판매된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지역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새터민 및 불우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연호 스님은 "힐링바자회를 통해 종교의 화합을 기원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자 한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로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586-8818 이나은 기자

불교집단상담프로그램 지도자 2급 연수

9월 28~29일, 10월 19~20일 경주 동국대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백경임)와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불교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불교집단상담 프로그램 지도자 2급 연수' 를 개최한다.

연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 사찰 신도 교육 담당자, 대학 교양과목 강사, 청소년 인성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9월 28~29일, 10월 19~20일 두 차례 동국대 경주캠퍼스 에너지공학관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연수시간은 총 36시간으로 참가비는 25만원이다. 수료시 연수 수료증과 불교집단상담 프로그램 지도자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노덕현 기자

동대부여고, 지역주민에 불교문화 알린다

'서울시 평생교육 공모사업' 선정, 불교문화·기초교리 등 강좌 열어

소득 증가와 의학 발달로 인생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와 지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하고 그 양도 나날이 증가해 평생 배우고 익혀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여자고등학교(교장 김용선, 이하 동대부여고)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 평생교육 활동에 동참해 눈길을 끈다.

지역주민들에게 불교기초교리와 불교전통문화재 및 전통무용 등 강좌를 제공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

동대부여고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공모한 '2013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지원사업' 에 선정돼 5월부터 불교를 주제로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인보 동대부여고 교법사는 "평균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평생교육이 중요해지면서 교육계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며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교평생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대부여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불교기초교리강좌 △전통문화재 바로알기 △부모감정코칭 △불교전통무용(바라춤, 나비춤) 무료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매주 평일 오후 동대부여고 교내 법당 정각원에서 오는 10월까지 10회에 걸쳐 강의를 듣게된다.

'불교기초교리강좌' 는 부처님의 생애, 12연기, 사성제 등을 주제로 현직 교법사가 진행하는 강좌다. 5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주간 진행된 '전통문화재 바로알기' 는 불교건축 · 조각 · 회화 공예 등을 통해 문화재에 깃든 불교 정신을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밖에 동대부여고는 자녀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자녀의 감정에 잘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부모감정코칭' 과 '불교전통무용(바라춤, 나비춤)' 을 진행했다.

서울평생학습축제 개막식 공연참가
지역주민 · 학부형에게 큰 호응
"힐링 명상 등 불교콘텐츠 개발할 것"

네 강좌는 모두 제한인원이 초과될 정도로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았다.

우인보 교법사는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있었던 주민들이 와서 수강했다.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바라춤이나 불교전통문화재 강좌를 인근 학교에서 무료로 가르치니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기타 종립학교에서도 독자적으로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불교기초교리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서울시특별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아 평생교육학습으로 진행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교법사는 "학교평생교육은 학교의 다양한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 개인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과정 종료 후 학교 및 지역사회에 재능봉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대부여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9월 6~8일 개최한 '2013 서울평생학습축제' 개막식 공연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불교전통무용' 을 배운 수강생들과 지도 스님이 바라춤 중에서 불공을 드릴 때나 시식(施食)할 때 외는 네 가지 진언인 '사다라니' 를 선보였다.

지역주민인 정용미(50) 씨는 "평소 바라춤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전통무용강좌를 무료로 진행한다는 안내를 보고 신청하게 됐다"며 "특히 불교전통춤은 배울 기회가 없는데 인근 학교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 공연도 참가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교평생교육 공모사업은 매년 1회 진행한다. 동대부여고는 불교와 관련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선 동대부여고 교장은 "힐링 명상을 비롯해 자녀와의 소통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주민과 학부형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적극적으로 사업공모에 참여해 불교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동대부여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9월 6~8일 개최한 '2013 서울평생학습축제' 개막식 공연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대불청, 사회 소외 청소년 보살핀다

비진학청소년 대상사업 · 템플스테이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진행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9월 10일 전법회관 4층 사무실에서 '행복한 미래로의 여행' 플랫폼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미래로의 여행' 플랫폼은 19~24세 비진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진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이다. 9월 9일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플랫폼에는 △자기이해 정보탐색 △직업이해 사회진출 준비 △실천활동 공헌활동 분야에 세부 과정으로 21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증과 진 정보 공유를 비롯해 진로적성검사, 현직 전문가 멘토링 등이 진행된다. 3회, 3기수에 매 회당 모집인원은 48명이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 프로모션 서포터즈 프로젝트는 내 · 외국인 청소년 각 30명을 모집해 진행된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 사찰생활 익히기, 한국불교 교리와 수행에 대해 학습한다. 1박 2일간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SNS홍보 및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30일 까지다. (02)738-1920 노덕현 기자


대불청은 지난 4월 '연등회 서포터즈' 로 활동할 내 · 외국인 자원봉사를 모집해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의 날 행사 참가

세계자살예방의 날 맞아, 보건복지부 주최 학술대회 발표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부설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자살예방의 날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했다.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는 9월 10~11일 양일 간에 걸쳐 The K-서울호텔에서 진행되는 자살예방주간 행사에 '생명, 삶, 살림' 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불교적 자살예방을 알리고 전국 자살예방 유관기관과 교류했다. 홍보부스에는 현재 본원에 등록된 11개의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둘째 날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자살예방 종합학술대회 종교 기반 자살예방 세션에서는 이범수 교수(동국대 생사의례학과)가 '불교철학에 기반한 자살예방활동' 을 주제로 학술대회의 발제를 맡았다. 이범수 교수는 불교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현재 불자층의 연령을 감안한 불교계 노인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49재가 지닌 유가족 치유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현재 11개의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족 면접상담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4개의 센터가 증설될 예정이며, 2014년에는 전국 규모의 불교자살예방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불교적 자살예방의 이념과 해법들을 연구해 자살유가족 전문상담을 비롯한 죽음애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상담가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화순 도원사 소년소녀 가장돕기
제4회 산사음악회
개원7주년기념 1080연등불사 및 불자노래자랑
행사내용
■ 모후산 풍물단 지심밟기 ■ 장학금 전달식
■ 문화공연 - 초청가수 : 신바람이박사, 조찬찬, 정현, 정주호, 이서경, 허승자, 김선정, 김자운,
- 국악살풀이 - 광주 난타
■ 신도 노래자랑, 경품추첨
■ 1080연등불사 (1인 1등 일만원)
■ 주관 : 사단법인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 주최 : 도원사 거사림회, 방생회, 신도 일동
■ 협찬 : 선각종 전국교구본사, 불교TV, 광주일보, 호남일보,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화순군계사회, 불교서원(광주), 삼천불교상사, 광주사랑모임, 영진골재중기(화순), 신세계약국, 한일리모델링, 금호타이어, 한우곰탕, 금강민물식당, 오리꿀꿀, 금성식당, 보석사우나, 백 재활요양병원, 맛갈셈식당, 우진관광, 동복하나로마트, 동복청초목장, 매실내떡방앗간, 사평맛고을식당, (주)천하산업, 도곡삼오타올, 해남 장성제재소, 무안(유)산들통산
◆ 장 소 : 화순 모후산 도원사 야외음악단
◆ 일 시 : 2013년 10월 2일(수) 오후 2시
◆ 문 의 : 061)372-1047, 010-6258-8325, 010-4433-050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자 격 과 정 | 교 육 기 간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 14주 과정 목요일 반 |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차별화된 복지문화로 불교계 노인복지 '앞장'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맞아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9월 10일 무의탁 홀몸어르신과 함께하는 추석보내기 한마당을 개최했다(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전경(우).

불교계 최초 사회적기업 설립
매년 어르신 욕구조사 실시
9월 27일 개관 10주년 학술대회

서울 광진구 지역은 이전부터 거주해온 어르신과 지역개발 등으로 유입된 어르신 등 소득 수준이 상이한 세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에 대한 욕구가 다르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이곳에서 10년 동안 다양한 성향의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왔다.

200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하고 서울아차산 영화사에서 지원 운영하는 곳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차별화된 복지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복지기관'을 비전으로 어르신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일자리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차별화된 복지문화를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된 '사랑의 와플하우스'가 눈여겨볼 만하다. 2008년 서울시 지원 고령자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사랑의 와플하우스'는 2010년 2월 서울형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 2010년 12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최초다.

신재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부장은 "'사랑의 와플하우스'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커피, 전통차, 와플 제조법을 전수하고 어르신 스스로 카페를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곳으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자랑"이라며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아동 및 학부모와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아 1·2·3세대 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 일정액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환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건강한 노년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내에 실내 골프장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저소득 아동들의 골프를 지도하는 '홀인원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신재원 부장은 "수년 간 진행된 골프교실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 어르신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하는 등 지역사회 1·3세대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 서울·경기지역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성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2%가 성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성교제 문제는 더 이상 금기시 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보다 발 빠른 관심을 보여 왔다. 매년마다 어르신 욕구조사를 실시해 200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및 실버미팅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 사별 또는 이혼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실버미팅 '최고의 사랑'에 참여해 △관계형성프로그램 △마음여행 △포크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노인복지관 최초로 2009년 3월 '광진노인전문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사회복지사를 상담사로 두고 운영하는 다른 복지관과 달리 전문상담사를 두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마음챙김명상, 죽음준비 등을 주제로 노인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인근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내 노인상담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결과 복지관은 '2009 서울시 노인복지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12 보건복지부 전국노인복지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결실을 맺었다.

또한 관장 화평 스님은 10년간 어르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복지정책을 펼쳐 2011년 '제10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화평 스님은 "위탁 법인과 운영지원 사찰, 종사자들과 봉사자 및 이용자들이 모두 화합돼 10년간 복지관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와 안정된 노후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9·10월 두 달간 풍성한 행사를 진행한다. 복지관은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학술대회 '홀몸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정립'을 개최한다.

또한 10월 4일 오후 1시 복지관 대강당에서 이용 어르신이 직접 참여하는 '제11회 실버가요제'를, 11일에는 '개관 10주년 기념식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9988해피투게더'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한마당을 마련한다. 이밖에 10월 11일 광진광장에서는 '광진구 가수왕 선발대회'를, 10월 25일에는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착한소비축제'를 마련해 지역 어르들을 위한 기금을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주여성 위한 추석행사 마련

꿈을이루는사람들, 9월 8일 모자가족 초청해 쌀 등 전달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9월 8일 한국인 남편의 사망이나 남편의 폭력으로 혼자 아동을 키우는 이주여성 모자가족 30명을 초청해 한가위 행사를 열었다. 진오 스님과 이주여성 가족들이 송편빚기를 하고 있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9월 8일 한국인 남편의 사망이나 남편의 폭력으로 혼자 아동을 키우는 이주여성 모자가족 30명을 초청해 한가위 행사를 열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가족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과 2세 자녀들이 외롭고 쓸쓸한 한가위가 되지 않도록 송편만들기, 한복입어보기, 가족사진 촬영으로 비슷한 처지의 다문화 모자 가족들이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마련했다"고 전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이날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다문화 모자가족마다 쌀 10㎏과 생필품을 선물했고, 진오 스님은 2012년 11월부터 3개월간 4대강 1천㎞를 뛰면서 모금한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진오 스님은 "젊은 20대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만 가진 게 없고 의지할 가족이 없어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렸기 때문에 보람있다"고 말했다.

언어장애를 가진 규석(5세)이를 키우는 캄보디아 출신 씽팔라(25)씨는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 이야기 할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진오 스님은 1㎞마다 100원씩 적립되는 모금마라톤을 2년 동안 2천㎞를 달려 약 8천만원을 모금했다. 또한 지난 6월 미국 4,308km를 횡단한 김기중씨의 기부금 4천만원을 더해 다문화 모자가족을 위한 달팽이 쉼터를 계약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조손가정 장학사업

한국외환은행노조지부와 9월 9일 협약 체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조손가정 장학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9월 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프로그램실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9월 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프로그램실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김기철 위원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속에서 가사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전국의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가정)을 대상으로 총 6세대의 조손가정에 월2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을 통해 후원되는 조손가정 장학금은 서울(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양평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홍천군장애인복지관), 경상도(산청군건강가정지원센터, 울진군노인요양원), 전라도(해남군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한 조손가정에 매월 지급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생활고를 겪는 조손가정에 지원됨으로써,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위드아시아, 미얀마·캄보디아에 구호지원센터 설립

'드림나래센터' '청소년도서관' 등 유소년 교육사업 박차

국제구호 비영리단체인 (사)위드아시아가 미얀마·캄보디아 청소년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9월 2일 캄보디아 뿌레이벵주 뿌레이끄랑마을에 '위드아시아 Dream나래센터'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캄보디아 뿌레이벵주 핫싸렛 도지사와 쓰로웃깜뽕군 짠드라 군수와 지역주민, 교사, 학생 등 500여 명과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부산 문수사 주지, 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이사 승지 스님(창원 성불사 주지), 이남재 사무총장, 전근수 캄보디아지부장 등 일행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 스님은 개원식 인사말에서 "오늘 준공된 드림나래센터는 그동안 자원해왔던 다양한 구호사업의 거점지로서 어린이공부방과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이동영화 상영, 보건소 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행정적으로 잘 협조하고 지역주민들도 자녀들의 꿈을 이루는 배움터로서 소중하게 가꾸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스님은 현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이동영화 상영기기(컴퓨터, 빔 프로젝트, 스크린, CD 등), 의약품, 학용품, 옷 등을 전달했다.

핫싸렛 도지사는 축사에서 "이곳 뿌레이벵주에는 그동안 다른 NGO들이 와서 건물을 많이 지어주었는데 오늘 완공된 드림나래센터는 가장 열악한 마을에 지어져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펼치는데 중요한 배움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드아시아는 9월 4일 미얀마 양곤 외곽에 있는 세인야다나 사원에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주) 후원을 받아 '위드아시아 청소년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위드아시아는 9월 4일 미얀마 양곤 외곽에 있는 세인야다나 사원에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주) 후원을 받아 '위드아시아 청소년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세인야다나 사원 주위에는 절대빈곤층 마을이 위치해 제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밧단다 세인야다나 사원 주지 스님은 8년 전부터 사원 법당을 활용해 250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부방3곳을 운영하고 있다.

(사)위드아시아는 북한과 아시아 지역 빈곤·소외계층과 국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제구호 비영리법인으로 2002년 10월부터 11여 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국제구호사업으로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학교 및 공부방을 건립하고 각 나라 절대빈곤 지역 마을에 우물설치와 지붕개보수, 기초의약품 지원, 결연사업 등 다양한 국제구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02)3444-8007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및사찰등록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3년 9월 중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마음챙김’ 상태 유지 하면, 이타행 생겨나

청주 관음사 일요법회

잔 보우드리(John Beaudry) 교수(국제 불교학교)

법문을 주기 위해 왔지만 도리어 법문을 받아간다고 말하는 법사. 분명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겸손은 아니다. 잔 보우드리 교수는 법당에 모인 이들에게 “자신도 똑같은 수행자”라며 우리는 서로 불성의 자리를 맡아주는 ‘자리 지킴이’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다. 잠시 방황하다 돌아와도 멈춰졌던 수행과 잊고 있었던 불성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표지말이다. 8월 4일, 청주 관음사에서 열린 일요법회는 법사와 참여자간 잔잔한 법 나눔의 시간이었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잔 보우드리 교수는 … 현재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교수이며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강사를 맡고 있다. 연구 공간 수유+너머 등에서 학인들과 함께 존재와 삶을 변화시키는 불교 공부를 모색해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오랫동안 연극 프로듀서, 디렉터로 일했다.

법당, 불이(不二)가 구현되는 장소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제게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 했을 때, 참 곤혹스러웠습니다. 미묘한 업과 인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그저 수행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전 무언가를 받기위해 여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회를 시작할 때 합창단 여러분이 노래로 들려주신 법문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듣고 있자니 ‘이렇게 귀한 걸 들으러 여기 온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절에 도착했을 때 수행하시는 분들의 에너지가 도량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수행이 깊으실 테고 수행해 오신 기간도 오래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공부하는 학생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아까 이곳에 처음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부처님이 계신 법당에 가서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부처님이 ‘거기’ 계시더군요. 그것은 부처님 얼굴을 한 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당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에너지가 법당 가득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불이(不二)’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둘이 아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법당에서 느꼈던 것은, 부처님과 여러분이 이미 둘이 아니라는 것, 부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의 형태를 한 불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진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법당에서 좌복 위에 앉아 수행하다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있죠? 그때 여러분의 자리임을 표시하는, 여러분의 흔적을 나타내는 좌복을 떠올려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이곳을 지키는 것과 같다 생각했습니다. 마치 좌복처럼요. 우리는 법당 안 불상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경책합니다. 바르게 수행하고 불이(不二)를 발견하도록 법당 부처님은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십니다. 바로 그런 부처님이 불성의 자리를 맡아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그냥 거기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형상을 한 불상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불성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란 것을 새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고자 하는 길을 끊임없이 경책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수행

그래도 여전히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늘 질문하고는 합니다. 승가대에서도, 국제불교학교에서도 스님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여전히 뭘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고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과정이 제게 많은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혼자 정진할 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꿋꿋한 수행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강의를 위해 교실에 들어서면 제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제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화두라고 어떤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뭔가에 집착한다거나, 성낸다거나 하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수행을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끊임없이 이런 감정들에 휩싸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들이 조금 거슬린다 싶으면 제 마음 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그것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데 가르침의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에 들어가기 전,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잘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수행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보살의 서원을 독송하십니까? 그것을 읽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그처럼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있을 때, 가르침의 수행을 나를 위한 정진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정진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그 과정이 쉬워집니다. 수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 생각하니까요. 어쩌면 제 가르침을 받는 학생보다도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얻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켜보는 겁니다.

마음 거칠어져도 세상 속에서 수행해야
수행은 어느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우리는 서로 불성의 자리 지키는 지킴이들”

집착할 게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행처들을 순례한 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불교를 가르치는 뜻하지 않은 인연이 시작된 후,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굉장히 깊고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공동체 수유+너머에서 불교 강의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들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제게 훌륭한 좌표가 되어 주었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 또는 내 것이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라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새로운 분들과 함께 부처님 법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지침이죠. 제겐 참으로 도움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것에 집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원하는 것을 탐하고 있거나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뿐 아니라 달마대사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도를 발견하고 싶다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고요. 선의 전통에서도 집착하지 않음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조 혜능 대사께서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수행은 집착하지 않음이다’. 육조단경도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면 그로부터 태어남과 죽음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윤회라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행은 집착하지 않음, 매달리지 않음, 끄달리지 않음의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돌이표 수행일지라도

좌복 위에 앉아서 수행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요. 집을 나서려고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버스를 탈 때면 운전기사분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또한 에어컨을 안 틀었다고 혹은 너무 세게 틀었다고 짜증스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학교로 가는 매일 매일, 탐냄과 성냄의 마음이 들었다가 사라지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강의를 위해 교실에 들어설 때면 저는 선생님처럼 반듯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마음이 오락가락하다 좋은 선생님으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방하착이라고 하죠. 내려놓음과 집착하지 않음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냄, 성냄의 마음이 일어날 때,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린 그것을 수행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알아차림을 통해 성냄과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 일상에서의 수행이 조금씩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불이(不二)의 마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는 불성을 줄곧 견지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하루를 보내고 오면 마음이 많이 거칠어져있기 때문에, 다시 수행이 도로 아미타불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석 위에 앉아서 하는 수행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도 끊임없이 제 수행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려는 마음챙김을 수시로 하는 거죠. 이는 탐진치가 없는 마음상태를 일컫습니다. 마음챙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자신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불성을 되새겨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실에서 강의를 하거나 오늘처럼 법회에 참석할 때 저의 역할은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불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불성의 자리를 맡아주는 표지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챙김을 하면서 그들 옆에 있다는 것은,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지닌 불성의 자리를 대신 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약간의 마음챙김만으로 우리 수행이 얼마나 쉬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행이지만 큰 결과를 만들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소박하지만 온전한 법 나눔이 이루어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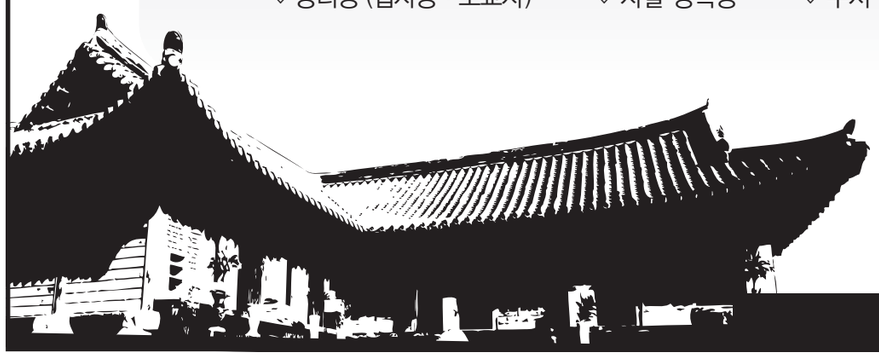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원각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 불기 2557년 하계 종도 연수 교육 및 포살 대법회에 동참하신 종도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8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불교 박사 대거 배출, 가을 학계 풍성

2013 후기 학위논문 살펴보니

가을을 맞아 불교박사들이 대거 배출됐다. 2013년도 종립대학에서 불교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은 동국대 5명, 중앙승가대 1명, 동방대학원대 1명, 원광대 1명 등 총 8명이다. 석사의 경우 동국대 12명, 금강대 2명, 위덕대 1명, 중앙승가대 2명 등이 배출됐다.

박사 논문의 경우 일반 교학이 대부분으로 원광대 김갑영 박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붓다의 설법시스템 연구' 등 비교종교와 응용불교 관련 논문도 각각 1편씩 제출됐다. 석사 논문에서는 동국대 혜교 스님의 '묘공대행의 주인공사상과 관법 연구', 중앙승가대 원경 스님의 '군포교 인력의 전문성 연구', 지성 스님의 '죽음 명상 경험의 질적 분석' 등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사논문을 살펴보면 동국대 박사 수경 스님은 '고봉화상선요 연구'를 통해 고봉 스님이 중국 선종사에 기여한 바와 스님의 법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수경 스님은 "임제종 제 18대 조사로서 고봉 스님이 조사선 정신을 계승했으며 중국 선종사에서 임제종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동국대 박사 여연 스님은 '아뢰야식의 교행적 전개 연구'에서 아뢰야식 사상의 전개를 이론적 연구방식과 함께 수행자로서 체험한 실천적 연구방식으로 새롭게 조명했다.

동국대 이석환 박사는 '공해의 교학사상 연구'를 통해 일본 밀교의 정립자인 공해(774~835) 스님의 생애와 저술을 분석했다. 이 박사는 논문에서 즉신성불의 원리와 십주심체계(十住心體系)를 중심으로 공해 스님의 진언밀교 교학과 종교사상을 규명했다. 또한 공해 스님이 밀교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이와 함께 즉신성불과 십주심체계를 통해 진언밀교 교학을 체계화하고 밀교의 수행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사 논문, 일반 교학 분야 대다수
석사 논문 응용불교, 비교종교 강세

동국대 윤영호 박사는 '설일체유부 극미설 연구'를 통해 인도불교 주류였던 설일체유부의 극미설(極微說)을 정리했다. 극미설은 인식의 대상이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설일체유부 인식론 중 인식의 최소단위를 설명한 것이다. 윤 박사는 극미설이 현대물리학과도 연관됨을 주목했다.

2013년 종립대학 후기 불교 주제 박사학위 논문

이름	논문 제목	대학
아연 스님	야뢰야식의 교행적 전개 연구	동국대
수경 스님	〈고봉화상선요〉 연구	동국대
이석환	공해의 교학사상 연구	동국대
윤영호	설일체유부 극미설 연구	동국대
천정권	보조 지눌과 존 웨슬리의 종교적 구제방법론 비교 연구	동국대
혜력 스님	도작의 〈안락집〉 연구	중앙승가대
남륜 스님	길장 찬 〈법화유의〉에 나타난 사상체계 연구	동방대학원대
김갑영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붓다의 설법시스템 연구	원광대

동국대 천정권 박사는 '보조지눌과 존 웨슬리의 종교적 구제방법론 비교 연구'를 통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1703~1791)의 성화론과 보조지눌 스님의 돈오점수론을 비교분석했다.

천 박사는 보조 지눌 스님은 돈오점수라는 점진적 깨달음을 수행방법으로 제시했고, 웨슬리는 개인적 성화를 사회적 성화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가르쳤다며 유사성을 지적했다.

중앙승가대 혜력 스님은 '도작의 안락집 연구'에서 도작 스님이 정토종의 대중화를 위해 어려운 성도문과 쉬운 정토문이라는 구분을 교판했으며 위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원광대 김갑영 박사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붓다의 설법시스템 연구'를 통해 설법이 다양한 용도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용됨을 주목했다. 김 박사는 이를 토대로 설법이란 매개체로 중생이 자유를 얻는 등 불국토를 이루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방대학원대 박사 남륜 스님은 '길장 찬 법화유의(法華遊意)에 나타난 사상체계 연구'를 통해 중국 삼론종의 개창 조사인 길장(549~622) 스님이 쓴 '법화유의'의 사상적 특징을 고찰했다.

남륜 스님은 길장 스님의 '법화유의'가 천태법화에 용해돼 고구려와 백제로 유입되고, 신라 원효 스님의 '법화종요' 성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규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재 외에도 태풍·지진에도 대비해야"

김덕문 학예연구관, 문화재청 안전관리방안 세미나에서 주장

"단기적 자연재해를 분석한 결과 화재보다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많았다. 목조문화재 뿐만 아니라 석조 등 다양한 문화재의 개별 관리가 가능한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덕문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9월 12일 문화재청이 개최한 문화재 안전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한국 위기 문화유산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김덕문 학예연구관은 이날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재해예방 기획연구 자료를 토대로 각 문화재별 개별 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재해예방 기획연구 자료에 따르면 목조문화재는 자연재해 발생 피해 447건 중 태풍, 홍수, 지진 등 단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94건 발생했으며 이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석조문화재는 자연재해 619건의 피해 중 태풍, 지진 등 단기적으로 199건 피해를 기록했는데 지반재해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풍이 37건에 달했다.

김 학예연구관은 "그동안 재해에 대한 위기 대응은 화재 위주로 진행됐으며 지진이나 태풍, 홍수에 대한 대응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지진은 근래 한국에서 눈에 띄는 피해 발생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지 않고 있으며 홍수와 태풍 또한 그 피해가 광범위해 문화재 피해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쌍계사 지진 당시 모습

김 학예연구관은 "1936년 지리산 쌍계사에서 발생한 진도 5.1의 지진은 대웅전 지반과 진감선사 대공탑비 균열이 생기고 석탑 상륜부 복발이 추락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최근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학예연구관은 "각 건물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며 재해 강도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조선 사천왕, 신라 사천왕과 방위 다르다"

직지사 사천왕상서 조선후기 방위 명시 묵서 발견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방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에서 출토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최근 직지사 요청으로 인한 사천왕상 및 천왕각 정밀학술조사 과정에서 천왕상의 머리 내부에서 '北方天王', '西方天王'이 적힌 종이와 천왕상 몸체 내부와 복장마개에서 '東', '東南'의 묵서를 발견했다고 9월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천왕상의 존명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천왕이 들고 있는 물건 즉 지물(持物)이었다. 사천왕상의 방위는 통일신라에 제작된 석굴암 사천왕상에 의거해 비파를 타는 천왕은 동방천왕, 검을 든 천왕은 남방천왕,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서방천왕, 탑을 든 천왕은 북방천왕으로 간주됐다.

최근 학계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사천왕상과 조선후기 사천왕상의 존명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찰에서도 사천왕상의 존명에 대해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직지사 소조사천왕상 조사에서는 각 방위를 기록한 자료들이 3구의 천왕상에서 출토됐다.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의 지물과 묵서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비파를 타는 천왕은 북방다문천왕(北方多聞天王)이며, 검을 쥔 천왕은 동방지국천왕(東方持國天王), 용과 여의주를 든 천왕은 남방증장천왕(南方增長天王), 탑을 든 천왕은 서방광목천왕(西方廣目天王)이다. 이는 조선후기 사천왕상이 통일신라 사천왕상과는 다른 도상과 방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된다. 직지사 소조사천왕상에서는 방위를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서방천왕상에서 강희4년(康熙四年; 1665년)에 작성한 조성기가 출토됐으며 '全羅道全州府東終南山松廣寺居僧人畵員來造成之也'와 '全羅全州松廣寺畵員乙巳年(1665)三月日塗作也' 등 묵서가 사천왕상 내부에서 발견됐다.


사천왕상 복장 묵서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금강대, 도쿄대와 공동 주최 세미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9월 25~26일 논산 금강대 사이버강의실에서 제2회 금강대 · 도쿄대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의 수용과 전개-불교와 타종교의 대화'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석궤론'에 나타난 구사론주 세친의 유가행파적 실재론(박창환/ 금강대) △신과 성전을 둘러싼 이종교간의 연합(이와사키 요이치/ 도쿄대학 대학원) △사본 파손 부분의 복원: 하리바드라의 '현관장엄론' 제1현관을 중심으로(이영진/ 금강대) △'하타프라디피카'의 운율구성(박영길/ 금강대) △법장의 이항대립적 사유의 연원을 찾아서(나카니시 토시히데/ 동대사 화엄학연구소) △일본에서 신과 불-중국 · 한반도와 차이(미노와 켄료/ 도쿄대학) △니치렌의 신기론(직리오/ 도다이지(東大寺) 박사과정) 등 논문이 발표된다. (041)731-3114

노덕현 기자

동방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 창간

동방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최근 〈불교문예연구〉 창간호를 펴냈다.

이번 창간호에는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의 '한국 선시의 특징'을 비롯해 △초의선사의 선다시와 마음치유의 시학(백원기) △백용성의 선시 연구(진관 스님) △'화엄금사자장'에 나타난 연기 사상(신규탁) △현대 한국불교의 조직과 그 특징(차차석) △일제 식민시대 한국선불교의 정통성 투쟁(로날드 그린, 성원 스님) 등의 논문이 실렸다. 불교문예연구소는 연 2회 〈불교문예연구〉를 펴낼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회연구소 사찰에너지 개선방안 세미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9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사찰에너지 사용 개선방안과 지열에너지 활용 검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류형규 박사(대림산업 기술개발원)의 '친환경 에너지로서 지열에너지의 현황', 박성구 삼미지오테크 대표이사의 '사찰 맞춤형 지열 냉난방 시스템-원리 및 경제성 검토' 등이 발표된다.

이어 청곡사 주지 정오 스님의 사찰 운영 사례와 김성실 LG전자 부장의 지열시스템 도입 사찰과 일반 사찰간 에너지 비용 분석이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한국민화학회, '민화와 불교문화' 학술대회

한국민화학회(회장 정병모)는 9월 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민화와 불교문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이 '민화의 성격과 불화와의 관계'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고승희 동국대 교수가 '조선후기 불교회화와 민화의 모란화 비교 연구'란 논문을 통해 민화와 불화에서 공통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란화를 비교 고찰했다.

또 조수연(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씨는 '고려후기 수월관음보살도와 조선후기 민화의 달 표현'에서 고려수월관음도와 조선후기 민화에 그려진 달토끼 그림을 분석했다. 수월관음도에는 민간설화인 달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다. 조수연 씨는 "이런 달토끼 표현은 이후 조선 후기 민화의 도상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제17차 월례발표회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9월 30일 까지 제17차 월례발표회 발표논문을 공모한다. 발표 주제는 불교교학, 불교사학, 불교음악, 불교미술 등으로 발표자격은 박사과정 이상으로 제한된다.

발표분량은 A4용지 8매 내외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연구원 게시판의 논문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모시 이력서 및 최근 2년간 연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특전으로는 소정의 발표비와 함께 선리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 가능하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화제의 신간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깨달음 세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반야지혜로 밝힌 금강경의 지혜세계
♣ 법인지(法印智)로 깨달음을 여는 길
♣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깨달음의 지혜 여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체
♣ 일각요의(一覺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금강 실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불지혜 최고최상의 깨달음,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떠한가?
♣ 무위실상 일성원융 본심과 본각과 본성의 세계



신국판 / 45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운 무위실상 불법과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의 실체와 본심, 본성, 본각의 일성원융 법계를 금강경요해 강의의 인연으로 누구나 깊은 불법대해를 이해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에 들도록 금강반야바라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수행 경계와 자증의 세계를 정성으로 세심히 살피어 깨달음과 불지혜를 향한 누구에게나 소중한 지혜의 가르침, 금강경요해 인연 공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상각 불지혜 청정한 믿음과 불법 실상과 청정본심을 깨달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누구나 빠짐없이 성취하시기를 바라옵고, 자성불을 원만히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염원하며 발원합니다. – 대구시 불국정토 세웅스님 –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한글 법화경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한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집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겁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중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거늘 ...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케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제불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송월스님옮김 / 신국변형판 / 584쪽 / 정가 2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참 불자"

월주 스님 미얀마 최고작위 수훈 기념법회 열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의 미얀마 최고 작위인 '사따마 조디까다자' 수훈을 기념하는 법회가 열렸다.

금산사(주지 원행)는 9월 8일 본말사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실 송월주 대종사 미얀마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수훈 기념법회' 를 봉행했다.

월주 스님은 지난 6월 불교계 국제개발구호NGO단체 지구촌공생회 이사장으로 10년 간 국제구호에 나선 공로로 미얀마 최고 작위인 '사따마 조디까다자' 를 받은 바 있다.

월주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미얀마 정부로부터 받은 사따마 조띠까다자 작위는 지구촌 공생회 1만여 후원자들과 기업 및 단체, 수많은 활동가들의 협력의 결실"이라며 "지구촌공생회 출범 10년을 맞아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지지를 보내준 모든 분들과 영예로움을 함께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이어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을 구현하고 앞으로 온 인류가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정진하자"며 "온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나와 같고 하나라는 세계일화(世界一花)와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을 구현하고 행복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는 불국정토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 이어 "지구촌공생회의 미얀마 구호활동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공생회 활동을 높게 평가해준 미얀마 대통령과 정부, 국민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가난과 병고, 무지로 인해 고통받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자비행을 통해 미얀마가 진정한 불국토가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여야 한다"며 "그것이 사따마 조띠까다자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고 설했다.

한편 미얀마 종교부에서 추대하고 미얀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사따마 조디까다자' 는 미얀마 종교부가 수여하는 최고 작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는 분' '성자' (聖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1993년 설립된 지구촌공생회는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네팔, 몽골 등 아시아 11개국과 아프리카 케냐, 아이티에서 식수지원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재난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008년 14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나르기스 태풍 피해 이후 재난복구를 위한 식량지원을 시작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화엄회, 화석죽회, 마하회 등의 후원으로 교육지원, 식수지원 사업에 약 10억 원을 투입해 8개의 학교와 12개의 생명의 물탱크를 건립한 바 있다.

월주 스님은 이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무궁화장, 조계종 포교대상, 사회포교분야 종정상, 민세상, 만해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금산사 500여 명 운집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지구촌공생회 국제구호 공로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사따마 조띠까다자'의 의미는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을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사찰로"

도심포교 방안 밝힌 인드라망도량 선덕사 주지 원묵 스님



"스님들에게 사람을 어루만지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업무가 사찰의 부동산,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집중이 되면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광주 선덕사 주지 원묵 스님(사진)이 9월 10일 선덕사를 도심 속 현대인들과 함께하는 도량으로 가꿀 것을 밝혔다.

광주 선덕사는 2011년 前주지 행법 스님이 실상사 도법 스님에게 사찰운영을 맡기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광주도량'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원묵스님은 "선덕사는 전통사찰이 아닌 포교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이 전개하는 선덕사의 새 포교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사찰고유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스님은 이를 위해 신도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도에 대한 포교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새 신도 교육인 걸음마학당, 어린이법회 및 일요법회 활성화, 대학생법회 구성 등 새로운 불교신자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두 번째는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마을 사랑방 '산수재', 대안교육에 대한 자료와 도서를 전시하는 '대안도서관' 등을 마련한다. '산수재'는 마을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사찰을 방문해서 차와 문화, 예술을 즐기는 공간이다. 대안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한 책과 놀이공간이다.

스님은 이를 위해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선덕사를 분야별로 나누었다. 1층은 마을주민들과 공유하는 공간, 2층은 대중들의 주거와 강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대웅전이 있는 3층은 불교의 기도와 법회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1층의 마을주민들과의 공유공간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동네밴드', 영화제작소, 청년노래단, 귀농학교, 도시농부학교, 생협이 중요내용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시공간에서 실천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도시민들을 위한 문화사업 외에도 도시농부학교와 생협, 귀농학교 등 대안적 삶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도시농부학교는 좋은 먹거리를 찾는 일이다. 아파트 베란다와 주변의 텃밭에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스님의 새로운 사찰은 '우리절 우리마을, 동네절'이 되는 것. 스님은 "'절 따로 마을 따로' 라는 생각은 잘못된 출발"이라며 "지역민들 함께하는 사찰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명상 통한 성찰로 이웃 고통 함께 풀어요"



제1회 호남종교인 영성문화제에는 500여 대중이 모여 5대 종교의 전통을 함께 느꼈다.

9월 8일, 5대 종교 영성문화제

호남지역 5대 종교인들이 한테 모여 사회 갈등 치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호남지역 5대 종교계는 9월 8일 보성 대원사(주지 정륜) 특설무대에서 '제1회 호남종교인 영성문화제' 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5대 종교 성직자들은 "자기 종교에는 확신을 갖고 이웃 종교에는 배움과 동지애를 느끼며,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종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이웃의 고통과 세상의 문제를 풀어 가야할 때"라며 뜻을 모은 취지를 알렸다.

이날 공연은 이웃 종교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5개 종교단체별 각 2개팀들이 공연을 펼쳤다.

제1부 영성문화마당의 첫 무대는 송지은 원불교 교무의 사회 아래 천도교의 천명공연(일포 선도사 외 3인)이 진행됐다. 이어 개신교 단체의 시낭송(김희용 목사), 중창(고백교회 남성 중창단), 합창(수목회 목사들과 교우)이 진행됐다.

세 번째 무대로는 불교 청심행 보살이 보살춤을 선보였다. 오랜 기간 호남 지역에서 불교의 독특한 춤을 선보인 무용가 청심행 보살은 이날 대승보살이 인간 속에 화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춤을 선사했다. 이어 한국의 전통무예인 수벽치기가 선보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근세 5대 명창 중 한명인 정정열 기념 공연



익산시립풍물단의 국악공연에 이어 힙합 음악 등이 진행돼 세대간 화합을 노래했다.

9월 7일, 익산 심곡사 산사음악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산사에서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익산 심곡사(주지 화평)는 9월 7일 심곡사 떡목공연장에서 근세 5대 명창 중의 한명인 정정열 명창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 '가을이 오는 소리-힙합에서 판소리까지' 를 마련했다.

개그맨 박범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산사음악회에서는 예사랑무용단과 조은사람 통기타 동호회의 식전공연에 이어 익산시립풍물단의 국악공연, 임화영 명창의 남도창, 모보경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가 무대에 올려졌다.

이어 인기 혼성뚜엣 '한마음' 의 양하영이 출연해 히트곡인 '갯바위' 와 '가슴앓이' 등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포크송을 불러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힙합그룹 '왓썬더 뷰리풀' 의 공연은 젊은 관객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했다. 'DJ Show' 는 추억의 팝송과 포크송을 DJ 특유의 억양과 멘트로 소개해 중장년층의 관객들에게 옛 음악다방의 향수와 추억을 선사했다.

화평 스님은 "떡목공연장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세대간 통합을 위해 판소리와 한국무용, 통기타 음악과 힙합음악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로 꾸몄다"며 "산사의 정취와 분위기에 취해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어울림 대축제

고된 노동과 외로움 속에서 타국살이를 하는 외국인 불자들의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9월 8일 광주 하남체육공원에서 외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를 펼쳤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네팔, 중국 등 5개국 노동자와 관련 불교단체들이 참여했다. 체육대회에서는 구기 종목, 레크레이션, 장기 자랑 등 화합의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종립 정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송원대학교 및 불교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올해 4년째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팔인 무드라(31)씨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줘 감사하다. 오랜만에 네팔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운동을 해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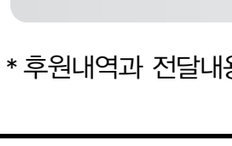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시한부 환자 위한 자비의 공간

정토마을자재병원 예비 개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이들의 희망이 되고 싶은 염원 하나로 시작 된 3년 6개월의 병원 불사는 결코 녹록지 않은 여정이었고 고행이었습니다. 길이 끊어진 듯, 고립된 섬이 된 듯, 칠흑같은 수미산을 넘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처님을 향한 기도와 대중들의 작은 소망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등불들이 모여 지금의 자재병원이 들어섰습니다. 병원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부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토마을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은 병원 설립의 기쁨을 이렇게 얘기한다. 올 8월 불교계 최초 완화의료 전문병원 '정토마을자재병원' 이 울산에 문을 열었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883.20m2의 규모로 총 108병상을 갖추고 예비개원을 한 자재병원은 1병동은 암과 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2병동은 재활과 회복을 위한 병동, 3병동은 스님들을 위한 치료와 요양을 위한 승가병동이다.

자재병원은 양방과 한방의 협진 및 대체의학을 접목한 맞춤치료가 가능한 통합의학센터로 운영된다. 스키오치료(몸 · 마음 · 에너지를 합친 포괄 치료),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명상심리치유와 상담심리치유, 식이치료, 요가, 춤테라피, 숲의 음이온과 피톤치드를 통한 숲길 치료,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병실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여기에 예불과 음악치료를 위한 방송시설에까지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심신



8월 16일 정식으로 환자를 받게 된 자재병원 로비에서 능행스님이 환자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과 자재병원 전경.

양한방 통합한 통합의학센터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 전하고자

치유프로그램과 장운동마사지기, 온열치료기, 수치료기, 전신안마기, 초음파기, 수소수발생기, 찜질방 등의 첨단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자재병원의 예비개원소식을 듣고 도착한 병원은 수목 조경공사가 한창이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불자들의 정성의 힘이 느껴지는 병원의 외관에는 불교기가 조형감 있게 건물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단아한 선방인 듯 아담한 호텔인 듯, 단아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지는 인테리어는 거부감보다 집과 법당처럼 아늑함과 편안함이 가득했다. 입구에서 만난 능행 스님은 휠체어에 앉은 환자 한 분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능행 스님은 "아직 가야할 행보가 멉니다. 쓰나미처럼 굽어치는 생로병사의 기로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이 병원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남은 불사를 회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계에 바람이 있다면 "석남사, 운문사, 통도사가 10분 거리에 있는데, 성지 순례를 오게 된다면, 꼭 이 곳에 들러 살아 있는 부처님의 도량인 자재병원에서 이 시대 불교의 새로운 자각과 깨침을 함께 나누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칠흑 속에 핀 연꽃, 한국불교의 희망이 여기에 머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시설 보완이 필요한 자재병원은 내년 4월 정식 개원식을 갖는다.

울산=박경수 부산지사장

지역주민 · 불자 위한 불서포교 펼치고자

혜원정사 제 11호 '부처님글사랑 사찰도서관' 선정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스님) 사찰 도서관이 제 11호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 으로 선정됐다. 혜원정사는 9월 12일 '불서 기증식 및 현판 제막식' 을 갖고 조계종 문화부와 백천문화재단으로부터 1000권의 불서를 기증받았다.

조계종 문화부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조계종 문화국장 수진 스님, 백천문화재단 박찬일 부장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함께 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미 10여 년간 도서관을 운영하며 꾸준히 불서포교를 실천해 온 혜원정사가 이번 불서 기증을 통해 지역주민과 불자들이 불교도서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롤모델이 되어주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백천문화재단과 종단의 관심으로 1000여권의 불서를 기증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도서관 운영으로 불서포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혜원정사는 9월 12일 '불서 기증식 및 현판 제막식' 을 갖고 조계종 문화부와 백천문화재단으로부터 1000권의 불서를 기증받았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월산 대종사 16주기 추모다례식

9월 9일 불국사서 봉행

조계종 제 11교구본사 불국사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16주기 추모 다례식을 9월 9일 경내에서 봉행했다.



월산 대종사 추모 다례식 장면

이날 다례식에는 문도 운영위원장 설조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최양식 경주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월산 스님의 수행정신을 기렸다. 문도대표 성타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받들어 수행자의 사명으로 삼아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월산 대종사는 법주사, 불국사, 대승사 조실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종단발전과 정화불사에 헌신했으며 1993년 9월에 입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신행활동의 모범 되어주길"

대관음사 임원수련회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임원진들이 수련회를 갖고 불교포교 원력을 다졌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9월 7일 옥불보전 4층 대법당에서 수련회를 갖고 사경, 108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쳤다.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임원수련회

현재 1000일 무문관 청정결사 수행 중인 회주 우학 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100%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100% 원을 성취할 수 있다"며 "임원진들이 한국불교대학의 제불 보살과 호법신장님의 역할을 하면서 신행활동에도 신도들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거듭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임원진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도심사찰 자연성 확보 높이자

이번 동국대학교에서 인준된 석사학위 논문 가운데에서 '현대도심사찰의 자연성 연구' 라는 논문이 눈에 띈다. 한마디로 도심에 지어진 사찰의 자연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한 논문이다. 그 논문의 필자는 환경부에서 환경계획지표로 적용하고 있는 생태면적률을 평가도구로 사용하여 서울과 부산도심의 7개 사찰이 어느 정도의 생태면적률을 보이고 있는가를 산정하여 대상사찰의 자연성을 평가해냈다.

생태면적률을 결정하는 인자로는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포장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인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생태면적률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자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분석결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사찰 모두 자연성이 떨어진다는 답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현대도심사찰에서는 앞에서 말한 생태면적률을 결정짓는 인자들의 도입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도심지에서 사찰을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엄청난 일이다. 그런 까닭에 토지이용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최대로 확보할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남은 땅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쓰거나 생산적 용도에 할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면적률을 높이기 위해 나무와 물을 도입하고 옥상이나 지하주차장 상부와 같은 인공지반 또는 벽면에 녹화를 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찰이 더 이상 사적인 종교공간으로만 기능할 수 없는 현대적 정서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 불교의 가치를 일깨우고 그들을 부처님 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심사찰이 대중들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면 사찰에 자연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도심사찰에서 자연성을 높여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찰은 예전처럼 종교기능만을 담는 공간으로 존재해서도 안 되고, 불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사적인 공간이 되어서도 안 된다. 현대도심에서 부족한 자연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들이 이러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찰을 개방하는 것도 현대사찰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도심사찰에서 자연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현대사찰의 중요한 덕목으로 포교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ㅅ사찰

2014 삼보불교카렌다 특별가 보급 (기간 : 9.5 ~ 10.31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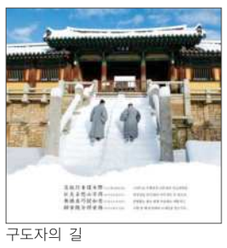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카렌다들을 특별가로 보급합니다.


관세음보살도(한지카렌다)


지혜동자


연꽃향기


법음이 깃든 산사


구도자의 길


산사와 주련


반야심경


운봉스님의 달마도


심우도


산사에 피는 야생화


민족의 산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8대 성지순례)


산사의 미(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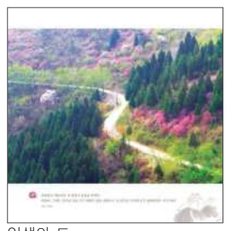

보현스님의 동승이야기


천진동자 1월


천진동자 2월


천진동자 3월


천진동자 4월


인생의 도


생활한방차


불보살님의 미소


풍경소리


한국의 보탑


천진동자 1월


천진동자 5월


천진동자 7월


천진동자 8월

천진동자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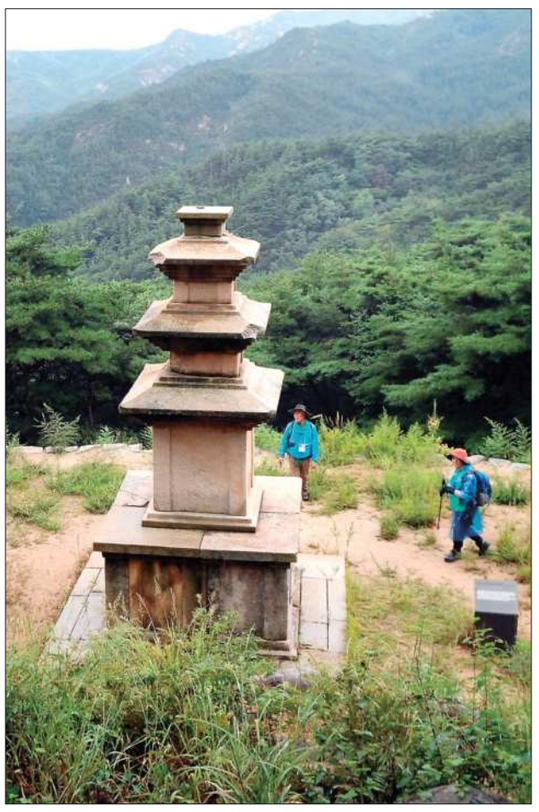
천진동자 11월

천진동자 12월

삼보불교달력 전국 지역 가맹점

서울. 다보사 02-816-0600, 불심원 02-725-0250, 성불사 02-735-3543, 정릉만물 02-941-4247 경기. 동두천 명성불교사 031-862-2792, 수원 종로불교사 031-254-1080, 안양 관음불교사 031-444-9689 대전. 불교전시관 042-256-4127
전남. 구례 문화불교사 061-783-2627, 순천 영태불교사 061-753-4304, 해남 불교용품 061-532-8604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영태불교 062-269-2584 부산. 반야불교용품점 051-751-7720


지암곡 제3사지에서 신라문화원 남산 불적 답사 회원들이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남산의 계곡 사이에는 수많은 절과 석탑들이 산재돼 있다.



답사에 참가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흩어진 탑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 회원들.

세월에 스러진 석탑에 숨결을 불어넣다

남산의 자연과 복원탑을 찾아서

현재 경주 남산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석탑은 총 99기이다. 천년의 세월을 온건히 버텨낸 것도 있지만 이중에는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져 유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도 적지 않다.

2000년대 초반 경주 남산의 가치가 조명되면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석탑의 복원작업들이 진행돼 이제는 제 모습을 찾은 석탑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의 10월 경주 남산 불적 답사는 이런 복원 석탑을 찾아보는 데에서 시작됐다.

복원돼 다시 세워진 탑들

경주 남산의 순환도로를 따라서 국사곡 입구에서 약 440m 정도 올라가면 약간 큰 계곡이 있는데 이곳이 지암곡 입구이다. 지암곡의 큰 지바위와 작은 지바위가 모두 땅에서 솟았다는 것으로 전해지므로, 지암곡은 땅에서 솟은 바위가 있는 계곡을 말한다. 이 같은 계곡 사이 사이에는 옛 절터를 찾아볼 수 있다.

지암곡에서는 제2사지와 제3사지의 석탑이 복원을 통해 제 모습을 찾았다. 제2사지의 경우 건물지 축대는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그 위에 남동향한 건물지 석열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의 석탑은 2003년 복원이 완료됐는데, 이에 앞서 2000년 1월 17일부터 2000년 3월 20일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됐다. 복원은 했지만 탑신석의 경우 모두 유실됐다. 옛 사진을 통해 그 규모와 형태를 짐작할 뿐이다.

통칭 '큰 지바위절터' 라고 불리는 제3사지의 석탑도 2003년 복원됐다. 그나마 잔존상태가 양호해 거의 완벽히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탑신받침은 1매의 석재를 납작하게 다듬어 제작했고, 상부에 1단의 받침을 뒀다. 해발 310m 내외의 평탄면에는 자연암석이 3등분이 된 채로 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자연암반을 지대석으로 삼아 탑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지암곡 제3사지 3층석탑 주변에서는 발굴조사 당시 다수의 유물이 출토됐다. 발굴 유물로는 암 · 수키와편, 연화문수막새, 당초문암막새, '용장사 명' 명문 와편 등이다. 이중 남산 서쪽에 위치한 용장계 탑상곡 제1사지(용장사지)에서 사용된 명문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두 사찰의 연관성을 알 수 있게 한다.

지암곡의 지바위는 불교와 토착신앙과의 공존의 장소이기도 하다. 제1사지에 있는 작은지바위의 경우 들려진 바위 밑의 공간을 기도처로 사용한 흔적들이 있다. 실제 바위 입구 서쪽에 위치한 둥근 바위 면에는 '아이팔기' 의 흔적으로 보이는 남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아이팔기' 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바위에 자식을 팔아서 그 아이가 바위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했다. 대체로 아이가 귀한 집이거나, 아이가 태어났어도 수명이 길지 못하다는 점괘가 나올 경우 아이팔기를 한 후 어머니가 일 년에 한 번씩 아이를 판 바위에서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신라의 삼기 · 팔괴 · 삼보

지암곡을 나와 국사곡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사곡은 세 갈래의 지류로 나눠지며, 가장 큰 지류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경주팔괴(慶州八怪)의 하나로 손꼽히는 남산부석이 우뚝 솟아 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 고깔바위가, 서쪽으로 상사암이 있다. 이 주변으로 기암괴석이 둘러싸고 있어 남산의 만물상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사곡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남산부석이다. 굴바위 남쪽 계곡 정상부에는 남산의 기괴한 바위중 하나로 아슬아슬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

2000년대 초반 발굴 사업 후
남산 석탑 복원 작업도 진행
지암곡 · 국사곡 석탑 제 모습
사리장치 3층 위로 간 이유는
"'불설조탑경' 영향에 따른 것"

부석(浮石)이라고 불리워진다. 높이는 10m에 이르며 한 바위 면에는 근세마애불을 조각돼 있다.

마애불은 결가부좌한 자세로 수인은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갸름하게 표현돼 있으며 법의와 광배는 표현돼 있지 않다.

첨언을 하자면 신라에는 삼기(三奇)와 팔괴(八怪), 삼보(三寶)가 있었다고 한다. 삼기는 시조 혁거세가 천신으로 얻은 금척(金尺, 금으로 된 자로 병든 사람을 이 자로 재면 쾌유한다고 한다)과 문무왕, 김유신의 혼령이 보냈다고 하는 만파식적(萬波息笛),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 에밀레종)를 말한다.

팔괴는 △문천도사(蚊川倒沙, 깨끗한 남천) △안압부평(雁鴨浮萍, 안압지의 수생식물 '말밤')△백률송순(栢栗松筍, 백률사의 소나무) △금장낙안(金莊落雁, 금장대에 쉬어가는 기러기) △불국영지(佛國影池, 불국사 다보탑이 비치는 연못) △선도효색(仙桃曉色, 선도산의 아침노을) △금오만하(金鰲晩霞, 남산 금오봉의 저녁노을) 등이다.

삼보는 황룡사 구층탑(九層塔), 황룡사 장육존상(丈六尊像), 진평왕의 천사옥대(天賜玉帶)를 말한다.

국사곡에도 적지 않는 사지가 존재한다. 그 중 제4사지에는 복원된 탑이 있는 곳 중 하나로 2002년 복원이 완료됐다. 2000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석탑 복원 계획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결실된 탱주석과 탑구석, 노반석, 탑신받침석 외에는 부재가 양호하게 남아 있어 복원 결과도 양호했다.

지대석 북편에서 매납유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의 양이부호가 출토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군위 인각사 삼층석탑 주변에서 확인된 대웅과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출토유물을 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구지표 정지층에서는 석등 화사석편, 광배편, 보륜편 등이 출토됐다.

신라 석탑의 변화 이유는?

이날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은 통일신라의 석탑 조성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감은사 이전에 세워진 탑들은 대부분 목탑에 부처님의 사리도 아래에 모실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682년(신문왕 2)에 세워진 감은사 이후에는 삼층석탑으로 정형화됐다. 사리공이 탑의 상층부로 올라간 것도 이 시기부터다.

"〈불설조탑공덕경〉의 번역 시기가 680년입니다. 감은사가 건립된 것은 682년으로 시기적으로도 〈불설조탑공덕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경전에 따르면 '탑이 없어서 능히 그 가운데 세우려는 이는 그 형상이 높고 묘해 삼계(三界)를 지나게 하거나 내지 지극히 작게는 암라과(菴羅果)와 같게 하라' 고 설했습니다. 여기서 '삼계' 에 대한 표현을 위해 신라인들은 삼층의 석탑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7세기 후반에 조성된 전형적인 신라 3층 석탑의 시원을 이루는 탑들은 〈조탑공덕경〉을 소의경전으로 해 조성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경주 남산의 불교 문화재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강인숙 시인은 복원된 국사곡 3층석탑을 보고 "모진 세월에 이름 없는 석공들의 숨결이 흐르던 탑에서 2500년 전 열반에 드신 그 분을 생각한다"고 노래했다. 석탑 아래로 흐르는 가을비가 오탁악세의 찌든 번뇌를 씻어주는 듯 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10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낭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 일시 : 10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재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수강신청 : 10월 8일까지 (서류접수 10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개 강 : 2013년 10월 16일 (각 지역 별도 개강)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미얀마 불교 이야기

11. 제6차 결집

세계불교계 미얀마에서 불법을 합송하다

우누 정부 체제에서의 치적 중 하나는 제6차 결집(The Sixth Great Council)이다. 제6차 결집은 미얀마 뿐만이 아니라 세계 불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전의 불교 삼장의 결집이 인도나 스리랑카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제6차 결집은 미얀마를 중심으로 세계불교권이 참여한 대불사(大佛事)이기 때문이다. 이 결집의 성과는 미얀마를 넘어 현재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집(結集)의 어원 'Saṁgīti'는 '노래하다', '합창하다'란 의미다. 한역 과정에서 결집 이외에 합송(合誦), 집법(集法), 등송(等通) 등으로 옮겨졌다. 결집은 경전 편찬회의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을 종합하고 교정하는 편집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확인된 불설은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창하는 공인의 절차를 말한다.

즉, 불교 교단 내에서 공식적인 회합을 통해 당시에 유통되었던 불설(佛說)을 만장일치로 승인하는 합법적인 정전화(正典化) 절차나 형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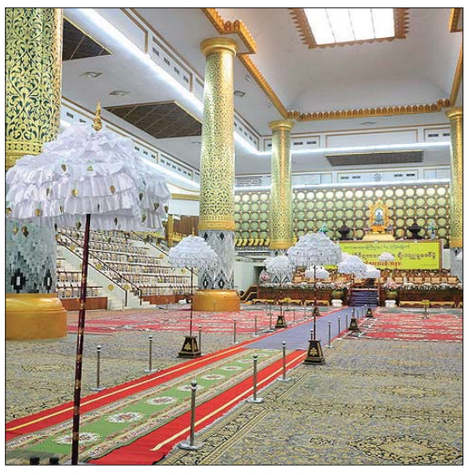
먼저 미얀마의 제6차 결집의 이해를 위해 불교경전의 결집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인도불교사에 있어 불멸(佛滅) 후 네 차례에 걸친 석가모니 붓다의 말씀에 대한 편집 또는 편찬회의가 있었다.


제6차 결집이 진행된 마하빠사나 동굴


제6차 결집 당시 여러 국가 스님들이 함께 합송하는 모습(좌)과 합송 이후 모아진 내용을 공인하는 모습(우).




마하빠사나 동굴 앞에서 세계학자들과 찍은 기념사진


마하빠사나 동굴의 실내모습(현재, 좌)과 제6차 결집 당시 2500여 비구와 재가불자들이 실내를 가득 메운 모습(우).



1954년부터 1956년까지 2년간 진행
반열반 2500년 맞아 2500명 운집
인도·네팔·베트남·일본 스님들 참여
30여 개국 재가자 동참·25개국 지원

2005년 6차 결집 결과물 로마자화 등
미얀마·스리랑카·태국·몽골어로 번역
2007년 40권 문헌으로 정리해 전세계 배포
전세계 불교계에 중요 근간으로 영향

이 가운데 상좌불교(Theravāda)의 빠알리(Pali) 전승문헌에서는 세 차례 결집이 나타난다. 불멸 후 처음으로 라자가하(Rājagaha)에서 500아라한에 의한 제1차 결집, 불멸 100년 후 웨살리(Vāsalī)에서 계율상의 문제가 쟁점이 된 제2차 결집, 이후 모리야[Sk.Maurya] 왕조의 아소까 왕 때 적주비구(賊住比丘) 축출이라는 교단 정화적 차원의 제3차 결집이 그것이다. 여기까지는 빠알리(Pali) 전승의 문헌에서 전하는 세 차례의 결집이다.

여기에 빠알리 전승이 아닌 한역된 산스끄리뜨 계통의 다른 불교부파의 문헌에서는 쿠샤나왕조의 카니시까왕 때 교법의 해석상의 이견(異見)을 정리할 목적으로 열린 제4차 결집도 있다. 하지만 상좌불교 전통에서는 카니시까왕 때의 제4차 결집을 수용하지 않는다. 대신 제4차 결집은 불멸 후 약 450년이나 500이 지난 후 스리랑카의 알루비하르(Aluvihara) 사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본다.

제1결집이 아자따삿뜨루(Ajatasatru) 왕이 지원하여 3개월 동안 칠엽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이루어졌고, 제2결집은 8개월간 깔라아소까(Kalāsoka) 왕이 지원하여 베살리(Vesāli)에서 700명이 모여 이루어졌다. 제3결집은 아소카(Asoka)왕의 지원으로 계원사(鷄園寺)에서 9개월 동안 1,000명이 참여하여 결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의 제4결집은 카니시카왕의 지원으로 캐쉬미르의 환림사(環林寺)에서 500명의 참여인원이 나타난다. 모두 대승경전이 아닌 초기불교경전의 결집이다. 스리랑카의 알루비하르에서 개최된 제4결집은 왓따가마니(Vaṭṭagāmaṇī) 왕 때에 500명이 7년 동안에 걸쳐 불교결집의 역사상 처음으로 문자로 결집하였다고 한다. 이 때 글자를 새긴 것은 야자나무 잎을 제조하여 만든 것이다. 산스끄리뜨로 뺏뜨라(pattra)로 한역 음역은 패다라(貝多羅)이고 이후 패엽경(貝葉經)이라 하였다.

계속해서 상좌불교의 결집은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로 이동한다. 이전 호에서 언급하였던 미얀마의 따웅우 왕조 시대의 제5차 결집이 그것이다. 제5차 결집은 민돈 왕의 주최로 1868년에서 1871년까지 약 3년 동안 만달레이에서 2,400명의 학승에 의해 이루어졌다. 패엽경이 필사해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자나 탈자 등을 교정하기 위해 참여자의 합송(合誦)만도 무려 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교정된 삼장을 총 729매의 대리석에 4년이나 걸려 새긴 것이다. 이러한 대리석 석경이 지난 6월 2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음을 국내에서는 최근 〈현대불교신문〉이 발 빠르게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이 결집의 결과인 삼장은 '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책(largest book in the world)'으로 알려졌다.

다시 미얀마에서는 제6차 결집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1954년에서 1956년에 걸쳐 우누 수상의 발의에 의해 2,500명의 대덕스님들이 참여하여 약 2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미얀마 정부 기관인 종교성(宗教省: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등의 자료에 의하면 제6차 결집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독립 후 미얀마 정부는 1950년에 정부 기관으로 종교성(宗教省: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을 설립한다. 다시 1951년에는 '미얀마 연방 불교평의회(Union of Burma Buddha Sasana Council)'를 설치하여 헌법에 기초한 불교진흥책을 실현하려 하였다. 이 결집은 '찻타 상가야나(Chaṭṭha Saṅgāyana)'로 CD-ROM으로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 먼저 개최시기에 있어 미얀마 역 1316년, 불기 2498년 (서력 1954년)의 부처님 오신 달에 시작하였다. 이 결집은 1954년 부처님 오신날을 시작으로 1956년 부처님 오신 날까지 약 2년이 소요되었다. 정확히는 서력 1954년5월 17일에서 1956년 5월 24일의 기간이다. 1956년 5월 24일은 상좌불교 전통의 계산법에 의하면 부처님 반열반의 2,500주년이다. 이러한 2년은 부처님의 반열반 2,500주년이라는 1956년에 맞추어 완결하였다. 제6결집은 1871년에 제5결집이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민돈왕에 의해 개최된 후 83년 후에 다시 열린 것이다.

장소는 'Kaba Aye' 파고다가 있는 양곤의 마하빠사나 동굴(Mahapasana Great Cave)이다. 이 동굴은 인도에서의 제1결집이 칠엽굴에서 열린 것을 본 따 인위적으로 조성한 동굴로서 약 10,000명의 좌석이 설치되었다. 이 결집은 우 누 수상의 미얀마 정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우 누 수상은 Kaba Aye 파고다와 제6차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하빠사나 동굴을 건립하도록 하였다.

개최목적은 미얀마가 약 100년 간 영국의 지배 아래 있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불교가 쇠퇴하였기에 불교를 진흥하고 정화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전의 불교결집 전통에서처럼 제6차 결집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상좌전통에서 이해되는 수행법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약 2년 이상의 결집 기간 동안 각국의 스님들은 자국에 전승하는 빠알리 경전과 주석서 등을 독송하였다. 그러한 결과 새로운 교정본을 종합하여 각각의 문자로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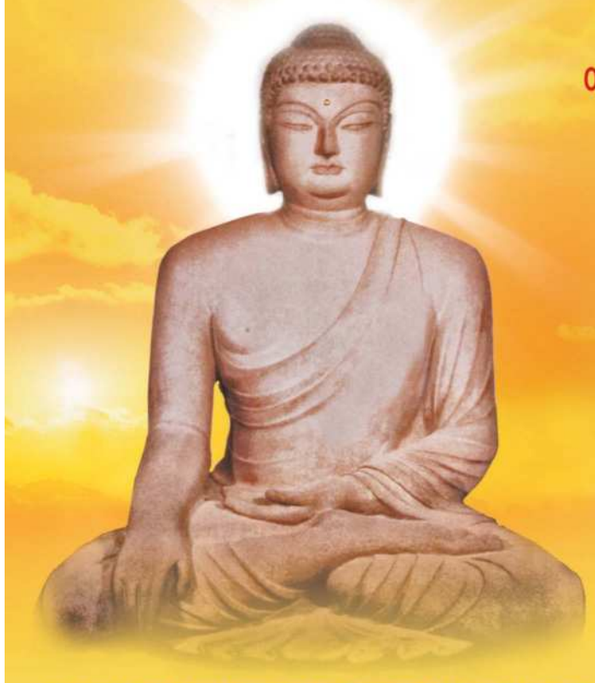
참여인원은 5대 주요 상좌불교권에서 2,500명의 장로비구들이 선출되었다. 이 숫자는 부처님의 반열반 2,500주년이라는 숫자와 맞춘 것이다. 83년 전의 제5차 결집은 2,400주년에 맞추어 약 2,400명이 결집에 참여했다.

제6차 결집에는 인도와 네팔 그리고 베트남 스님들도 참석하였다. 일본의 한 절은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서구 출신은 독일 출생으로 스리랑카에 머물렀던 'Nyanatiloka'와 'Nyanaponika' 두 장로 스님이 참여했다. 이 결집의 의장은 'Nyaung Yan' 스님(Sayadaw)과 'Revata' (Abhidhajama-haratthaguru) 스님이 맡았다. 'Mahasi' 스님과 'Sobhana' (Aggamahapandita)스님과 'Mingun' 스님과 'Vicittasarabhivamsa' (Tipitakadhara Dhamma-bhandhagarika)은 결집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Mahasi' 스님은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센터로도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으며 'Mingun' 스님은 〈부처님 생애〉(The Great Chronicle of Buddhas)를 번역 출간해 현재 우리나라에도 알려졌다. 'Mingun' 스님의 〈부처님 생애〉는 총 5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전 세계에 법보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봉수 박사에 의해 번역·출간되었다. 결집 때에 미얀마, 스리랑카, 타일랜드,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상좌불교 나라로부터의 참여자들에 의한 교리문답과 함께 진행되었다. 주로 마하시 스님이 법에 대해 질문하면 'Bhadanta Vicittasarabhivamsa' 스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30여 개국 이상의 나라로부터 온 재가자가 함께하고 25개국의 다른 나라 또한 이 결집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결집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인 빠알리 경전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석서와 복주(復註) 등도 재점검하였다.

1999년부터 태국의 불법지원기금회(the Dhamma Society Fund)는 1958년 제6차 결집본의 편집과 인쇄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오류들을 교정한 개정판을 내고 있다. 그리고 2005년에 40권의 빠알리 삼장을 로마자화하였는데 이를 세계삼장본(The World Tipitaka Edition)이라 이름 붙였다. 다시 2007년 40권의 '삼장학 참고문헌(Tipitaka Studies Reference)'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삼장학 참고문헌은 태국 황실의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에 법보시되고 있다.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인도의 고엔까는 1990년 위빠사나 연구센터(Vipassana Research Institute)에서 또한 제6차 결집 내용을 인도문자(Devanagari)로 출간해 널리 보급하여왔다. 다시 고엔까의 위빠사나 연구센터는 이를 '찻타 상가야나'라는 이름으로 삼장과 삼장의 부속 문헌의 CD로 제작해 전 세계에 법보시하고 있다. 여기서 인도문자는 물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몽골 그리고 로마자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광명 만덕·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오자 없는 완벽한 칠판 강의… 감탄사 밖에 안나와

〈誤字〉



方山老의 無影樹 〈30〉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김동건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등 역임, 현재 불교포럼 대표,
탄허재단 이사,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

1980년 어지럽던 비상계엄하에서도
나라 운영에 대한 소신 당당히 밝혀
1960년대 대학생들에게 민족의식 강의
저서 〈부처님이 계신다면〉베스트셀러
"도를 도라고 부르는 순간 도가 아니다"
박정희 前대통령도 스님 유묵에 감동

-변호사님은 불교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탄허 스님과도 인연이 많지요. 혹시 법불회 회원이었는가요?

저는 서울법대를 1965년도에 들어가서 1학년 시절에 탄허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한두 번인가 들었습니다만, 서울법대 불교학생들의 모임인 법불회에 정식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탄허 스님이 서울대에 오시면 허연 모자를 항상 쓰시고 다녀가는 모습을 본 기억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금강경의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1학년 때에는 법학 분야 이외에도 관심이 있어 이기영 박사의 〈원효 사상 연구〉라는 책을 읽어 보았어요. 그때 이박사가 그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갖고, 언론 출판계에 좋은 반응으로 보도가 되고 무슨 상을 타고 그랬어요. 이런 경험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기영의 저술을 읽기 시작했지요. 또 인문대에 가서 이용희 교수의 국제외교사 강의도 듣는 등 법학 주변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무렵 탄허 스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요?

그때에 스님은 예언자적인 그런 것으로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 발전 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에서는 스님 말씀에 반신반의(半信半疑) 한 적도 있어요. 대원암에서 강의를 마치시면, 강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갖고 차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간 적도 있지만, 그런 차담 시간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님 말씀을 듣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학하리의 스님 유묵이 도난당했을 때 변호사님이 해결하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학하리에 있던 어떤 젊은 스님이 스님의 책, 유묵 등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스님을 찾아뵈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스님은 누가 가졌는지 짐작은 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전지법에 있을 때인데, 당시 대전검찰청의 1호 검사인 김종빈 검사에게 그 해결을 부탁했어요. 김종빈은 고대 출신으로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이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저와는 평소에 불교를 소재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하게 지냈고, 대전에 사는 아파트도 우리집 부근에 있어서 부탁했지요. 그랬더니 그 분이 유능한 형사 둘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때 그 형사들이 밴의 일종인 차를 타고 일을 하였는데, 어느 사찰에 탁! 가서 도둑을 잡아 와서, 해결을 하였지요.

-저도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탄허 스님과 인연이 있다는 것을 봉은사의 일요법회보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그 후에 검찰총장까지 올라갔고, 최근에는 봉은사 신도회장도 지냈어요. 그 분은 영월 법흥사에 자주 출입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였는데 아마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을 거예요. 요즈음에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법흥사에 가서 기도를 하였지요. 사실 저는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였죠. 저는 제 아버지의 생신날이 되면 가족, 친지들을 대전으로 불러 하루는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자광사로 가서 하루를 쉬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상원사에 가서 하루를 지내기도 했고, 법흥사에 가서 하루 자고 그곳에서 생신 공양을 내기도 했어요.

-탄허 스님은 민족의식, 정치의식이 강하셨다고 보지 않는가요?

그렇지요. 1980년 초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등 세상이 어지럽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던 그때에도 스님은 가장 당당하게 겁을 안 내시고, 과감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나갈 방향을 소신껏 말씀하시고, 군인들이 스님을 친견하고 여러 가지를 물으면 그때에도 당신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스님의 부친이 보천교라는 종교 단체에 관여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연고로 어린 시절부터 국가의식, 민족의식을 갖고 계셨다고 보입니다. 민족지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 시절에는 일제의 탄압을 받아서 그런지 산에 들어가서 소승적으로 도(道)만 닦았던 스님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탄허 스님의 부친은 그런 공로가 인정되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탄허 스님이 1960년대 중반에 오대산에서 나와 서울 도회지에서 법대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으신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스님은 50대 초반이었고, 재력도 별로 없을 때였는데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을 하신 것은 탁월했다고 봐요. 그렇게 스님이 나서자 법불회 1기생들이 스님에게 빠져버린 것이지요. 스님께서 승려로서 쉽고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도회지에 돈 많은 만만한 신도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 대학생들에게 민족, 미래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신 것은 대단한 용기이시지요. 선각자적인 기질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당시 스님이 법불회 학생들과 친할 때, 법불회는 10년간은 잘 되었습니다. 저는 정식 회원이 아니었고 졸업한 후에 법불회 출신 선배님들과 함께 탄허 스님을 따라다녔지만 법불회 그 팀들의 공부는 대단했어요. 우리들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유명하신 탄허 스님을 가까이 뵈었지만, 저기 부산에 있는 백봉 김기추 거사가 계신 곳에도 가서 선문강의를 다 들었어요. 백봉거사 밑에서 정진을 1주일씩은 다 거쳤습니다.

-탄허 스님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이 보도되었지요?

당시 유력한 신문에 스님에 대한 것이 많이 보도되었지요. 스님은 동아일보가 주는 인촌상을 타셔서 그런지, 동아일보에 스님의 보도가 좋게 나갔어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선우휘 주필과도 친근하셨고, 두 분이 대담하는 것이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 시절 선우휘씨는 조선일보에서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참, 그리고 선우휘씨의 사모님도 제가 고대 앞에서 상학을 배울 때에 같이 배운 것으로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의 원탁회의 좌장인 백락청의 사모님도 같이 상학을 배웠어요. 또 스님의 저서인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나오자 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탄허재단 설립 당시에 변호사님이 수고를 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스님은 살아생전에 학하리를 인재양성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셨고, 그곳에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을 재단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큰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창열, 명호근 선배들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법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서로 상의하고, 궁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실무를 추진할 사람으로 김희순 선배가 나섰고,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법인의 허가를 그 당시 문공부가 담당해서, 그 당시 문공부 장관인 이진희 그 분에게 제가 테니스 시봉을 6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그 분과 함께 장충동의 테니스장에서 같이 운동을 하였고, 또 경복궁 내의 테니스장에서 매주 테니스를 치고, 끝나면 목욕하고 밥도 같이 먹고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진희 장관에게 "탄허 스님을 기리는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였죠. 그랬더니 그 분이 종무실 직원을 불러서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3~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 다시 이진희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분은 화를 내시면서 "이놈의 자식들 아직도 안 했어!" 하시더니, 그후에 조치가 되어서 어렵게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랬지요.

-변호사님은 탄허 스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싶나요?

저는 요즈음 불교계의 스님들이 자기 정체성을 선사, 율사, 강백 이렇게 분류해서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스님들은 각 분야의 기본적인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이런 면에서 탄허 스님은 모든 방면의 지식, 학식을 다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교학에 남달리 뛰어난 분이었지요. 스님이 강의하실 때에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오자(誤字) 하나 없는 글을 칠판에 가득하게 적으시고 하신 강의를 들어보면 대단하다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님은 그 당시 불교계의 비주류였습니다. 어찌 보면 비주류였기에 그런 고민,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당대에는 주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불교는 수행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즈음 스님들은 자기 수행에 힘쓰기보다는, 사회에 나와서 하는 하화실천과 현실 사회에서의 교화에만 신경을 씁니다. 반면에 신도들은 어찌 보면 삼귀의례, 사홍서원 정도의 교리, 신앙만 갖고 사회 참여를 해도 될 터인데 참선과 경학 공부를 스님들이 하듯이 노력해서 자기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수행과 실천이 본래의 모습, 구도가 아닌가 합니다.

-변호사님에게서 탄허 스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스님은 제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지요.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서 저는 스님에 대한 모든 것이 좋게만 보입니다. 외부에서 탄허 스님에 대한 것을 놓고 왈가왈부(曰可曰否)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일부분만을 보고서 말들을 하지요.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서. 하여간 탄허 스님은 여러 면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 평가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탄허 스님 같은 분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스님이 쓰시는 한문을 보면 그런 것은 어린 시절에 이미 문리가 터져서 그리된 것 같아요. 불교뿐만 아니라 유불선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인물이 앞으로 다시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스님을 20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만나서, 40대 초반까지 근 12~3년을 아주 가깝게 모시고 지냈습니다. 대학 때부터 보자면 15~6년입니다. 그 기간에 스님을 모시고, 배우고, 야단도 맞으면서 가르침을 받은 것 그 자체가 제 삶의 족적입니다. 또 열반 이후에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껏 법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보통의 인연은 아닙니다.

-탄허 스님의 유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한 점도 없어요. 제가 대전에 근무하다가 서울로 발령이 나서 올라간다고 하니까 스님께서 특별한 글씨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자 도덕경 1장의 구절인데요, 도를 도라고 부르면 이미 도가 아니다라는,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 명가명 비상명(名可名 非常名)이었습니다. 저는 스님에게서 그것을 받고 나서 노자 도덕경의 책을 사서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꼭 달라기에 주었지요. 그 후에 자광사의 주지로 있었던 원행 스님이 스님의 글씨를 전각하였는데, 그것을 한 점 얻었는데 그것은 내용이 좋아서 지금도 저희 집에 딱 걸어 놓았지요. 그것은 인의자실(忍衣慈室)이라는 내용입니다.

-탄허 스님 글씨는 선필(仙筆)로 유명하지요?

혹시 박정희 대통령이 스님 글씨를 받고서 기분이 좋았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정사의 제일 큰 화주를 한 사람이 KAL의 조중훈 회장입니다.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쓸쓸한 박대통령이 조중훈 회장이 선물한 스님의 글씨, 진묵대사의 49재 추도문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고 그래요. 대통령의 심정을 달래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요. 조중훈은 그 선물을 드렸는데 박대통령이 가납을 하였고, 그때 박대통령이 조회장에게 "스님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스님을 모시고 인도 성지순례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스님의 인도순례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KAL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순례하시는 것을 KBS가 따라가서 찍어서 그 이듬해 초파일 특집으로 몇 차례 나누어서 내보낸 것이지요. KAL은 냉난방이 되는 전용차를 준비하는 등 신중하게 스님을 모셨습니다. KBS가 PD를 붙여서 보내고 촬영을 하였던 것도 KBS 단독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전후사정이 있어서 가능하였던 것이지요.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를 준비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적 몇 주기 하는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대한 인물은 탄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에서도 등소평을 탄신 기념으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탄신 100년이 되었으니 탄허 스님과 같은 새로운 인물이, 스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탄허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갈 후예로 사회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지금껏 재단에서 탄허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가려고 그래도 노력은 하였지만, 저희 같은 속인들은 한계가 있어요. 재단의 명맥을 유지하였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요. 성철 스님의 상좌인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은 종정도 하셨지만 재단을 만들지도 못하였다면서, 탄허 스님은 입적하신 직후에 그렇게 빨리 만들었다면서 부러움을 표한 글을 제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요.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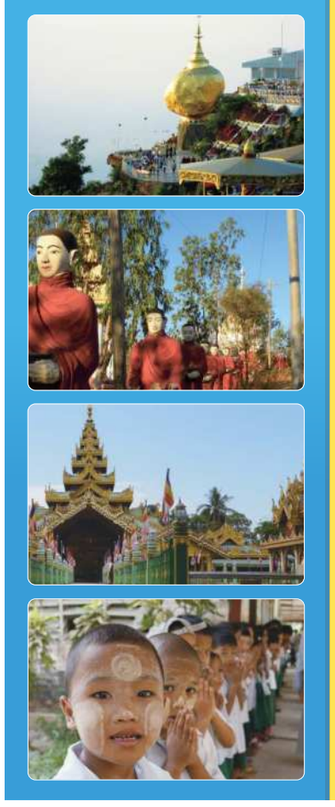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그동안 '방산굴의 무영수'를 애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179만원
출발일 : 2013년 10월 19일, 10월 26일
※아시아나항공(직항) - 별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양곤 / 바고 / 시리암(내셔널빌리지) - 5일 99만원
출발일 : 2013년 10월 16일, 10월 23일
※아시아나항공(직항) - 별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인천 / 김해공항 출발 - 실속 (타이항공 초특가)
* 국내선 항공 이용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7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강력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10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2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29만원
• 대만	5일	12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부처든 마구니든 내동댕이 칠 수 있어야…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1〉



범어사 주지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만약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는 것'이 된다.

말할만한 어떤 법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 곧 〈금강경〉 '사구게'에서 사도(邪道)라고 이른 '음성으로써 부처님을 찾는 것'이 된다. 음성이든 뭐든 일체가 부처 아닌 것이 없는 줄 알면 그만이다. 나중에는 부처든 마구니든 싸잡아 내동댕이칠 수 있어야 한다. 흔적 없이 싹 쓸어버리는 것이 선(禪)의 본령이다.

내가 있다는 견해를 내면, 곧 처소(處所)의 한정이 있게 된다. 법 또한 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니, 법이란 바로 마음이다.

내가 있다거나 법이 있다고 한다면, 곧 나라고 하는 것 혹은 법이라는 것에 집착하여 어디에 머물게 된다. 불법은 머무는 바가 없어서, 육조스님께서도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나든 법이든 온통 한마음이어서, 달리 다른 무엇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마음법을 부촉하노니
법, 법 하지만 어찌 법이 있을손가.
법도 없고 본래 마음도 없어야
마음, 마음 하는 법을 비로소 알리라.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열반묘심을 전할 때, 실제로는 한 티끌이라도 전한 바가 없다. 본래 다 갖추어진 것을 스스로 자각 하게 해준 것일 뿐, 달리 더하거나 덜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일체 중생이 스스로 완벽하게 갖추어 쓰고 있는 마음은 부처라고 해서 더 많이 가지고, 중생이라고 해서 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 간에 전하고 받고 하는 법이나 본심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법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을 전하는 바 없이 전하는 도리를 알게 된다. 이것이 역대 불조께서 열반묘심을 이심전심으로 전한 바이다. 다만 범부는 이 말을 배워서 따라하려 하지 말고, 묵묵히 계합하여 흔쾌해지도록 정진해야 한다. 위의 게송에서 앞의 두 구절은 석존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실 때 전법게의 일부이다. 뒤의 두 구절은 서천 4조와 6조의 게송에서 따온 말이다.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도량에 앉는다고 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 뽑는 선불장(選佛場)이란 실로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장소다. 일체 시비와 사량 분별이 끊어진 진리의 도량인 것이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런 도량에 앉아 계신다. 그곳에는 비록 허망한 것들이 와도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청정해진다. 마치 허공에는 한 물건도 세울 수 없는 것과 같다. 참된 공부인이라면 늘 그런 도량에 앉아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을 잘 살펴 쓰면서, 모든 대중을 공경하고 원만하며 편안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한 가지 법도 얻을 수 없는 곳이 진정한 도량임을 알면, 어디를 가나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는 정토가 된다. 그런 사람에겐 예토(穢土)가 곧 정토다. 당당하고 무애자재한 대자유인의 삶이 펼쳐진다.

법이나 본심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법 · 마음 전하는 바 없이
전하는 도리를 알게 된다

도량이란 오직 일체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
하나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곳
진정한 도량임을 알면,
어디를 가나 걸음걸음마다
연꽃 피는 정토가 된다

불법은 있다, 없다는
상대적 개념 붙일 수 없는 것
미혹도 없고 보리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 다함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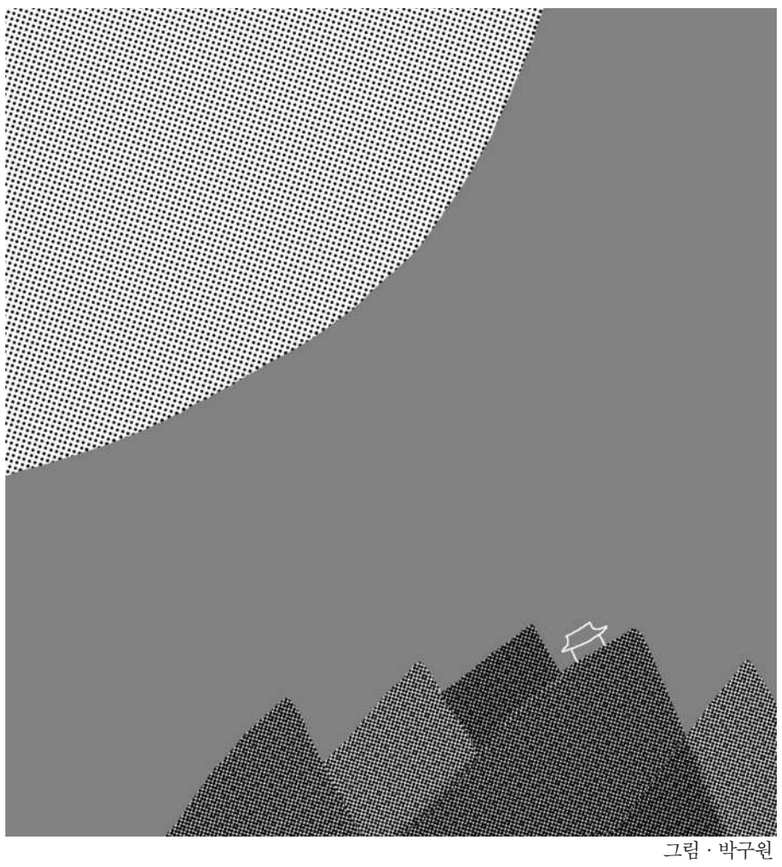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법이 본래 공(空)임을 깨닫는 것을 공여래장(空如來藏)이라 한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낄까?' 만약 이 소식을 안다면, 유유자적하게 소요할 뿐 다시 무슨 말을 하랴.

내면의 청정도량이 밝아지면, 그곳에는 제도할 중생이라곤 하나도 없다. 법은 본래 공해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담담하고 청량한 기운으로 그저 인연 따라 임운등등 흘러가면서, 이런 소식을 알게 해주신 불법의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렇게 공부가 더 깊고 넓어져 가는 것이다. 아마 배휴거사도 황벽스님의 단련을 받고, 만년에는 유유자적 소요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배휴거사의 묘소는 위산에 있다. 황벽스님이 돌아가신 뒤, 당대의 선지식인 위산스님에 의지하여 만년을 보냈던 것이다. 황벽과 위산은 둘 다 백장의 제자로서, 사형사제 간이었다. 위산의 법은 앙산으로 이어져 위앙종을 이룬다.

9. 본래무일물

배휴가 물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면, 한 물건도 없음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낄까?' 하는 육조스님의 유명한 게송은 신수스님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자.'는 게송에 대응해서 한 말이다. 아직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유위(有爲)의 입장에서 뭔가 노력하려는 신수스님의 입장에 대해,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무위(無爲)의 도량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신수스님의 견해에 상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 아직 '무일물(無一物)'의 '없다'는 흔적이 남아있다. 육조스님은 그 후 오조 홍인스님께서 따로 불러서 〈금강경〉을 설해주는 인연에 힘입어, '있고 없음'의 상대적인 없음마저도 싹 지워버렸다.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 깨달음이란 옳은 곳도 없으며, 그렇다고 앎이 없는 것도 없다."

육조의 법을 잇게 되는 남악회양(南嶽懷讓) 스님이 스승을 참배한 자리에서 "어떤 물건이 왔는고?" 하는 질문을 받고, 8년간 궁구한 끝에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고 대답하여 인가를 받았다. 불법은 있다, 없다는 상대적 개념이 붙을 수 없는 것이다. 미혹도 없고 보리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⑧⑦



조작됨 없는 마음서 자비심이 일어나네

〈천수경〉

사트바(sattva)로 가는 길

힌두교의 성전으로 〈바가바드기타(Bhagavadg?t?)〉라는 책이 있다. 줄여서 '기타'라고 부르는, 이 책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한 것이 1992년의 일이었다. 그 사이 오늘날까지 읽고 또 읽고, 강의하고 또 강의하고, 쓰고 또 쓰고 있다.

불교경전도 아닌 책을, 그렇게까지 빠져서 읽고 쓰고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처음 이끌리게 된 것은, 이 책에 '행위의 길(까르마 요가)'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젊어서부터 기본적으로 '행위주의자'였다. 그래서 윤리적인 행위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주로 생각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행위의 문제를 힌두교의 성전인 〈기타〉에서의 그것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 일본의 한 시골에서, 말하자면 폐관(閉關)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떠나올 때의 짐 속에는 이 "기타" 관련 책들만이 있었다.

지난 5개월 동안, 다시 처음부터 정독을 해오고 있다. 거의 다 읽어가는 데, 새롭게 느끼는 것은,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세가지 속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다. "기타"에서는 사트바, 라자스, 그리고 타마스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사트바는 순수함, 라자스는 격정, 그리고 타마스는 어둠으로 상징된다. 예를 들면, 제사나 고행이나 보시 등의 행위 역시 이러한 세가지 차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라자스적인 행위나 타마스적인 행위는 피해야 하고, 순수한 사트바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트바, 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이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는 순수, 적정, 청정, 평화 등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사트바에서 나온 행위

〈기타〉를 말하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 나는 〈천수경〉 역시 말해오고 있다. 〈천수경〉은, 여러모로 〈기타〉와 비슷한 텍스트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중에 하나는 '사트바'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찬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천수경〉에서는 사트바적인 마음을 '무위심(無爲心)'이라 말하고 있을 뿐이다.

헐떡거리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조작해야 하고, 작위적인 행동을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는 '라자스(rajas)'적인 것이라 말한다. 또 행위를 하기는 하되 언제나 그릇된 방향으로, 잘못된 생각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것은 '타마스(tamas)'적이라 말해진다.

라자스와는 반대로 사트바는 적정하며, 차분하고, 고요하다. 또 타마스와는 반대로 사트바는 밝고, 명랑하며, 쾌활하다. 사트바는 그런 개념이다.

이번에 〈기타〉를 정독하면서, 나는 새삼



그림 · 박구원

깨닫게 되었다.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라자스적이고 타마스적인 데에서 사트바적인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을까.

사트바적인 마음, 즉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일어나는 행위 역시 자비로운 행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트바적인 행위가 되려면, 역시 사트바적인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것 밖에 수행이 없다.

물론, 깊이 더 따지고 들어가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사트바적인 마음과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심이 완전히 같은가 아닌가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같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이제 나는 좀더 사트바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트바적인 삶을 살고 싶다. 무위심으로 돌아가서,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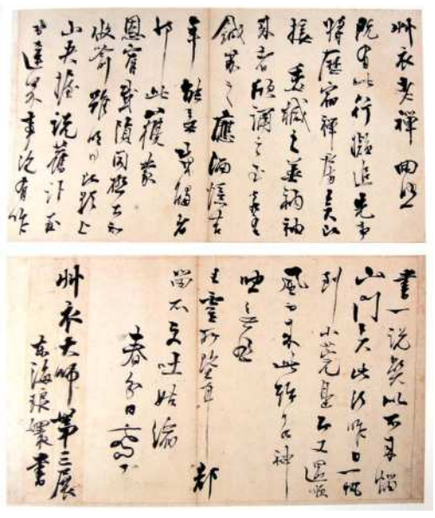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추사와 초의 재회는 한폭의 선화

추사의 해배가 알려진 것은 1848년 12월 6일이지만 제주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이 해 12월 19일쯤이라 짐작된다. 을유(1849)년 2월 28일, 이진에서 용산 본가로 보낸 추사의 편지는 선문대학 박물관 소장본인데, 이는 그가 해배 소식을 듣고 행장을 꾸려 제주를 출발한 후, 이진(梨津: 현재 전남 해남군 북평리)에 도착했던 여정이 상세히 드러난 자료이다. 그는 이 편지에서 "나는 2월 15일에야 포구로 내려왔다. 중략… 포구로 내려온 지 열흘 만인 26일에야 동풍을 만났는데, 돛을 한 번 올려 천리 길을 편히 건넜다. 중략… 소완도 앞에 이르자 모두 돛을 내리고, 잠시 머물렀다. 새벽에 또 동풍이 일자 정오에는 곧장 이진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며칠 짐을 꾸리는 동안에 잠시나마 초의선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지난 일을 추억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그가 제주를 출발하여 이진에 도착한 것은 1849년 2월 27일이며, 용산 본가에 보낸 편지는 이진에서 썼음이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한때 추사가 해배된 후, 한양에 도착한 시기가 1849년 1월로 알려진 적도 있었지만 이 편지의 발굴로 인해 그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진 셈이다. 추사는 용산 본가 이외에도 초의에게 소완도에 도착을 알렸는데, 이는 〈완당전집〉〈여초의〉 30신과 〈영해타운첩〉, 〈나가묵연첩〉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초의에게 보낸 이 편지는 간기가 없어서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없었으나 용산 본가에 보낸 편지로 인해 이 편지 역시 이진에 도착한 1849년 2월 27일쯤에 쓴 것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이 편지는 아래와 같다.

이미 이렇게 가게 되었으니 옛 일을 추급하여 지나는 길에 선방에서 묵을까 생각했습니다. 바로 어느 좋은 스님의 소매 속에 간직하고 온 서한을 받으니 너무 반가워서 침개(鍼芥: 바늘과 겨자씨가 서로 만남)의 감응이 있는 듯합니다.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감동되어 느끼는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이 (형벌이) 없어지는 임금의 은총을 입게 되었으니 망극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내일이라도 바로 산에 올라가서 유쾌히 손을 잡고 옛일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절집의 일은 이미 글을 써서 한번 폐단을 얘기한 일이 있으니 산문을 괴롭히지는 않을 듯합니다. (나의) 이 행차는 어제 작은 배로 소완도에 도착했고, 지금은 또 순풍을 만나 (순조롭게) 왔으니 이것은 아마 신의 보살핌이 있는 듯하고, 선왕들의 영험함이 아니고는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뒤로 미루고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춘분일 재일(旣有此行 擬追先事 將歷宿禪房矣 卽接委槭之善衲袖來者欣誦之 至若有鍼芥之應 緬憶昔年能無感觸者耶 此獲蒙恩宥減隕 罔極不知攸喻 雖明日卽欲上山 一㘝說舊計 至於蓮界事 旣有作書一說弊 似不來惱山門矣 此行日昨一帆到小莞島 今又遇順風而來 此殆有神照 無非王靈所 ㅌ耳都留不更吐 姑縮 春分日 齋曰) 草衣大師第三展 東海浪一㘝書



〈나가묵연첩〉에 실린 '소완도' 도착을 알리는 편지

1848년 12월 추사 유배 해제
이듬해 2월 소완도의 초의 찾아가

이진에 도착해 짐을 꾸리는 동안 "초의를 찾아 지난 일을 추억하려 한다"는 추사의 바람은 언설로 드러내기는 어려웠을 터. 제주 귀양길에 들렸던 일지암과 해배 길의 해후는 그 감회가 분명 달랐으리라. 그가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감동되어 느끼는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말은 추사의 마음을 짐작하기에 족하다. 항상 임금에 대한 충심이 가득했던 추사, 임금의 은총에 감읍한 그는 "망극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초의와 함께 하고픈 마음 "내일이라도 바로 산에 올라가서 유쾌히 손을 잡고 옛일을 얘기하고 싶다"라 하였으니 산차를 앞에 둔 이들의 담담한 재회는 분명 한 폭의 선화(禪畵)처럼 맑고 온화했으리라.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비첸지오 판매 비취)
▶ B비취 : 원석에 착색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몸과 마음의 病 함께



박귀원 무량감로회 회장이 진료소를 찾은 어르신을 진찰하고 있다. 간이 진료소지만 유명의사들이 포진돼 어르신 건강을 보살핀다.

어르신 아픔 돌보는 의료봉사단체 무량감로회

2012년부터 월 1회 의료봉사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조계사 불교대학에 가면 볼 수 있는 한 풍경이 있다. 바로 의료봉사를 기다리며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의 줄이다.

오전 10시부터 진료가 시작되지만 9시 무렵이면 100여 명이 이미 강의실에서 순번을 기다린다. 매달 찾는 어르신들은 250여 명, 이미 지역노인복지회관 등을 통해 독거어르신 등 저소득층 어르신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매달 인원이 늘고 있다.

대부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강의실에는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가 흐른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스한 관심과 몸의 아픔을 치유하는 손길.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 따듯한 말 한마디에 아픈 몸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밝지 않은 표정은 금세 밝아진다.

100여 봉사자가 월 250여 어르신 시봉
1998년 창립된 불자약사보리회가 전신
2001년 의약분업으로 봉사 중단 아픔
2009년 의사들 가세로 봉사 재개
2010년 1월 '무량감로회'로 창립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단체가 구성된 것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신인 약사들의 의료봉사 단체 불자약사보리회가 해체되며 의사들과 약사들이 함께 구성했다.

1998년 소외된 노인을 돕자는 뜻을 모아 약사들이 결성한 불자약사보리회는 자비를 들여 종로 탑골공원과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간단한 진단과 무료 투약 봉사를 해왔다. 하지만 2001년 의약분업이 실시되며 약사들의 처방이 금지됐다. 이발봉사와 식사 제공 등을 진행하는 등 다른 봉사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의료봉사가 중단되며 사실상 해체 단계를 밟게 됐다.

이에 아픈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이들의 뜻이 다시 모였다. 2009년 말부터 불자의사들이 불자약사보리회에 참여하며 의료봉사 활동은 다시 재개된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불자약사보리회 안기순, 나청자 약사, 배광식 서울치대 교수, 박귀원 서울의대 교수, 채원선 자원봉사자 대표 등을 주축으로 조직을 꾸렸다. 2010년 1월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열린 창립법회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스님은 이들 모임에 '무량감로회'란 이름을 내렸다.

의사들과 약사, 간호사들이 의료봉사를 매개로 모인 '무량감로회'의 탄생이었다. 무량감로회는 이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봉사에 나섰다. 당초 창립 초기에는 혜명복지원 등 전국을 누비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위해 2012년부터 조계사 불교대학에 보금자리를 틀고 월 1회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원이 적었지만 점차 참여 회원들이 늘어났다. 현재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회원만 의사 10여 명, 약사 20여 명 등 자원봉사자 포함 100여 명에 달한다.

내과, 정형외과 등 하나의 종합병원

의료봉사가 진행되는 일요일이면 조계사 앞마당은 북적인다. 9월 8일 오전 10시, 진료가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접수대에서 진료카드를 받아 진료소로 이동했다. 서로 순번을 지켜 다소 비좁은 공간임에도 차분한 가운데 진료가 진행됐다. 순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불교대학 강의실과 조계사 곳곳에서 환담을 나눴다.

접수대에서는 간호사들이 간단한 혈압과 이상 증세를 점검하고 이에 맞춰 진료과목을 안내했다. 청진기와 여러 검진 장비를 갖추고 꼼꼼히 어르신들의 상태를 점검했다.

무량감로회의 진료과목은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로 하나의 작은 종합병원이다.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은 진료카드에 아픈 곳을 자세히 기록했다. 한 간호사 분은 "내과와 정형외과를 가장 많이 찾는다"고 귀띔했다. 관절염과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은 학회 세미나 관계로 물리치료과는 의료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근육통 등으로 평소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찾는 곳이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무량감로회 진료소는 강의실 구조를 그대로 활용했다. 강의실 책상 하나를 놓고 진료를 보고 반대편 강의실 책상에서는 저울을 가져다 놓고 끊임없이 약제를 만들었다.

분주함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대하는 의사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무량감로회의 의사들은 보통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 전문의들이다. 이들은 어르신들에게 꼼꼼히 증상을 묻고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진료 때마다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고 건강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이었다.

약을 만드는 약사들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더하고 약을 먹을 때 주의사항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런 정성 하나 하나는 어르신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 주변의 어르신들과 함께 온 어르신들도 많았다.

의료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조계사 불교대학을 찾는다는 최금근(81세) 할아버지는 성수동에서 이날 진료를 받기 위해 왔다.

"자식들은 다 결혼했고 혼자 살아. 2년째 오고 있는데 오늘은 감기약과 무좀약을 받았어. 약값이 오천 원이 넘는데 이게 우리 나이 대에는 부담이 되거든. 괜히 아프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머하고… 처음에는 봉은사에 갔다가 얘기를 듣고 오게 됐는데 고마울 뿐이야"

최숙자 할머니(74세)도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최고"라며 "병원에 가도 진단까지 며칠씩 기다리고 약처방도 여기가고 저기가고 하는데 무량감로회는 유명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히 진료해주고 바로 옆에서 약도 만들어 줘 참 좋다"고 말했다.



입구 접수대에서 간호봉사자들이 어르신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노약사분도 노력 봉사로 동참하고 있다.

고치는 것이 불법”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의료진료 뿐만 아니라 간단한 상담 또한 진행한다.

강영자 무량감로회 총무는 “매월 약을 타가는 이러한 어르신들이 현재 250명가량이 되는데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귀원 무량감로회 회장은 “매달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다보니 안내하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어 가고 있다. 또 현재 회원들의 회비로는 약품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도 “다행히 대한약사회, 개인병원에 연관된 제약회사 등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후원이 문제”라며 “최근 기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며 후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권혁철 회원의 유식 강의로 마무리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권 회원은 본래 기독교 신자였지만 10년 전 유식불교를 접하고 불교에 귀의했다. 2011년부터 무량감로회 의료봉사 이후 교리강연에 나서고 있다. 의료 진료를 받은 어르신 중 일부는 남아 교리강연을 들으며 신행활동을 이어갔다.

권혁철 회원은 “봉사활동은 내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되는 것 같다”고 밝게 웃었다. 이날 강연 이후에는 교리강연 2주년을 맞은 작은 다과회도 마련돼 훈훈함을 더했다.

한국불교연구원 산하단체로 소속

불자 의료진이 진료를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불교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무량감로회 만의 원칙이 있다.

“절에 오지 않아도 책으로, 수행으로 불교를 접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톨릭을 믿으면서도 삶의 방식은 불법에 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개종하려는 왕에게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 그게 불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료 봉사활동 같은 것을 해도 불교단체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돈 주고 약 주면서 약자인 환자에게 불교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김종화 이사장은 “불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닌 삶의 철학이자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원칙은 무량감로회에 다양한 봉사를 가능하게 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박귀원 서울대 교수도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

김종화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이 운영하는 문화재 답사모임에 참가하며 점차 불교적 삶에 대해 긍정을 갖게 됐다. 한번 마음이 생기자 저절로 불교를 공부하게 됐다. 박귀원 회장은 능인선원에서 불교수업을 듣는 등 신행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박귀원 회장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시는 회원들이 있다”며 “어떤 회원들은 레지던트나 원무과 직원을 데리고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번 나왔던 회원들은 꼭 다시 나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유명 의사의 진료도 여기서는 금방 받을 수 있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해요.”

현재 무량감로회는 한국불교연구원의 산하 단체로 소속돼있다. 김종화 이사장은 “영수 처리를 위해 법인이 필요해 연구원 산하단체로 등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연구원은 이기영 교수가 재가불자(在家佛子) 중심의 생활불교를 정립하기 위해 1974년 설립한 곳으로 김종화 이사장이 4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생활불교를 표방한 한국불교연구원의 색채와 생활 속에서 봉사하는 무량감로회의 색채가 묘하게 닿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량감로회 창립을 주도한 김종화 이사장은 “불교인들은 ‘가끔 절에 간다’ 고 하지만 알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깊이 공부한 경우가 많다”며 “서로 불교를 믿는 걸 모르는 정도로 내세우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화 이사장은 “불교인들은 다른 이에게 ‘불교 공부해보자 절에 가자’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며 “이는 불교가 생활철학으로 생활 속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교 드러내지 않는 원칙 지켜
의료봉사 후에는 불교교리 강좌 진행
2012년부터 해외 의료봉사도 다녀와
성지순례 · 사찰 참배로 회원 신행 도모
어르신 늘어… ‘기부 · 약품 후원 절실’

지난 2012년에는 라오스에서 항문이 없이 태어난 아이를 수술하기도 하는 등 무량감로회의 활동은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 성지순례 등 회원 간의 신행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봉사는 스스로를 살찌우는 거예요. 가진 능력을 활용해 힘든 이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대승보살행이 아닐까요?”

하얀 가운을 입고 의료봉사를 하는 이들의 웃음이 그 어느 웃음보다 환하게 느껴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량감로회는?

2010년 1월 24일 창립한 의료전문 봉사단 무량감로회는 1998년 진행돼 온 불자약사보리회가 전신이다. 2001년 의약분업이 본격시행되며 약사들의 의료봉사가 법적으로 막히며 의사들과 약사, 간호사들이 뜻을 모아 2010년 창립했다. 박귀원 서울의대 교수가 초대회장을 맡아 매주 둘째주 일요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회원 성지순례 및 사찰 참배 등도 진행하고 있다.



조계사 불교대학 앞에 걸린 플래카드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는 무량감로회 임원진들. 왼쪽부터 강영자 총무, 박귀원 회장, 김종화 이사장, 안귀순 약사, 류인숙 자원봉사자

전법일기

별빛 아래 펼쳐진 ‘왁자지껄’ 명상

영어 담마 캠프(4)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특히, 이번 별빛명상에서 그러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평소와 달리 영어일기를 먼저 쓰고 밤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설법전에 모였다가 나가서 한 줄로 조용히 도량을 걷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였다. 고요함이 무르익었을 때 쯤 미리 준비된 돗자리에 몸을 누이고 별을 보는 것이다.

시골에서 자란 나는 여름밤 가족과 밭일을 끝내고 터덕터덕 걸어오다 우연히 보게 된 별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깜깜한 하늘에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고 쏟아져 내리는 별빛의 아름다움에 숨이 막힐 듯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지금도 밤에 하늘을 볼 때면 가족들과 보았던 영롱한 별빛이 생각나면서 미소짓게 된다. 그때 가족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나는 별빛명상을 준비하면서 도심의 아이들에게 하늘의 별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움으로 볼수 있기를 바랬다.

나는 흠뻑 낭만에 젖어 아이들이 고요한 명상으로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보물찾기에서 준 응원봉이 문제였다. 응원봉은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고 색깔이 12가지로 변한다. 받자마자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닌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별빛명상인지 뭔지 관심이 없다. 그저 응원봉 하나를 꼭 잡고 손에서 놓지를 않는다. 외부불빛이 없이 깜깜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아이들에게 불을 끄기를 강요하였지만 쉽지가 않았다. 특히, 캠프의 주요 말썽꾸러기들은 끝까지 켠다. 결국 압수를 당하고야 포기를 한다.

여름밤 산사의 정취를 푹 느끼며 걷고 난 후, 준비된 돗자리에 모두 누우라고 했다. 누우면서도 난리다. 그와중에도 토닥토닥 다투고 떠든다. 결국 별빛명상은 나의 조용히 하라는 소리로 시작해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로 끝난 것 같다. 마음이 불편했다. 아이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별빛명상을 선사하고 싶었는데…



그림 · 박구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무견 스님이 살짝 다가왔다. “스님, 아이들이 조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그냥 아이들 떠들면서 별을 바라보도록 했으면 좋았을걸 그랬어요” 한다. 순간 아,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식 대로의 사랑을 한다. 상대가 좋아 하든 말든 자기방식대로 상대를 사랑한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작년에는 아이들이 오순도순 이야기 꽃을 피우게 했던 기억이 난다. 명상이라고 해서 꼭 조용히 하라는 법이 있나? 생각해 보니 그것도 그렇다. 별빛명상 다음날 한 아이가 불쑥 다가오더니 하는 말 “스님은 좋겠어요” “왜?”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니까요. 저는 어젯밤에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순간 행복했다. ‘너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별빛이 들어 갔구나. 언젠가 삶이 너를 힘들게 할때 부디 아름다운 별빛을 꺼내어 보길 바라. 그리고 네가 만나게 될 슬픔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님은 사실, 이곳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살아. 내가 서울에 살 수 있는 것도 가슴속에 산사가 있고 아름다운 별빛이 늘 함께 하기 때문이지.’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아이는 나의 손을 슬쩍 잡고는 “고마워요. 스님” 한다. 이틀 후 130년 만에 볼 수 있는 별똥별 우주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우리는 유성우를 보기위해 다시 절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누웠다. 하늘에서 별똥별이 뚝뚝 떨어진다. 아이들은 이곳 저곳에서 함성이다 “와~또 떨어진다~”.

교사들과 스님들, 아이들은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소원비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이들과 누워 별을 보며 노래도 부르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밝아 오고 산사의 건물들이 서서히 몸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더라도 가슴속에 은해사 하늘의 별은 영원히 빛나길 바래본다. 사랑한다면 내 마음의 소리보다 상대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한국전쟁 정전60주년

60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자비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

불기 2557(2013). 9. 27(금) 오후 2:00-5:00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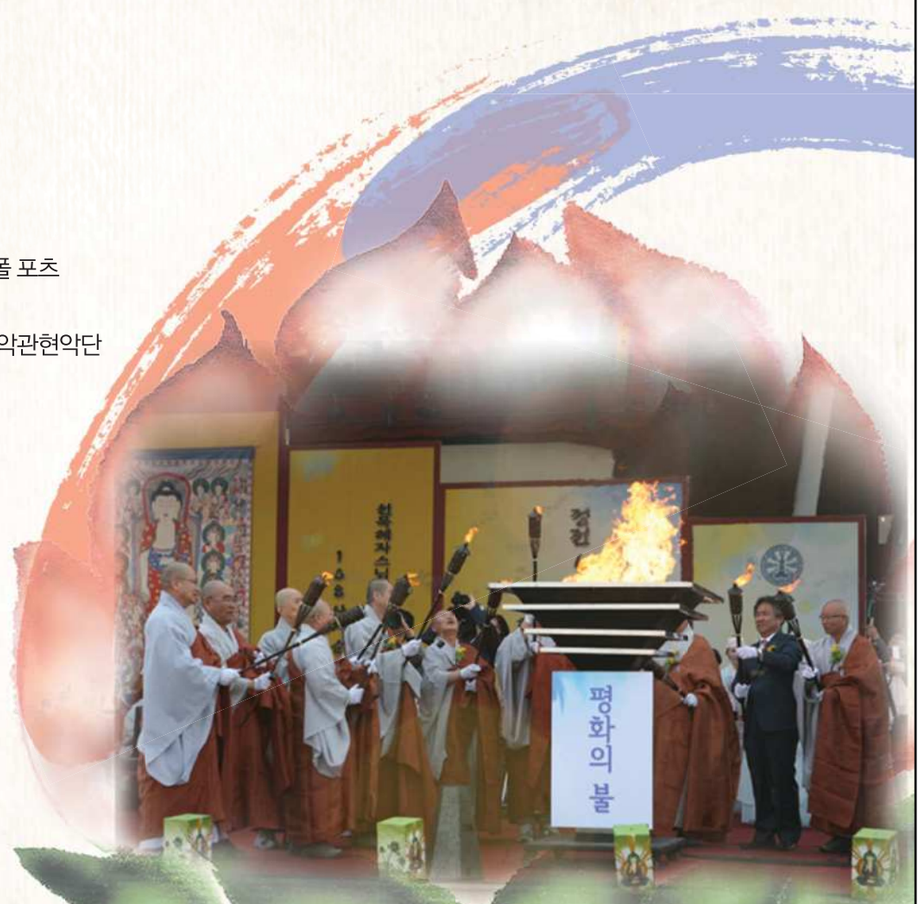
기념공연
기념식
천도재

출연
황병기 · 이선희 · 인순이 · 바비킴 · 폴 포츠
혜민스님 · 이애주 한국전통춤회
레인보우 어린이합창단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外

사회 신영일 · 박칼린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MBC

문의 http://www.budpeace.org
kppf@budpeace.org
051) 508-3125, 3126
02) 739-9081



남과북이 서로 화해와 협력하여,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에도
‘평화의 불’ 이 안좌할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합장

멸종위기 눈표범, 티베트 스님 수호천사 자처

조지 샐러 등 보존생물학자들, 3년간 연구 조사서 밝혀



멸종 위기에 놓인 눈표범. 중앙아시아 고산지대의 토종으로, '백색의 은둔자', '고산의 은둔자'라고 불린다. 눈표범은 지난 20년간 모피를 얻고 약재로 쓰기 위한 밀렵으로, 현재 5000여 마리 정도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티베트 사원들과 스님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종 눈표범(snow leopard) 보호에 큰 몫을 해내고 있으며, 그 역할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권위 있는 학술 저널에 게재된다.

NBC NEWS는 9월 6일 판테라(Panthera Corporation, '표범보존회')의 보도 자료를 인용, "조지 샐러(George Schaller · 판테라 부회장) 박사 등의 티베트 고원 일대에서 3년간 진행한 눈표범 조사 보고서가 세계적인 생물학 저널인 〈보존생물학(Conservation Biology)〉지에 게재된다"며 "이 보고서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티베트 고원에서 눈표범의 서식지 및 개체 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티베트 사원과 스님들이 눈표범을 보존하는 데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중앙아시아 고산지대의 토종으로, '백색의 은둔자', '고산의 은둔자'라고 불리는 눈표범은 지난 20년간 모피를 얻고 약재로 쓰기 위한 밀렵으로, 현재 5000여 마리 정도만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 위기 동물이다.

여기에 주목한 판테라는 아시아 지역의 호랑이, 눈표범, 살쾡이 등과 같은 '대형 고양이 과 동물(Big Cat)'을 조사하는 '아시아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9년 조지 샐러 · 톰 맥컬티(Tom McCarthy · 판테라 수석연구원) 박사와 리 주안(Li Juan, 북경대) 교수 등에게 '눈표범 서식지 및 개체 수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표범 보존에 생각하지도 못한 지원군을 찾았다"고 전제한 조지 샐러 박사는 "눈표범의

사원 주변 밀렵 막으려 순찰
세계적 생물학저널에 등재
"생물학보존 분야 비전제시"

60%는 중국, 특히 티베트 고원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서식지 대부분에서 티베트 사원을 찾을 수 있었다"며 "특히, 스님들은 부처님을 모신 사원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밀렵을 막고자 순찰을 도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톰 맥커티 박사는 "중국의 칭하이(Qinghai) 성 산지앙우안(Sanjiangyuan) 지역의 눈표범 서식지 및 개체 수 조사에서는 서식지 반경 5㎞ 이내에 5~9곳의 사원이 파악됐다"며 "이곳의 스님 대부분 인근 주민들에게 '유 · 무정물 모두에게 사랑 · 존경 · 연민을 갖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고, 이는 양을 키우는 주민의 '눈표범 보복 사냥'을 미연에 막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고산지대 주민들의 가장 큰 수입원은 외투나 숄(shawl) 등의 주 원료인 양모(wool)을 파는 일이다. 양은 고산지대 특성상 방목되는데, 문제는 눈표범의 주 먹잇감이 양이고, 이로 인해 매년 양의 개체 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즉, 눈표범은 주민들에게 눈엣가시나 다름없고, '보복' 사냥감인 셈이다.

"눈표범 보존을 위해서는 티베트 사원들과 스님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요 골자"라고 전제한 리 주안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4곳의 티베트 사원과 눈표범 본존 프로젝트를 선험적으로 진행한 결과, 눈표범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줄어든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눈표범의 생존 지속이라는 문제는 푸는 단초"라며 "4곳의 티베트 사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144가구의 주민 80%는 '생명의 장엄함을 강조한 스님들의 말을 듣고 나서, 눈표범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NBC NEWS는 조지 샐러 박사의 말을 인용, "이 보고서는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가치가 보존 생물학 분야에 새로운 지혜와 비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지 샐러 · 톰 맥컬티 박사와 리 주안 교수 등이 공동 조사, 발표한 이번 보고서 'Role of Tibetan Buddhist Monasteries in Snow Leopard Conservation(눈표범 보존에 티베트 불교 사원의 역할)'은 9월 중 〈보존 생물학〉 지의 온라인 도서관에 게재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마천루 속 고급 쇼핑몰서 펼치는 '불교 수행'

日, 단기 불교 카페 운영





도교 번화가에 불교 카페가 생겼다.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최고급 쇼핑몰에 자리한 코야산 카페에서는 채식 음식을 맛볼 수도 있고(좌) 스님들의 염불을 들을 수도 있다.(우)

도쿄역 앞에 위치한 38층 높이의 고급 쇼핑센터 신마루노우치 빌딩. 세계적인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레스토랑들과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현대적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스님이라면?

천문관, 지우개, 밴드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포교하는 일본은 확실히 그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듯하다. 이번에는 도쿄시내, 그것도 자본과 소비, 욕망이 집약된 '작은 백화점'을 공략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단기 프로젝트성 불교 카페를 개점한 것.

일본 신곤파 불교의 근거지 와카야마(Wakayama)현의 산 이름을 딴 코야산 카페(Koyasan Cafe). 100여 개의 매장이 모여 있는 신마루노우치 빌딩 중에서도 정점이라 할 수 있는 7층 레스토랑에 자리 잡았다.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열흘 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사람들은 채식식단에 맞춘 음식과 음료수를 먹으며 염불을 듣고 사경을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싶거나 팍팍한 삶에 조언이 필요하다면 스님과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도쿄번화가에 불교식 카페를 연 이유에 대해 코야산 카페의 홍보 담당 야부 쿠니히코(Kunihiko Yabu)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존재들을 위한 것이지 죽은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정리했다.

주 고객은 20~30대 여성들. 지난해와 재작년 다녀간 사람들은 8천명에 이른다.

야부 스님은 "어떤 식으로든 불교와 가까워진다는 데 의의가 있죠. 삶을 온전히 사는 법을 일러주는 데 불교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불교는 각종 의식과 관련된 '화석화'된 종교로 사람들에게 인식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장례식의 90% 이상은 불교식이며 이는 종교라기보다는 관습으로 봐야한다고 말한다.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불교식 카페와 바를 만들며 생활밀착형 포교를 지향해 온 것도 일본 불교의 자구책이었던 셈이다. 덕분에 최근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 불교의 인지도를 넓힐 수 있었다.

"절에 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만 있죠. 스님들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 입장으로 보자면 절보다 카페에서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배현진 기자**

구글 강사로 나선 틱낫한 스님

3개월 일정으로 美 순회… '깨어있음' 주제로



틱낫한 스님이 3개월간 미국과 캐나다 등을 방문한다. 스님의 통찰력과 지혜를 배우고자 구글 등 IT기업이 스님을 초청했다. 틱낫한 스님은 첨단기기와 현대인들의 삶의 조화에 관해 강의할 예정이다.

구글이 틱낫한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은 9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구글 본사를 방문, 강연을 할 예정이다. 스님은 알아차림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 온 혁신과 통찰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구글은 이미 2011년 틱낫한 스님 방문 후 알아차림을 위한 내면검색(search inside yourself) 명상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있다. 구글 엔지니어들과 티베트 선승들이 함께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자신감 · 동기부여 · 공감능력 · 리더십 · 사회성기술 연습으로 구성됐다. 직원들을 위해 명상 공간도 늘렸다.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구글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재 3개월 일정으로 북아메리카에 머물고 있는 틱낫한 스님은 이번에도 20명이 넘는 실리콘밸리의 회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깨어있음'에 대한 스님의 지혜를 전해줄 예정이다. 어떻게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비롯, 알아차림을 통한 디자인 개발 등 일상과 깨어있음의 조화에 관한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스님은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알아차림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스마트 폰 등을 버릴 필요는 없다. 대신 선한 목적으로 현대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령 사람들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앱 개발과 숫자 대신 '지금'이라고 새겨진 시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다.

이번 북미순회에서 틱낫한 스님은 CEO들에게 현대인들이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나 앱 개발에 집중해 달라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구글에서 가질 특강에서도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는 데 구글의 지능과 선한의지(good will)를 써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얼마 전 아시아 투어를 마친 스님이 미국과 캐나다 등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토론토, 뉴욕, 미시시피, 캘리포니아 등에서 진행되는 일주일 수련 프로그램은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 신청자만 1000명 이상이다. 뉴욕, 보스턴, 파사데나에서의 대중강연도 예정돼 있다. 이미 뉴욕에서는 스님의 필체를 담은 작품, 캘리그라피(calligraphy,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 전도 전시되고 있다.

"기업들, 1등 욕심내기보단
오히려 목표 놓는 연습 필요"

가디언 지는 "'월가를 점령하라'로 대표되는 반자본시위 등 세계를 잠식해가는 세계화, 물질주의에 대한 피로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발견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처해있는 위기에서 우리 자신을 건지려면 집단적 깨어있음이 필요하다"고 말한 틱 스님의 책은 미국에서 2백만 부가 넘게 팔렸다.

스님의 업적은 이미 많은 세계 지도자들로부터 추앙받아 온 지 오래다. 세계은행총재 짐용김(Jim Yong Kim)은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우리 내면에 깃들게 한다"고 말한바 있으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틱낫한 스님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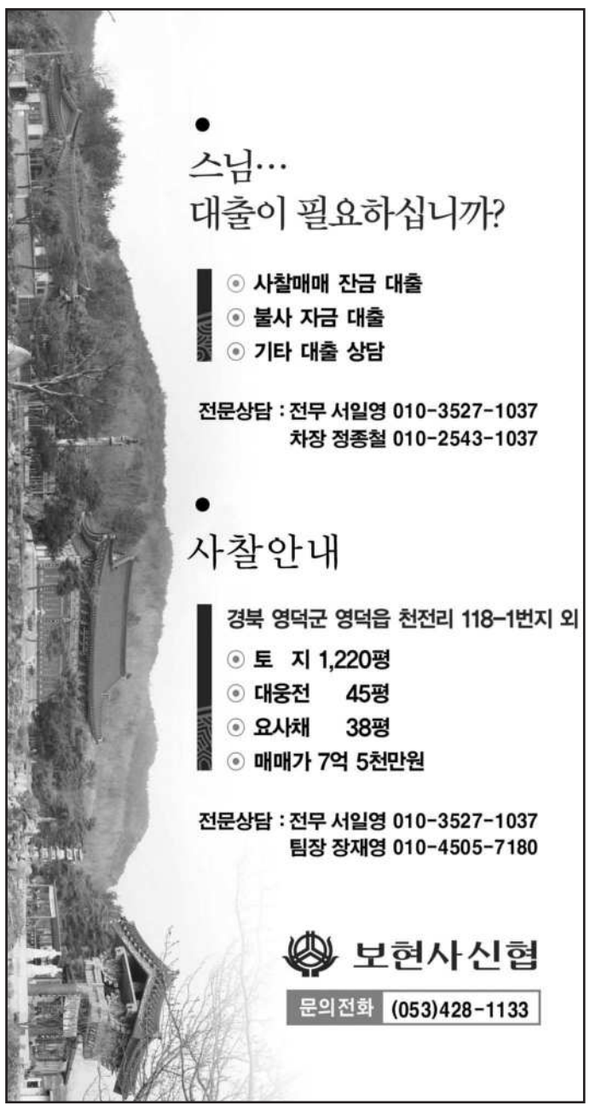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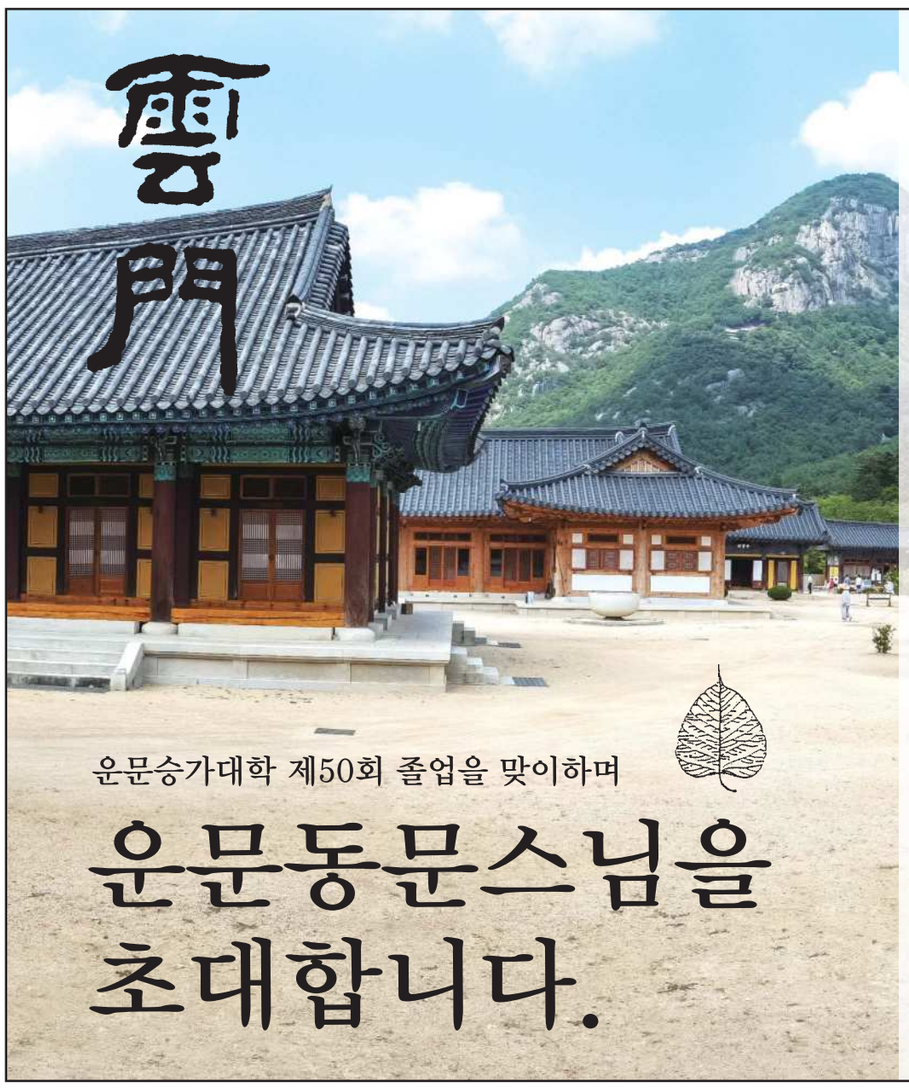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운문승가대학 제50회 졸업을 맞이하며

운문동문스님을 초대합니다.

운문 동문스님 여러분,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은 기억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운문에서의 추억은 또렷해지기만 합니다. 그 시간, 돌이켜 보면 빛나던 초심의 시간이었으며, 긴장되고 두근거리던 젊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운문승가대학에서는 1964년에 비구니 전문강원 명칭으로 1회 6명이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0회가 되었으며, 졸업생 수는 1,85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만큼은 모든 동문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하루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반백년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던 총명하신 스승님께서 아직 제자들의 법명, 얼굴, 성격을 기억하고 계시며, 후박꽃 향기 속에 묻어둔 우리의 이야기들도 차곡 차곡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문스님 여러분,

올 동문회에는 선후배의 그리움을 전하는 자리, 현재를 사는 동문들의 열정을 경청하는 자리,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배들의 꿈을 설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동참하시길 고대합니다.

동문회기간 | 2013년 **9월 24 ~ 25일** (1박 2일)

개 최 일 시 | 2013년 9월 24일 오전 10시

장 소 | 운문사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신원리 1789) / 054)372-8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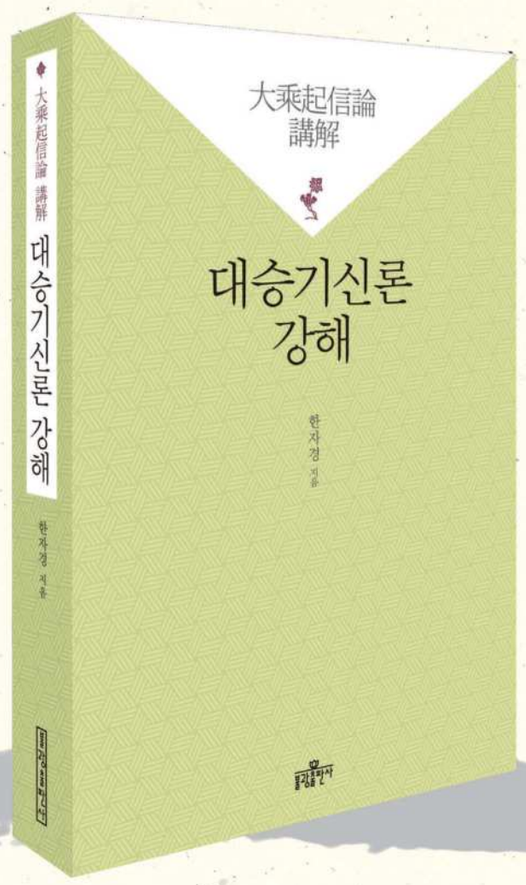
虎踞山雲門寺
www.unmunsa.or.kr

동문회장 우 송
운문승가대학 학 장 흥 륜 합장
주 지 일 진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강해講解하다!

원효와 법장의 소(疏)를 비교·분석하며
일심(一心)과 생멸·진여 이문(二門)의 참뜻을
논리정연하며 상세하게 해설!

치밀한 구성,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
독창적인 사상체계로 중관, 유식, 여래장 등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회통하며
대승(大乘)의 대의(大義)를 논하는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 『대승기신론』



최신간

大乘起信論 講解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지음
416면
값 22,000원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
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大珠禪師語錄
대주선사어록
강설(상·하)

(상권)
돈오입도요문론
頓悟入道要門論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문인참문
諸方門人參問
280면 18,000원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 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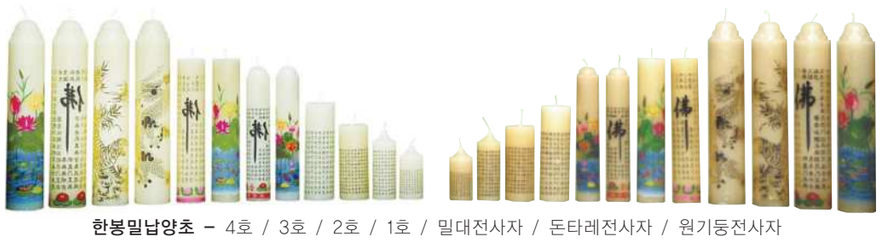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흑백사진에 담긴 제주 불교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옛 관음사 전경 등 200점 전시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이 9월~17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1936년 관음사 전경

(주)제주불교신문(대표이사 성효)이 제주불교 근현대사 100여 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을 연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이 9월 17일까지 제주도문예회관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50여 점의 흑백사진은 제주불교의 100년사가 기록된 흑백필름의 리얼리티를 통해 제주불교의 역사와 선사들의 삶, 문화를 조명하고 향후 제주불교 100년의 혜안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불교는 "제주불교 100년 역사에 남을 흔적들을 고스란히 엮었다. 섬지역 특성상 제주만의 독특한 불교문화를 기록해 왔던 제주불교의 발자취와 사부대중들의 수행 흔적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불교 역사의 중흥조 안봉려관 스님, 도내 대덕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의 수수했던 모습, 각 사찰의 발전과 신도들의 변화 모습, 보물 불탑사 오층석탑의 변화 모습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진집도 발간된다. 사진집에는 전시에 사용됐던 사진에서 200여 점을 추가해 좀더 생생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제주 불교계가 주도한 1918년 법정사 항일항쟁 주역들, 그리고 각 사찰별 사진과 도내에 법문을 설하기 위해 내도했던 묵담 스님, 제주불교의 중심축이 됐던 룸비니불교학생회, 대불련, 제주불교법우회 등 신행단체, 불교장례 및 결혼식, 교계 복지시설, 봉축탑 변천사 등 제주불교 100년을 아우르는 사진들이 총 망라됐다.

한편, '절오백 당오백'이라 불렸던 제주는 타 지방에 비해 전통적으로 불교의 교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 그러나 18세기 초 이형상 목사가 사찰 및 불상을 훼철하는 등 지독한 배불정책으로 약 200여 년간 무불(無佛)의 암흑기를 맞이한다. 이후 안봉려관 스님이 해월굴에서 터를 잡고 1908년 관음사를 창건하면서부터 새로운 중흥기에 접어들었다. **정혜숙 기자**

다양한 불상 안에 담긴 인간의 향기

이재윤 작가 '인향'展… 9월 25일~10월 1일 불일미술관



이재윤 작가

"불교 조각이라 하면 대부분이 근엄한 모습을 떠올리죠. 카리스마 자비 온화함 등이 담긴 불상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인간적인 불상은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불상 안에 인간의 향기를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근엄함은 유지하되 좀더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그런 표정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재윤 작가의 2회 개인전 '인향(人香)'이 9월 25일~10월 1일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수휴척리' '석가모니' '대세지보살' '동진보살' '수월관음' '달마' '한산습득' 등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부조와 환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수월관음과 달마 시리즈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할 것이다. 수월관음시리즈는 청동에 채색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환조 한 점과 세 점의 부조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광배를 배경으로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 부조상은 청동에 금분으로 표현돼 성스럽고도 아름다운 이미지를 자아낸다. 언뜻 보기에는 성모마리아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만 그 아래 선재동자와 구름 문양 등은 수월관음임에 분명하다.

또한 수휴척리 환조를 중심으로 25점의 달마 부조 또한 주목할 만하다. "좀더 대중적인 작업을 해보고 싶어 달마 시리즈를 부조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표정을 담아 대중들이 좀더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저도 작업을 하는 동안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렇다. 그의 작품은 기존 불상의 형상에서 변형을 가해 젊은 작가 이재윤의 작품세계를 표현해낸다.

대전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 이진형 작가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상 조각 속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그의 진로까지 바꾸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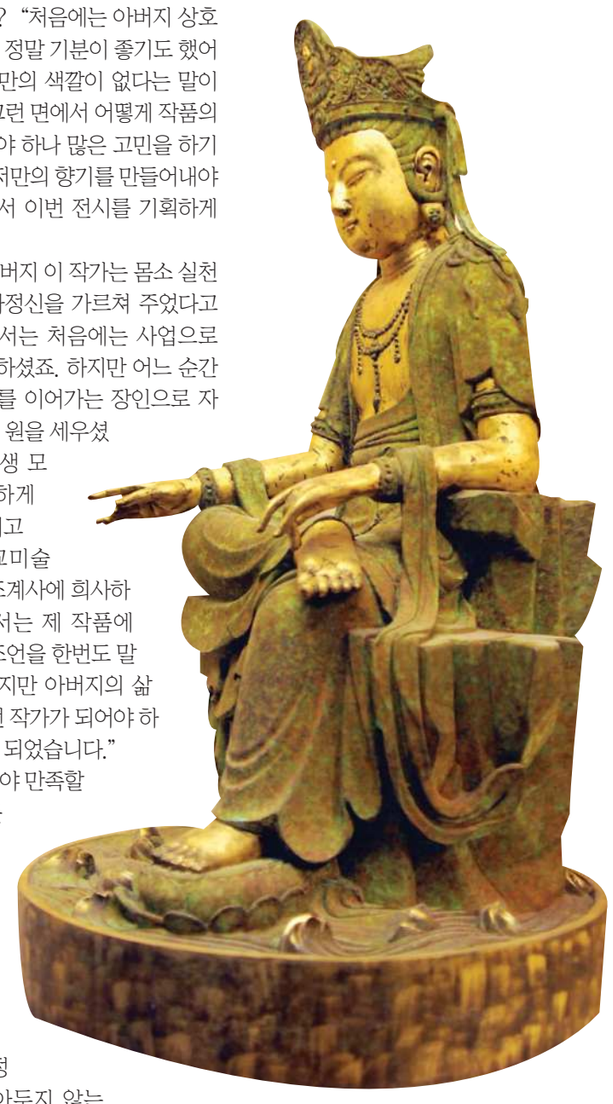
"원래는 무역학과나 경제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고3 때 진로를 바꿔 불교미술을 전공하게 됐어요. 전통문화를 이끄는 일로 대를 이어가고 싶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제 자신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남들보다 늦었기에 어려움이 많았죠."

청동에 채색·금분 입힌 부조와 환조
수월관음 · 달마 시리즈 주목
부친 이진형 씨와 삼부자전 계획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중국에서 불교조각을 공부하고 돌아온 작가는 지난 2010년 1회 전시를 연 바 있다. "당시, 아버지는 물론 법련사 현호 스님, 간송미술관 최완수 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아 개인전을 열 수 있었어요.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낸 전시였죠. 이번 전시는 제가 기획하고 구상한 작품들이 전시된다는 점에서 저의 향기가 들어간 첫 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불교조각장이자 아버지인 이진형 작가가 이재윤 작가에게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었을까? "처음에는 아버지 상호를 닮았다는 말이 정말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저만의 색깔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작품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저만의 향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아버지 이 작가는 몸소 실천하는 삶으로 작가정신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사업으로 불상조각을 시작하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장인으로 자리를 잡고 싶다는 원을 세우셨죠. 이후 저와 동생 모두 불교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진불교미술관 등 전재산을 조계사에 희사하셨어요. 당신께서는 제 작품에 대해 이렇다 할 조언을 한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삶을 통해 제가 어떤 작가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월관음. 청동에 채색

모든 것을 비워야 만족할 만한 상호가 나올 만큼 작가의 마음과 작품이 비례한다는 불상 조각. 부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즐겁고 밝게 살며 근심 걱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긍정적 삶의 자세는 그의 작품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작가는 그렇게 불상의 다양한 모습에 그의 향기를 담아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고 있었다.

한편, 불교조각장 이진형 작가와 아들 이재윤 이재석 작가는 올 연말 삼부자전을 기획 중에 있다. (042)934-846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원효대사' 제작 모금액 1천만원 달성

현대불교 기사 게재 후 후원자 몰려…내년 9월 개봉 목표

김선아 감독의 다큐 영화 '원효대사'가 제작비 마련을 위한 1차 모금액 달성을 이뤘다. 7월 26일부터 후원모금 사이트인 텀블벅에서 시작된 모금은 5백만원 선에서 멈춰 있었지만 지난 9월 3일 현대불교 인터넷 사이트에 기사가 게재되면서 후원자가 급속도로 밀려들었고 5일 만인 9월 7일 1천만원 목표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은 '원효대사'의 자문을 맡은 미국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와의 인터뷰 장면

김 감독은 "현대불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사를 읽은 경남의 정목 스님 등 후원자가 몰리면서 1차 목표가 빠르게 달성됐다"며 "제가 하는 작품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후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김 감독은 영화 제작을 위한 후원자와 후원기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재미교포 김선아 감독은 불교를 넘어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 원효 스님의 사상과 삶을 다큐영화로 제작한다. 내년 9월 개봉을 목표로 한 '원효대사'는 원효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 존재론적 문제에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주고자 한다.

정혜숙 기자

깨달음의 열쇠 '만다라'로 희망 전하고자

9월 25일~10월 1일 공평 아트갤러리서

"만다라는 우주의 중심을 의미하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행복과 평화를 전해줍니다. 깨달음의 눈을 가진 열쇠, 문화의 아이콘 만다라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 빛의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동휘 스님의 해피코스모스만다라 대전이 9월 25일~10월 1일 인사동 공평 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해피옴' '우주의 중심' '마법의 눈동자' 등 200여 점의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스님은 "우주의 중심은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빛의 길 대우주의 에너지와 하나되어 원이 성취되는 과정을 푸른색과 오색으로 표현했다. 마법의 눈동자는 대우주를 상징하는 5개의 원인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과 소우주를 상징하는 3개의 사각형 신(身)구(口)의(意)가 빛으로 하나되어 운명을 바꾸는 빛나는 수레바퀴를 의미한다"며 작품을 설명한다. 여기에 대우주를 탄생시키는 빛과 소리의 씨앗 '옴'과 삼독에 물들지 않는 원을 성취시키는 옴마니반메훔을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퍼포먼스도 이루어진다. 해피옴 시연, 해피스타 군단 발대식, 참가 대중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만다라 그리기 등이 열린다. (02)736-0108

정혜숙 기자



동휘 스님 作 '우주의 중심'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 12절(소)달력
2,000부 이상 @ 800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사이즈입니다.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수첩달력 200부 이상 650원
• 2000부 @60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450원
• 2000부 @400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찬불가
시명스님
스님은 다수의 방송 출연과 대구불교교육원, 부산불교교육대학, 영축불교교육대학, 동국불교대학등 여러 불교대학에서 찬불가 및 불교음악 등의 강의를 맡았으며 해인사, 불영사, 관음사 등 여러 사찰의 합창단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현재 부산 청은정사에 주석, 여러 불교대학에서 강의 및 집필과 작곡, 좌선, 명상 등 독락(獨樂)에 빠져있음.

CD1
1. 집회가
2. 삼귀의
3. 찬불가
4. 보현행원
5. 청법가
6. 사흥서원
7. 산회가
⋮
17.성도재의노래

CD2
1. 관세음보살
2. 당신의미소
3. 부처님은 이르시네
4. 성불을 위하여
5. 연꽃피어 오르리
6. 우리도 부처님같이
7. 진리의 빛
⋮
16.홀로 피는 연꽃



시명스님 찬불가
CD1/CD2
₩6,500
해설 · 가사책 수록



작은 영기좌도 여래의 장엄한 영기화생 드라마

靈氣座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연화좌(蓮華座)→영기좌(靈氣座) ㊦



작은 금동불이라 하더라도 앞서 다룬 고구려 벽화에서와 같이 가능한 한 갖가지 영기문을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옛 장인들은 연꽃 모양에 온갖 영기문을 부여하여 영기꽃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전혀 다른 차원으로 조형화하여 여래나 보살을 화생시켰다.

여러분! 여래와 보살은 단지 연꽃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작은 금동불은 영기좌를 단순화 했지만, 복잡한 예를 들어 설명하려 한다. 실은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여래를 화생시키는 것은 바로 꽃의 씨방=보주이다. 여래와 보살은 막연히 연꽃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방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꽃은 씨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연꽃모양일까?

모든 꽃은 씨방이 자루 모양인데 연꽃만이 원추형(圓錐形)이어서 그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원추형 씨방에서 구체(球體)나 타원체(楕圓體)의 씨앗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인 씨앗을 형이상학적으로 변형시켜 보주(寶珠)로 인식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엄격히 본질적으로 말하면 여래의 보주화생(寶珠化生)이고, 영화된 꽃잎은 다만 보주화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인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연꽃잎만 보아왔다. 그 까닭은 씨앗=보주 씨앗과 보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잎에 갖가지 영기문을 부여하여 씨방과 더불어 강력한 영기꽃을 형성한다.

드문 예이지만 통일신라초의 금제불상 영기좌(靈氣座)를 살펴보면 왜 그런 용어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총 높이는 불과 21. 8센티에 불과하니 대좌의 높이는 6센티미터 가량 밖에 안 되는 작은 작품이다.(그림 ①-1) 영기좌를 각도를 달리하여 보면 놀라운 도상을 볼 수 있다.(그림②-1)

5년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통일신라 불상 특별전을 열었을 때, 이 작은 작품을 살피다가 대좌를 찍고 사진을 확대하여 보고 깜짝 놀랐다. 이리저리 각도를 달리하여 대좌를 찍어두었다가 이번에 선묘하고 채색분석하니 감회가 깊다. 영기좌 전체를 채색분석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그림②-1)

기단부에는 투각한 단순한 영기창(靈氣窓: 안상이 아니다)을 통하여 기단부 전체가 무한한 우주 공간인 허공을 상징하고 있다. 혹은 영화된 물[靈水]이 가득 찰 수도 있다. 한 가지 색으로 도금한 것이므로 채색분석해 보아야 한다. 하대(下臺)의 연꽃잎마다에는 복잡한 조형이 있다.

우선 제1영기싹을 면(面)으로 한 형태가 연이어 있으며 그 사이 중앙에 큰 보주가 있고 그 보주에서 생긴 무량한 작은 보주들로 가득 차 있다. 즉 무량보주의 영기화생이다.

그 잎 모양 사이마다에서 잎 모양이 아닌 형태가 나오는데 입체적 양감이 대단하다. 즉 이 꽃잎 역시 막(膜) 같은 얇은 잎에 영기를 한껏 불어넣어 영화(靈化)시킨 것이다. 중대(中臺)에도 영기창이 새겨져 있는데 투각하지 않고 수많은 작은 보주들을 새겼다! 이것은 '우주에 충만한 생명력 가득찬 무량한 보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상대(上臺)의 연잎마다에도 하대에서와 같이 무량보주의 영기화생을 나타냈다.(그림②-2)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씨방이 화생하는데 씨방 안에는 씨앗=무량보주가 화생하고 있다.

즉, '이 전체의 조형은 무량한 보주가 영기화생하는 조형이지 연꽃 대좌가 아니다.' 바로 이런 영기좌(靈氣座)에서 여래가 영기화생하는 것이다. 영기좌를 보면 오로지 무량보주의 영기화생이라는 실상(實相)이 있을 뿐, 연꽃이라는 것은 허상(虛像)에 불과하다. 상대(上帶)의 조형 전체를 잘 보이도록 올려다본 것을 다시 채색분석해 보면 전모를 더욱 확실히 파악해 볼 수 있다.(그림②-2)

매우 드문 영기좌이지만 이 예로 보아 다른 모든 불상의 예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다른 예들은 이러한 도상들을 생략한 셈이다. 마침내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영기문들이 분명히 보이니 여래의 장엄한 영기화생의 드라마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가.

채색분석해 보면 영기좌의 실상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내 스스로 큰 충격을 받는 동시에 희열을 느낀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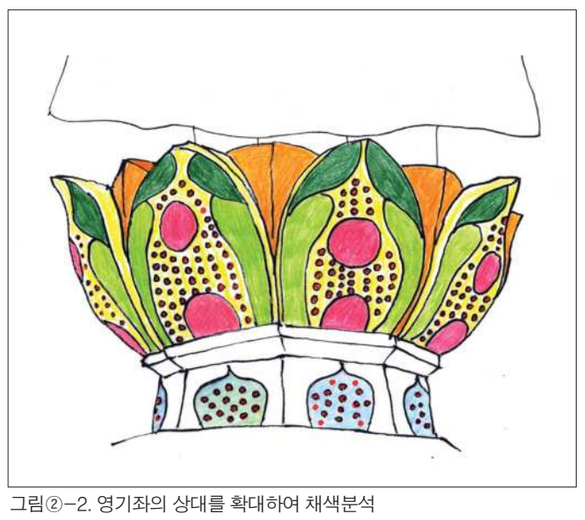
그림①-1 통일신라 금동여래입상. 언뜻 보면 대좌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림①-2. 영기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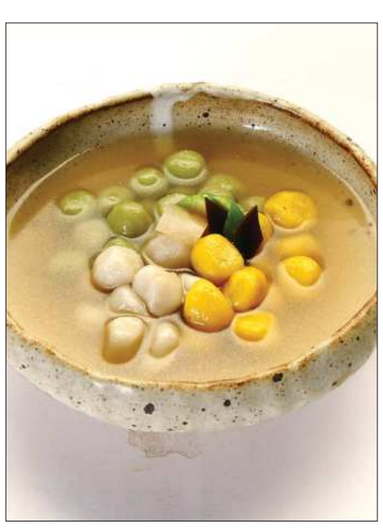
그림②-1 영기좌 전체의 채색분석



그림②-2. 영기좌의 상대를 확대하여 채색분석

藥이 되는 사찰음식

토란탕에 연잎밥으로 심신 맑히자



삼색 토란탕

△재료(4인 기준)

○ 토란 400g, 찹쌀가루 4컵, 소금 1/2큰술, 새송이 버섯 1개, 표고버섯 2개

○ 치자가루, 녹차가루

○ 다시마 쌀뜨물 국물 5컵, 된장 1큰술, 들깨가루 4큰술, 국간장 1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토란은 잘 씻은 후 쌀뜨물에 담궜다가 찜솥에 찌거나 쌀뜨물에 삶은 후 껍질을 벗긴다.

② 삶은 토란을 곱게 으깬 다음 찹쌀가루와 천연색소를 넣어 반죽을 한 후 새알심을 만든다.

③ 쌀뜨물에 다시마를 담궈 1시간 정도 우린다.

④ 다시마 쌀뜨물 국물에 된장 1큰술을 푼 다음 새송이와 표고버섯, 새알반죽을 넣어 끓으면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들깨가루를 넣어 끓여 낸다.

연잎 영양밥

△재료(4인 기준)

○ 연잎 4장

○ 멥쌀 1컵, 현미찹쌀 1/2컵, 흑미 2큰술, 은행 20개, 밤 10톨, 대추 10개, 호두 10개, 밤콩 1/3컵, 인삼 2뿌리,마 100g, 연근 100g, 서리태 1/4컵, 소금 1/2큰술, 참기름 1큰술

△만드는 법



① 멥쌀과 현미 찹쌀은 각 각 깨끗이 씻어 충분히 불린다.

② 부재료인 콩류는 삶아 준비하고, 은행은 볶아서 껍질을 벗기고, 대추, 밤, 호두, 인삼, 마, 연근은 사방 1cm 정도의 크기로 깍둑썰기 한다.

③ 냄비에 멥쌀과 현미 찹쌀, 콩을 넣어 밥을 짓다가 물이 자작해지면 나머지 부재료를 넣어 밥을 뜸을 들인다.

④ 연잎에 영양밥을 놓고 사각모양으로 접어 넣어 김 오른 찜통에 1시간가량 찐다.

토란은 추석 전후로 가장 맛 좋아

추석 전후로 가장 맛이 좋은 토란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의 운동을 원활히 해줘 변비에 좋고 수산칼륨성분이 함유돼 타박상이나 어깨 결림에 좋다. 토란 줄기를 짠 즙은 독충에 쏘였을 때 발라주면 잘 나으며 토란에는 수산석회가 많아 아려서 먹기 힘들고 체내에 축적이 되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토란 요리를 할 때는 먼저 쌀뜨물에 삶아 떫은 맛을 없앤 후 다시마를 넣고 요리를 하면 각종 유해 성분을 제거하면서 영양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다시마의 감칠맛은 토란을 부드럽게 해준다. 토란을 삶아 찹쌀가루를 넣어 새알심 요리를 해도 좋으며 삶은 토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끓여 먹어도 좋다.

옛부터 연잎은 불로식이라 하여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여 왔는데 심신을 맑게 하고, 정력을 좋게 하며, 피를 맑게해 주며, 어혈을 제거하고, 하혈을 멈추는 효능이 있다. 또한 연잎은 더위를 풀고 체내의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하며, 어지럼증, 만성자궁염, 대하증, 몽정, 야뇨증에 좋고 또 항균작용과 혈압강하작용을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여기에 다양한 곡류, 두류, 견과류 등을 섞어 밥을 지어 쪄먹게 되면 영양적으로 아주 훌륭한 별미로 냉동보관 하였다가 쪄 먹어도 좋다.

다양한 잡곡이 들어가는 밥에는 반드시 약간의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잘 어우러지게 된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아신 수완나
명상 힐링 캠프

명상힐링으로
스트레스도 비우고
깨달음도 경험해 보세요

일 시 : 2013. 9. 28(토)오후 2시~29(일) 오후 3시까지
장 소 : 법보종찰 해인사 길상암 적멸보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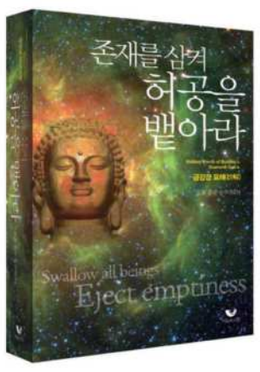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간편복
힐링교본 : "해탈 그리고 닙바나" (법보시 증정함)
프로그램 : 고통알기와 비우기/나를 바로보기/멈춤과 관찰/깨달음 체험하기/내안의 부처만나기
(힐링캠프에 동참하신 분에게 수료증 수여)

수행지도 : 아누다야선원장 수완나스님
수행유나 : 심원사 주지 삼무스님

입 재 비 : 1인 5만원
접 수 처 : 길상암 종무소 : 055) 932-7268
계좌번호 : 농협 843173-51-026991(예금주:길상암)
접수마감 : 2013. 9. 27까지

법보종찰 해인사 길상암 감원 광해 합장

이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 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Swallow all beings Eject emptiness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妙解
묘봉운륵 송주(頌注)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조사선으로 푼 漢·英·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 혜암(惠菴) 선사의 법을 이은 묘봉 스님(대전 죽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게송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英·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頌注)를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 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바로보인

알고 있는 '청정본각심' 실천하기

〈淸淨本覺心〉



규봉 종밀과 법성교학

신규탁 지음

올리브그린 펴냄

3만2천원

'법성교학(法性敎學)' 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발굴해낸 저자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한 데 모아 단행본으로 엮었다.

'법성' 이란 인간 내면이나 세계 현상 속에 본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완전한 작용' 을 일컫는데, '완벽한 작용' 은 인식능력과 윤리적 판단 그리고 윤리적 행위 등을 담고 있다.

" '법성교학' 의 마음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다만 무시이래의 무명 '번뇌' 로 인해서 그 지혜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법성교학' 에서는 수행의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내 자신에게 본래 '지혜' 가 있음을 자각하고, 그런 다음에(또는 동시에) '번뇌' 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법성교학' 의 수행이론이다."

저자는 책에서 '법성' 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철학 체계 속에서 재해석하고, 그것으로 중국 화엄사상, 선불교, 정토사상을 비판적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또한 인간의 다양한 사유 활동을 현재적 시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당나라 화엄학승이자 동시에 선종사 연구자인 규봉 종밀(780~841)의 철학을 기본 골자로 삼고 있다.

종밀은 '청정본각심(淸淨本覺心)' 을 인정하는 입장에 서서 당시 선종의 '무심' 사상을 비판한다. 종밀이 사용하는 '무심' 의 말뜻은 '마음이 없다.' 가 아니고, '마음에 번뇌가 없다.' 또는 '마음의 번뇌를 없애다.' 이다.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그 결과, 번뇌 작용의 힘이 '업(業)' 을 유발시켜 결국 인간을 괴로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며,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그 결과, 번뇌 작용의 힘이 '업(業)' 을 유발시켜 결국 인간을 괴로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불교의 본래적인 입장으로 교학에서는 물론, 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의 남종이나 북종을 막론하고 모두 '무심' 할 것을 요구한다. 종밀의 생각은 선종이 그저 '무심' 만을 말할 뿐, '무심'이 된 뒤에 나타나는 ' 청정본각심 '의 작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종밀의 골자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저자는 종밀의 비판에서 비롯된 철학을 골자로 삼고 있는 것이다.

책은 모두 18편의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말' 을 시작으로 '맺음말' 로 끝을 맺었다. 그 사이에 본론은 모두 4부로 구성했다. '머리말' 에서는 중국 불교를 연구하는 저자의 학문적 시각이 드러나 있고, 마지막의 '맺음말' 에서는 미래를 위한 제안을 했는데, 법성교학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신행 생활을 재조명하고 있다.

4부로 구성된 본론 중, 제1부에서는 인도에서 들어온 외래 사상이 중국 고유 사상과 갈등하고 섞이는 양상을 다루었다. 유 · 불 · 도 3교의 각축을 시작으로 불교가 어떻게 중국 땅에 정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경의 번역과 해석, 그리고 목록의 제작과 대장경의 제작 등을 통해 중국적 불교의 시작을 알아볼 수 있다.



저자 신규탁

'완전한 작용' 일컫는 '법성' 재해석해

중국화엄 · 선불교 · 정토사상 재구성

삼교일치론 전개한 종밀의 철학 접목

한국 현실에 맞는 신행생활 재조명

제2부에서는 규봉 종밀의 교학 사상을 네 가지로 검토했다. 첫째는 인간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교학 이론의 측면에서, 둘째는 선종관의 측면에서, 셋째는 수행 이론의 측면에서, 넷째는 의례의 양상 등을 각각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3부에서 논의할 '법성교학' 에 대한 실마리를 탐색한다.

제3부에서는 저자가 구축한 '법성교학' 의 제 양상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시도했다. 그리하여 종밀교학의 접점을 찾았고 그것이 화엄교학과 연결되는 양상 등을 상술했다. 제4부에서는 '법성교학' 의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 '법성교학' 의 입장에서 선과 정토 계율 등을 재해석 하고 있다. 책은 불교 '연구' 를 넘어, 불교 '하기' 를 담은, 실천적 불교철학서이다.

규봉 종밀(780~841)은

중국 당나라의 고승으로 화엄종의 제5조이다. 유교, 도교를 불교의 입장에서 정의하여 삼교일치론을 전개했으며, 원각경을 세상에 알린 공적이 크다. 그의 사상은 송학(宋學)의 원류가 되기도 했다. 한편 화엄종은 그의 후계자가 없어 5조에서 법통이 끊겼다.

저자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는

한국 불교계의 '철학적 논객' 으로 잘 알려진 저자는 1994년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중국철학과에서 〈규봉종밀의 '본각진심' 사상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화엄철학, 선불교, 중국철학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선학사전〉(공저),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 〈화엄의 법성철학〉, 〈한국 근현대 불교사상 탐색〉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벽암록〉, 〈성과 문학〉, 〈원각경〉, 〈화엄과 선〉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우주생명에너지 나누는 '레이키' 사용설명서

레이키 힐링 핸드북

미카오 우스이 · 프랑크 아르지바 페터 지음
김병채 · 박애영 옮김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펴냄 | 1만3천원



"레이키는 약물이나 힐링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체의 아픈 부분을 바라보고, 입김을 불고, 쓰다듬고, 가볍게 두드리고, 접촉하는 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이것이 질병을 힐링합니다."

마카오 우스이 박사가 창시한 레이키(靈氣 Reiki) 힐링 요법의 손 자세를 소개하고 있다. 신체의 특정 부위와 이상 증상을 힐링하기 위한 손 자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놓은 〈우스이 레이키 힐링 핸드북〉이라는 실천편이다.

레이키란 우주의 생명에너지 자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수이 박사에 의해 체계화된 힐링 시스템을 말한다. 레이키는 손을 이용한 힐링 요법으로 우주의 생명력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우주의 생명력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이것이 자신의 손을 통해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 여러 부위에 차례로 손을 가져가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면 그 에너지를 받은 사람의 신체 주변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회복되는 것이다.

핸드포지션 사진 첨부해

독자들이 알기 쉽게 만든 핸드북

책은 레이키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고 레이키의 힘을 훨씬 잘 이해하게 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마카오 우스이 박사의 힐링의 토대를 가능한 한 완전한 방식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레이키의 불교적 배경', '레이키의 3대 축', '호흡', '힐링 기법' 이라는 네 개의 장이 포함되어 있다.

레이키의 힘은 자신이 필요한 곳을 정확히 찾아가지만, 사람들이 영감을 따라 자신의 손을 가게 하여 힐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마카오 우스이 박사의 직관을 이용한 일본식 힐링은 '우리가 정확하게 작업하면 할수록 그 결과가 자연스레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독자들이 선명히 알 수 있고 쉽게 힐링할 수 있는 핸드북을 제공하기 위해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핸드 포지션을 찍은 사진을 삽입했다. 이러한 핸드 포지션들은 내부의 모든 장기들 뿐만 아니라 내분비선 전 체계를 다룰 수 있고 신체적 수준, 정서의 수준, 마음의 수준, 마음의 수준 에너지의 수준 등 모든 수준의 힐링에 도움이 된다. 독자들은 수련을 하면서 도움말이 필요할 때도 이 핸드북을 참고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4 ~ 9/10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육조단경 (고우 스님 강설)	고우	조계종출판사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8주 나를 비우는 시간	마크 윌리엄스	불광출판사
7	이것이 간화선이다	무비	민족사
8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9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남궁선	운주사
10	불교의 미를 찾아서	이찬훈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삶의 지혜 전달하는 〈도덕경〉 해설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김기태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3천원



"나는 이제부터 도(道)를 말하고자 한다. 도란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언어나 문자에 담을 수 없는 도를 나는 이제부터 언어나 문자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노자의 도덕경을 해설한 책이다. 2007년 발행되었던 초판의 개정판이다. 여느 해설서들과는 달리 도덕경을 '나' 에 관한, 내면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다. 〈도덕경〉을 정치나 처세에 관한 글이 아니라, 시종일관 도(道)라고 하는 참된 진실과 완전한 자유의 길을 이야기하는 경전이자 지혜의 책으로 읽고 있다. 이런 관점과 독법으로 인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신선한 통찰과 깊이 있는 해석을 볼 수 있다.

노자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도덕경〉은 〈노자〉라고도 한다. 성립연대에 관해서는 이설(異說)이 분분하나, 그 사상 · 문체 · 용어 등에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한 사람 또는 한 시대의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BC 4세기부터 한초(漢初)에 이르기까지의 도가사상의 집적(集積)으로, 선진시대(先秦時代)에 원본 〈노자〉가 있었던 모양이나, 현행본의 성립은 한초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후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 상편 37장, 하편 44장, 합계 81장으로 정착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노자 사상의 핵심은 형이상적(形而上的)인 도(道)의 존재를 설파하는 데 있다. 도는 곧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진리의 다른 이름이 곧 도라고 보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풀어 참된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자는 흔히 말하는 도(道)가 일면적 · 상대적인 도에 불과함을 논파하고,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새로운 도를 제창했다. 천지(天地)보다도 앞서고,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적 존재이며, 천지간의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이를 성립시키는 이법(理法)이다. 다시 말하면, 대자연의 영위(營爲)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 도이며, 그 도의 작용을 덕(德)이라 했다. 이런 의미에서 도와 덕을 설파하는 데서, 노자의 가르침은 도덕(오늘날의 도덕과는 다름)으로 불리어 〈도덕경〉이라는 별명이 생기게 되었다.

〈도덕경〉은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어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었다. 그동안 천 여 종 이상의 주석서와 해설서가 나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종이 넘는 〈도덕경〉 해설서가 출간되었다. 그러나 지은이마다 해석이 천차만별인 까닭에 명쾌한 해설서를 찾아보기 어렵다. 〈도덕경〉은 영원한 진리와 완전한 자유를 전하는 경전이며, 상징과 은유로 가득한 글이기 때문이다.

이번 해설서는 문자 풀이에 그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이야기들, 선사들의 어록과 행적, 안데르센 동화 등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다채롭게 설명한다. 저자 자신이 겪은 경험들, 그동안 저자의 도덕경 강의를 통해 자유와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박재완 기자





‘진속불이’의 미학으로 바라본 절집 성보



불교의 美를 찾아서

글 · 사진 이찬훈
담앤북스 펴냄
1만5천원

사찰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불상이나 탑이다. 많이 보기는 했지만 막상 감상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오면 막막할때가 있다. 물론 감상법은 정해진 정답이 없다. 하지만 가장 흔한 방법은 모양이나 쓰임새에 방점을 두고 사용된 재료나 재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원적 ‘아름다움’에 무게를 싣는 것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 감상하려면 이런 양식이 변화되고 발달해온 역사까지 짚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흔히 양식사(樣式史)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불상이나 불탑 혹은 성보 건물에 대해 아름다움(美)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불상이나 탑 너머에 있는, 종교적 발원서 시작돼 심미안을 거쳐 친근함과 진실을 추구했던 과정을 하나하나 짚는다.

햇빛이 비쳐 들면 황금빛으로 변하는 화강암 옷을 입은 서산 마애삼존불, 질서가 없는 것처럼 입구에서부터 이곳저곳 드문드문 서 있는 운주사의 수많은 석불과 석탑, 그리고 최근에 장인의 손길을 거친 부산 석불사의 불상과 보살상까지…. 저자는 일관되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올곧이 한국인의 심미안이 만들어낸 불교예술의 아름다움을 찾는다. 중국 철학자 이중톈은 그의 책 〈미학강의〉에서 “미학은 철학의 검을 사용해서 예술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서양철학을 전공해서 학위를 따고 대학에 자리 잡았지만 꾸불꾸불한 우회로를 거쳐 사상적 전회를 이룬 뒤 동양미학, 불교미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저자가 불교와 미학을 만난 것은 낯설지 않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불교에서는 종교적 목적을 떠나 순수한 미적 가치 그 자체를 창조해 내려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학, 미술, 건축, 음악, 무용 등 여러 예술 형식을 빌려 불교의 진리와 윤리를 표현하려 하는 가운데에는 미적인 가치들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을 것이고 이런 미적인 다양한 예술적 형식으로 불교의 진리와 윤리를 나타낸 모든 것, 또는 불교의 진리와 윤리적 가르침을 밝히는 가운데 미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불교예술’로 명명할 만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예의 불교가 정착된 지역이 그렇듯 각 지역의 불교예술은 그 지역마다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저자는 밝힌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화엄철학’이다. 우리나라에서 불화와 불상으로 그려지거나 조성된 부처님과 보살은 대부분 대승불교 가운데서도 화엄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절의 법당에 모셔지거나 산하 곳곳에 새겨진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미륵불,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은 모두 〈화엄경〉에 등장하거나 화엄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보살들이다.



한국최고의 석불로 꼽히는 ‘서산마애삼존불’

화엄철학 예술로 승화된 사찰 조명

170여 컷 사진 발로 뛰며 담아

자연스레 저자가 직접 발로 밟았던 지역이나 렌즈가 포커스를 맞췄던 곳도 이런 화엄철학이 예술로 승화된 절집 곳곳이다. 하지만 이런 화엄철학은 예술사상사적으로는 결국 중생과 부처님이 둘일 수 없다는 진속불이의 미학으로, 표현에서는 한국인의 심성에 맞춰 자연주의의 미학으로 거듭났다.

이 책에 실린 답사지는 물론 170여장의 사진들은 저자가 직접 이 땅 곳곳을 밟고 담아냈다. 흑백과 컬러가 혼합돼 담겨진 사진들은 저자가 그곳에 멈춰서 하루 내내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시로 찾았다가 발견해 낸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이미 한 차례 개인 사진전을 가졌던 저자는 처음에는 강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가 아닌 마음이 담겼다’고 말한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인 ‘불교와 미학’에서는 한국의 석가모니 불상을 살펴본다. 2장인 ‘빛 그리고 무한, 비로자나불과 아미타불’에서는 우리나라 불교사상의 주류는 화엄불교였으며,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화엄경〉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많이 조성돼 신봉되어 왔음을 밝혔다.

그리고 4장인 ‘진속불이의 미학 : 가장 한국적인 우리 민중의 부처님’에서는 우리 불교예술 속에 녹여진 진속불이의 미학과 운주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곳곳서 발견할 수 있는 민중적이고 한국적인 불상의 모습을 조명한다.

마지막 5장인 ‘한국불교의 자연주의 미학과 불국토’에서는 한국불교의 중요한 특색 중 하나인 자연주의 미학과 불국토 사상에 대해 얘기하고, 그러한 사상을 잘 나타내 주는 여러 곳의 불상 및 불탑이나 반야용선의 모습, 그리고 불국토를 지키는 위엄 있고 용맹한 사천왕상 등을 고찰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템플스테이’ 이것만은 꼭 알고가요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남궁 선 엮음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템플스테이(templestay)는 말 그대로 ‘사찰의 생활방식을 따르며 일정 기간 사찰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을 벗어나 잠시나마 사찰에 머물러 지내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바쁜 세상사에서 벗어나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즉 템플스테이는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휴(休)’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회다. 또한 전통사찰은 한국의 대표적 정신문화인 불교문화와 선인들의 정신세계가 그대로 축적된 특별한 장소다. 따라서 템플스테이는 불교의 귀중한 정신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깊이 돌아보고 자기 삶의 방향을 다시 성찰하고 고양시킴과 동시에,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켜켜이 쌓인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뛰어난 ‘힐링캠프’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책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사찰의 전통문화, 그리고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담은 상징, 의례, 경전, 수행법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풍부한 사진과 다양한 그림은 독자들을 지루하지 않게 불교의 세계로 안내해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뿐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한국의 불교문화와 교리, 사찰의 생활 등을 재미있게 이해하는 안내지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은 먼저 템플스테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나서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통해 정리한다. 이어 한국불교의 역사와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론에 해당한다.

이어 본론 내용은 12주제로 나눠 하나하나 소개한다. 먼저 ‘사찰예절’에서는 절에서의 마음가짐, 언어와 행동, 절에서의 예법, 법당 예절, 식사 예절, 스님에 대한 예절 등 사찰에서의 전반적인 예절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셋째는 ‘사찰의 조형물들’, 즉 깃발을 매는 당간지주,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 있는 탑,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석등, 야단법석 때 불화를 거는 괘불대,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는 부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넷째는 ‘사찰의 벽화’이다. 벽화는 대개 그림의 주제를 나타내는 제목이 화폭에 적혀 있기에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팔상도, 십우도, 달마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

다섯째는 ‘사찰의 도구’들, 즉 범종, 법고, 운판, 목어로 구성된 불전사물과 염불이나 절을 할 때 사용하는 염주, 목어에서 유래한 목탁, 수행을 지도하는 도구인 죽비, 금강령(요령)과 금강저, 경쇠 등의 모양과 역할 등에 대해 얘기한다. 여섯째는 ‘불교의 상징물’에서는 만(卍)자 문양, 원이삼점, 법륜, 불교기 등의 불교도형과 연꽃, 용, 물고기, 사자, 코끼리 등 동식물의 모양과 의미를 조명한다.

사찰에서의 예절 전반적 소개

조형물에 담긴 의미도 설명

일곱째와 여덟째는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인 ‘저녁예불’과 ‘도량석 및 새벽예불’에 대해 소개하고 각 예불문 원문과 번역을 실었다.

아홉째 ‘사찰생활’에서는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에는 울력(공동노동), 다도, 절(백팔배), 사찰의 식생활, 안거, 탑돌이, 연등 만들기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열번째는 불교에서 행해지는 각종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불보살의 가피를 구하는 기도와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알려진 참선수행, 믿음과 발원으로 부처님을 염하여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불, 경전을 읽고 독송하는 간경과 독경, 경전을 쓰고 책으로 펴내는 사경과 인경 등이 있다.

열한번째 ‘예불문과 경전 해설’에서는 사찰에서 아침저녁으로 독송하는 예불문과 반야심경, 천수경을 원문, 번역문과 함께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들은 그 분량이 짧지만 우리나라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한국의 불교문화와 정신을 압축하여 담고 있다.

김주일 기자

삶에 지친 이들에게 내리는 인생처방전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순일 스님 지음 | 여래 펴냄 | 1만5천원



삶에 지친 이들에게 세상은 수많은 처방전을 제시한다. 배우자, 자녀, 친구나 직장내의 인간관계에 대한 것에서부터 인생과 더 깊게는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인간의 삶을 포함한 모두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영적 스승들은 한결같이 ‘모든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 ‘너의 내면의 욕구를 뒤돌아보라’ ‘명상하라’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되돌아가라는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관념이고, 에고이고, 의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야말로 이 세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그리고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것이다. 그 해법을 저자는 부처님에게서 찾는다. 저자는 이 책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뭔가 바라는게 있는 갈등하는 사람이 얽매이는 법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얽매이고 사물에 얽매이고 환경에 얽매이곤 한다. 그런데 자기고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마당에, 타인이 자기보다 더 진실되게 자기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서로 바라는 것이 없는 독립적인 관계일때, 그 사이는 가장 자유롭다. 내 자신이 주인인데 왜 구속하고 묶는 것일까”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또한 ‘타인을 바꾸려 하는 것’ 편에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한 처방전을 제시해 준다. 저자는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의 생각을 자기식대로 바꾸려고 한다. 친구 사이에도 그러하고 부모자식간은 물론 연인관계에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 것이 바로 갈등의 시작이다. 상대가 에고 없는 깨달은 이라해도 누군가의 틀에 맞춰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서로 바뀔 수 없음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임을 말이다.” **김주일 기자**

“시련이 닥쳐도 마음의 여유는 잃지 말자”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신천희 지음 | 하나의 책 펴냄 | 1만2천원



요즘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떠올려보자. 대학생은 취업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직장인은 쌓여가는 업무에 치이며, 가정주부는 육아와 집안일에 몸과 마음이 지친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었는가? 어차피 살아야 할 삶이고 걸어야 할 길이라면 짜증으로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행복을 선택해 즐거운 인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

강아지와 새, 나무, 들꽃에 둘러싸여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소야 스님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의 유쾌하면서도 맑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지친 마음을 감싸준다.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 입나, 술 사 먹지.’ 스스로 땡추라는 저자가 늘어놓는 술타령은 수많은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다. 술타령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자는 것이 저자의 메시지. 스님이라고 해서 저자가 따뜻한 위로만 건네는 것은 아니다. 삶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기발한 상상력이 더해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에서 저자는 때로는 따끔하게 지적도 하고 부드럽게 설득을 하며 독자에게 지혜를 선물한다.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며 공연기획자이자 전북 김제 무주암에서 수행하는 스님인 저자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만나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스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은 함께 생활하는 강아지와 산사 주위의 새, 꽃, 나무 등 자연 속에 있다. 이 세상에 스승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저자는 말 못 하는 강아지지만, 쉽게 시들어 버리는 들꽃이지만 이들과 부대끼고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사에서 쌓인 삶의 무게를 벗어 던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김주일 기자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강경과 정치철학 ㊦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훌륭한 정치가의 자질 갖춘다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라는 집단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집단을 내세우는 정치철학은 인류를 불행으로 이끌었다. 성불의 주체가 개인인 것처럼 정치의 주체도 어디까지나 개인이다.

금강경 속 사상해방

금강경 제5품 ‘여리실견분’에는 “있는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만일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여래를 보리라” 하는 사구게가 나온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상을 내려놓으면 대 자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고통에 시달리고 부자유하게 산다. 제 생각 속에 누에고치 같이 집을 짓고 머문다. 마음을 비운 사람의 경지는 고려말기 나옹선사의 선시에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청산은 날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라는 시가 그것이다.

나라를 책임지는 정치가가 마음을 비우고 고정관념을 버리면 그 국토의 민생이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중국개혁의 설계사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사상해방,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기치를 내걸고 마오쩌뚱 치하에서 가난에 찌들던 중국을 개혁해 오늘날 미국이 인정하는 G2 강대국으로 부상하도록 했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 사회는 끊임없이 혁명해야 한다는 마오쩌뚱 주의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덕분이다. 북경정권을 세운 뒤 사회주의 중국이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데 50년이 걸렸다. 사람이 마음에 머무르는 바가 있어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생각의 노예가 되고 창조적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인에게나 집단에게나 머무는 바 없이 모두 내려놓고 자유롭게 놓아두는 게 중요한 이유다.

성불과 정치의 주체

금강경 6품에는 법에 대한 뗏목의 비유가 나온다.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여래를 보리라”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보리 존자는 “어떤 중생이 있어서 말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부처님은 “미래에도 오랫동안 상을 짓지 않고 부처님 처소에서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무량복덕을 지을 것이니 그런 사람은 아 · 인 · 중생 · 수자상, 그리고 법과 법 아니라는 상도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며 이를 뗏목에 비유하셨다. 공부하는 사람은 4상과 법상, 비법상 등 어디에 붙들려도 다시 아 · 인 · 중생 · 수자상에 빠진다. 그래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사람은 건넌 다음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비유를 했는데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할 것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불하는 주체와 정치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불교와 정치철학의 중요한 개념과 만나게 된다. 이는 개인이 주체인가 집단이 주체인가 하는 문제다. 제6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持戒修福者)의 주체는 개인이고 성불하는 것도 개인이다. 부처님의 설법도 개인과의 문답 형식이고 부처님은 일음(一音)으로 설하시나 중생이 근기에 따라 달리 듣는다.

당나라 때 조주스님의 선문답에서 나온 무(無)자 화두는 불성이 어디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한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없다(無)”고 답변했다. “부처님은 일체중생에게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 열반경)고 하셨는데 어째서 없다고 하십니까?”라고 반문했더니 조주스님은 “업식성(業識性)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냥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업식성을 버리지 못해 없다는 것이니 논리적 답변이기도 하다. 간화선에서는 이 선문답에서 무자 하나만을 화두로 삼아 머리로 분별하지 말고 의심이 타파될 때까지 사무치게 의심하라고 가르친다.

중국 강대국 부상은
시장경제의 고정관념 버린 덕분
‘상을 버리라’는 금강경 사구게와 상통

만일 조주스님에게 “인간 집단에도 불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다면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 조주선사의 답은 역시 “없다(無)”일 것이다. 19세기 이래 세계는 개인 대신에 국가, 민족, 계급 혹은 정당 등 집단주의적 생각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성불의 주체가 개인인 것처럼 정치의 주체도 어디까지나 개인이다. 정치가 집단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서로 관점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의사표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개인이다. 집단도 집단을 대표하는 개인이 뜻을 모아 결정을 내린다. 개인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모든 기초가 무너진다. 민족주의운동과 전체주의운동 속에 매몰되었던 서구 지성사에서 개인의 중요성을 철학적으로 확립한 것은 덴마크의 사상가 키엘케골(Soren Kierkegaard)을 시작으로 나타난 실존철학과 니체였다.

집단에 의존하면 개인은 익명으로 숨을 수 있고 집단적 이기주의 속에 매몰될 수 있으므로 집단은 진리와 거리가 멀다. 반면 창의력과 도덕적 책임의 원천은 개인이다. 그러한 개인의 활력이 넘치는 사회는 발전하기 마련이다. 개인이 집단 속에 매몰된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개인이 전체라는 이름 속에 매몰되었던 나치즘 치하의 독일, 군국주의 치하의 일본, 그리고 계급독재 치하의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국가들이 어떠했는가를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는 법구경 말씀이나 “자기 마음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는 열반경 말씀은 정치의 세계에도 그대로 통용되어야 한다. 집단은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집단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주의는 다른 사람과 집단을 자아로 삼는다는 점에서 금강경에서 경계한 인상, 중생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아상의 변형이다.

반야-정치적 판단력과 리더십

금강경은 최고의 지혜인 반야를 다루고 있다. 금강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 글귀로 된 게송, 즉 4구게는 이런 반야를 압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4구게를 비롯한 금강경 구절을 남에게 설해주면 어떤 물질적 보시보다도 공덕이 크다고 누누이 설하고 있다. 앞에서 제5품의 4구게를 말했는데 이번에는 제10품 장엄정토분의 4구게를 보자.

정치와 불성의 주체는 개인
집단 내세우는 정치 인류 불행 초래
‘반야지’ 닦으면 정치적 통찰력 나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라는 부처님의 물음에 수보리 존자가 “아닙니다. 세존님, 보살은 불국토를 장엄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어 부처님은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 받을 것이니 색에도 마음을 머물지 말며 성, 향, 미, 촉, 법에도 머물지 말지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고 설하신다. 육조단경은 이 구절에서 육조 혜능 대사가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음속이나 마음 밖이나 어디에도 마음을 머물거나 잡아두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말씀이다. 이 구절은 판단력과 지도력과 관련이 있다. 우리들의 삶은 판단의 연속이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먼저 갈까. 누구와 언제 만날까.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 등등 일상생활은 매 순간마다 판단을 요구한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에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외모로 상을 보고(身), 말하는 것을 보며(言), 글쓰기를 보고(書), 마지막으로 여행 등을 함께하면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판단력을 본다는 것이다.

국가와 같은 공동체 일을 맡은 사람은 자기의 판단이 수많은 생명들의 행복과 안위와 관련돼 있으므로, 정확하고 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판단력의 요체를 말해주고 있다. 어딘가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고 마음을 비워야 전체적이고 종합적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판단력 비판을 쓴 칸트(Immanuel Kant)는 우리가 맞닥뜨린 특수한 현실 상황에 보편적 원리를 연결시키는 능력을 판단력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보편적 원칙이나 공식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공식을 적용해 문제를 풀면 되지만, 보편적 원리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그림이 아름다운지 어떤지를 판단할 때는 이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미적 판단력은 칸트가 말한 취미판단(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의 기저에 놓여있다. 아름다움에 관한 미적 판단은 어떤 관심과 욕구도 없으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며, 인간의 보편적 미감을 감촉으로 느끼는 판단이다. 촉이 온다고 하는 것과 같다.

아렌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정치적 판단에 적용해 설명하고 있다. 정치적 판단은 연극에서 관객과 같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나 적극적인 무관심성이 유지될 때 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취미판단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연극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도 감독도 아니고 바로 관객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은, 연극을 보는 관객의 입장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금강경의 말씀과 같이 보시, 지계, 인욕 등 6바라밀을 행하고 마음을 무심한 상태에 놓아두어야 한다. 금강경을 통해 반야지혜를 닦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일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가의 자질로서 정열, 책임감, 통찰력을 들었는데 여기서 통찰력은 반야의 지혜와 통한다. 그에 의하면 통찰력이란 내적 침착과 평정심으로 사물과 인간에 대해 거리를 두는 습관이다. 정치에 대한 정열만 가지고 쉽게 흥분해 일을 그르치는 단순한 정치적 아마추어와의 구별이 바로 통찰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베버는 정열적인 정치가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찰력이라고 보았다.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금강경의 사구게를 터득하면 훌륭한 정치가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금강경과 정치철학은 한뿌리

이상은 “금강경과 정치철학” 강의내용의 일부이다. 머리말에서 언급한대로 진리에는 두 가지, 즉 승의제와 세속제가 있다. 금강경은 최고의 진리, 즉 승의제로 인도하는 경전이고 정치철학은 세속의 진리에 관해 논한 것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의 한 마음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효성사는 일심을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의 두 문으로 나누고, 두 문은 각자 자기만을 지키면 안 되고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진리세계와 현상세계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일심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여는 옳고 깨끗하다 하여 자기를 절대화 하지 않고, 자기의 법상(法相)을 버림으로써 생멸문으로 나가 속세와 교섭한다. 그리고 심생멸문은 자기의 고향인 일심 속 진여와 소통하여 일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의 진리를 설하는 금강경과 세속의 이치를 논하는 정치철학이 서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 승적원부(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임명장,사찰등록증,발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禪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 문의: (02) 959-1825
대한禪報신문사 문의: (02) 962-3467
불교종단사업부 문의: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의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홍익범패단 신입생 모집

기초과정 3개월
염불소리(천수경, 반야심경) 동음, 독경, 지도,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사찰운영법, 신도관리법, 각종예절법, 불교의 개론, 초발심 자경문

중급과정 3개월
종송, 도량석, 조석예불, 사시불광, 목탁불공, 신중불공, 시다림, 방생, 산신불공, 향수해례, 사성례, 거불, 상용영반(기제사), 봉송, 봉안게

상급과정 6개월
대령, 관욕, 신중청,39위, 상단, 지장청, 관음청, 삼보통청, 시련, 옹호게, 다게, 헌좌게, 행보게, 천도재, 사십구재, 각종의식 고혼소

특수과정 1년
불상점안, 생전예수재, 괘불이운, 수륙재, 설주이운, 다비식, 매장, 화장, 각종축문, 이장

작법과정 1년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나비춤), 도량게, 다게

모집인원 각과정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3년 12월 중
개강일시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개강후에도 수시접수하여 12월까지 마감
제출서류 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2장
교육기간
① 기초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② 중급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6시 (2시간)
③ 상급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④ 특수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2시간)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에서는 승려후보, 예비스님을 위하여 원하시는 종단 알선과 대덕큰스님을 은사로 소개하고 사찰, 창건의 지도와 수계 득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강주이신 민지효 스님께 전화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010-4466-3575)

장소 : 김해불교문화원 3층법당 / 주소 : 경남 김해시 흥동 7-5번지

한국불교홍익범패단
전화 055)345-0211 / 불교문화원 055)322-0088

삼 보 양 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 (대) 1박스 20개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9만원
3) 밀대 (중) 1박스 50개 8만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 9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번호 : 615-82-71773 (한국불교재단)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010-5789-6630
사업부계좌 : 농협 302-0587-1926-11 이창민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 사업본부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혜로운 이는 주의 깊게 마음 챙김으로써 방일한 삶을 물리치고
지혜의 누각에 올라 근심없이 슬픈 중생들을 내려다 본다.
산 위에 오른 현자가 산 아래 어리석은 이들을 바라보듯이.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010-8677-2861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우울증,각종심리치료와 최면의 전과정 실기위주 속성요점 강의
• 배웠으나 활용 안되는 분 환영
• 교재 제공 (7회 완성) 출장가
•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부산 현불사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아 미 타 선 원
서울 강남,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사주카페 동업하실
보살님 구합니다
010-4633-4575

사주학 성명학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빠른 이해 강의
용신 및 격국 중점강의
통변과 실전을 겸한 강의
수강문의 010-3711-5072
(수도권, 영남권)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빙의 치료 영가 퇴치
가출 청소년 치료
그 자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1-887-1894
010-7166-8873

포교원, 사찰 같이
불사하실 분 모십니다
(경북 봉화군)
* 땅은 현재 있음, 스님 및
무속보살님도 환영
011-717-53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김해)
011-9514-3721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여 정진할
도반 및 비구니
스님 모심
010-4924-372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748-3004

기도, 수행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기 안산, 포교원)
010-9036-21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부부도 환영)
010-8576-4450

조계종 노스님(비구)을 공양받들 신심있는 공양주 구함
그리고 토굴삼아 암자를 관리 운영하며 평생을 수행처로 여기며 살아 줄 40~50대의 비구니스님을 찾고 있음.
(경북 큰절 산내암자)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전세구함
신도가 어느정도 있는
도심사찰 한만기
살았으면 합니다.
지역,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010-4668-1284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불사 함께 하실 분
주지스님,
사무장, 공양주를
모십니다
(부산)
051)248-2090

사 과 문
효당 유가족에 따르면, '김상현 엮음'으로 발간한 비매품 '효당 최범술 문집'은 효당 유가족의 자료 제공으로 김상현이 마련한 원고이며, 효당 유가족이 '효당 문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김상현 엮음'이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고, 불찰로 인해 효당 유가족의 동의절차 없이 간행한 점을 효당 유가족에게 사과드립니다.
– 박태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미륵존불, 불사를 도와주십시오
경봉스님 반야심경 1점, 월하스님 글씨 3점, 석주스님 글씨 2점,
서경보 스님 글씨 3점, 일타스님 글씨 2점,청광선생 탈마, 독수리 병풍 2점.
(천경자 선생그림 1점, 중광스님 그림 1점 – 이조시대 탱화2점, 250년 이상)
위의 작품 15점을 불사에 큰 인연으로 도와주시고
설판하여 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경북 054)853-3855
시주보시금 : 국민은행 622-24-0064-982 /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천은사 보리수 나무
나무 굵기 50 ~ 60cm, 나무크기 5 ~ 6m
꽃피고 열매 맺음. 보리수 열매 둥글게 맺는 나무.
보리수 염주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내외로 키웠습니다.
총 14그루, 그루당 400만원
010-2280-4800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0-1
054)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수륙영가천도
조상영가 태아영가 천도
부산 ↔ 일본오사카
일본오사카 ↔ 부산
우환, 우울증, 신경쇠약, 불면증, 비만, 알콜중독,
가족갈등, 변비, 악몽, 가위눌림, 중풍, 치매, 암예방 등
모든 어려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수륙천도재
선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관광이 아니고 천도가 목적임. 좋은 일이 일어남.
특 강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천수경 특강을 들어보시면
불교수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상 제사 잘 모시는 방법 지도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풍수지리 수맥탐지 정 태 철
010-2797-1633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불교 TV 꿈바위 활동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점심식사, 쌀, 라면 보시자는 기도해 드림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성냄은 독의 근본, 그래서 성냄을 없애고 인욕을 실천하는 사람을 모든 성인은 칭찬한다.

– 잡아함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양산 사찰 안내

- 총부지 : 약 1250평
- 법당 40평, 요사채방 10칸
- 산신각 및 다수
- 사찰뒤에 큰암산, 앞마당 계곡물 철철
- 버스 진입가능, 텃밭 300평
- 양도가 은행 5억 안고 5억에 인수

신도시 사찰안내

- 총부지 : 1200평(남향)
- 대웅전(목조) 24평, 삼성각(목조) 6평
- 요사채(슬라브 2층) 방6칸
- 백화점, 법원 300 M
- 총 양도가 : 9억 8천(절충가능)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포교원안내

- 위치 :해운대 시립미술관역 2번 출구
- 평수 : 60평 (여유 도량 40평 별도 사용가능)
- 구조 : 법당 1개, 방 3개, 화장실 2개, 창고 1개, 공양간, 다용도실
- 집기 시설 완벽
- 교통 : 버스정류장3분거리,지하철역1분거리
- 주변 시설이 편리하고 아파트 밀집 지역.
- 보증금 :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시설비 있습니다.

010-9380-7195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귤암리 202번지
- 규모 900평
- 가액: 평당 4만원 (40000)

011-286-7371
033)563-1666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군
- 평수 : 3000평 (800평 정도 부지 만들어져 있음)
- 도로 있고 정남향 경관좋고 옆에 계곡 있음
- 사찰, 전원주택, 교육시설 최적지
- 가액: 2억 7천만원

010-9368-96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포교원임대
- 6층이며190㎡ 시설완비
- 보증금4천만원에월7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시내중심가 위치좋음
- 즉시법회가능함

010-7347-1010(사찰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천마산 감천동 아파트상가 2층 약 60평
- 큰법당, 공양간, 샤워실 방3개
- 시설 특A급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800만원(조절불가능)

010-7576-1727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천하명당 강화 마니산
- 경관 최고 바다보임
- 임야 4100평, 건축 허가 200평
- 전기 수도 완비
- 가액: 답사 후 절충

010-7390-8575

암 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 평수 : 340평
- 건물 3동
- 공항에서 10분거리
- 가액 : 7억

018-590-358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익산 미륵산하
- 평수: 약180평, 교통편리
- 삼존불,후불탱화,산신,칠성,신중.
- 주지실,상담실,차실,콘테이너2개
- 5층탑,미륵존불,주차장,전망좋음
- 해좌사향, 왕산왕향
- 가액 : 4500만원

010-9288-6889

암 자 적 합

- 위치 : 경북 김천 대지 343평
- 퓨전한옥 30평(방3, 욕실2)
- 풍수전문가가 선정한 최고의 명당터
- 400여가구 면소재지 마을로 위쪽 한적한 곳
- 정남향, 원두막,황토방,텃밭 대형차 진입
- 스님 쉬는 공간, 암자, 선방 등 가능
- 시내에서 5분, KTX역 20분거리
- 주인직 3억3천만원(조정가능)

010-8477-497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 지하철 2 ~ 3분거리
- 조그마한 사찰 전세 및 달세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전화상담

010-5667-5453
010-3574-3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의정부역 5분거리
- 3층건물의 1층, 30평, 마당 20평 법당, 삼존불, 산신각, 영단, 친견실, 공양간, 방2, 화장실2
-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천500만원
- 즉시법회. 절충가능

010-3293-3079

임법당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대지 200평(문중땅)
- 건물 40평(지상권성립)
- 건물 5천 5백만원
- 법당 후원물품일체 2천5백만원
- 완벽하게 갖춰짐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010-6651-66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시설은 최상급
- 시설비 2천 5백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010-8339-55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월피동
- 평수: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662-55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서구 비산동 (구, 대영학원근교)
- 삼존불,후불탱화
- 보증금 2백, 월 20만원
- 시설비1천 5백만원

010-7292-2582
011-292-25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아흔아홉골내
- 대웅전, 삼선각, 2012년 단청
- 평수 10000평 1만평
- 평당 20만원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010-5362-3370

사 찰 안 내

- 경남 마산 합포구 진전면 소재
- 토지: 임야 5,820평(추가시 약 6,000평)
- 시설: 법당, 요사채, 산신각

"천년 기도도량으로 최고의 위치"

- 가액: 3억 5천만원

010-9440-78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아랫반송 대로변 3층
- 약 32평, 시설완벽
- 삼존불, 산신, 칠성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절충)

010-4414-03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하남시 천현동
- 건물 2층 건물에 2층
- 건평 74평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뒷편 대로변
- 방3, 법당1, 주방1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협의

031)791-9022

임 법 당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시 지례
- 평수: 130평, 임법당 35평
- 삼존불, 소불, 신중단
- 방3, 거실겸 주방, 화장실
- 마당에 잔디, 주차 5대가능
- 텃밭 11평
- 가액: 5천만원(가격절충)

010-2101-2522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내동 1번지
- 대구 동화사 근처
- 평수 366평
- 하천부지 포함 600평
- 가액: 2억 3천만원
-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729-4108

전원주택 및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남 합천군 합천읍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며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처
- 남성주 IC에서 5분거리
- 호텔 찜질방 연수원 3천평
- 구 삼성전자 연수원
- 평수 1600평
- 가액: 가격 절충

010-5919-7961

지리산토굴안내

- 위치: 구례 지리산 온천 부근 토굴
- 산속 475평 산수유나무사이에 20평 현대식 건물
- 화엄사TG에서 10분거리, 구례읍 15분, 남원 15분
- 마을에서 500미터거리, 아주조용
- 토지 안 마르지 않는 샘 2곳
- 양도가액 : 1억 5천만원

010-7242-0993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면적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5천

- 위치 : 충남
- 종교용지 : 33000평
- 산세수려
- 도로진입
- 가액 : 25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신 축 사 찰 안 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전세 6천만원
- 양도 : 3억 5천(대출금 1억 포함)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남해안 소재
- 토지 : 총 10,953평(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 : 납골추모관, 무량수전,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6동 주차장 완비
- 현재 추모관 성업중
- 가액 : 4억 8천만원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5444-080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사전동) (199평)
- 25평 건축허가
- 포장도로 접, 전기 마을에서 약 600미터 위쪽 한적한 곳
- 가액 : 3,500만원

010-3288-1317

도심속의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북구) 주차용이
- 1층 와가 방2칸 약 26~30평정도
- 법당 : 삼존불, 신중, 영가단. 산신용왕 별도
- 국유지(철도부지) : 사용료 내고 있음
- 6천 8백만원(조절가)

011-575-9707

터 안 내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화리
- 상면 소재지(서울에서 1시간거리)
- 서울에서 시내좌석버스 있음
- 버스도 진입가능한 도로 있음
- 가평군이 시(市)승격 예정지역
- 대지 170평 : 전(田) 265평 =435평
- 평당 70만원
- 사찰이나 요양원건립 최적지

010-9259-0108번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 2층 50평, 옥상, 지하 사용가능
- 삼존불, 지장, 신장, 산신, 용왕 탱화 소불 120불
- 대법당, 방1, 화장실 3
- 시설 비품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불경기에 시작하시는 꼭 하실분께
- 좋은 시설 드리고 싶습니다
- 월세는 상담 후 결정

010-2842-6532

포 교 원 안 내

- 대구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 방2, 화장실,도시가스 거실, 공양간(옥상사용가)
- 삼존불, 영단, 탱화 (산신, 용왕, 신중)
- 보증금 1천만원 / 월50만원
- 시설비는 이사비용정도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542-2227

사 찰 안 내

엽에 맑은물이흐르고 붕어와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는 공기좋고 아름다운절

- 대지 포함 1.000평
- 사과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있음
- 위치: 경북 예천
- 가격 : 몽땅 3억

011-861-62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8억 3천만원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울주군 소재 (울산대학에서 15분거리)
- 2층건물 (211평)
- 2층법당, 1층 요사책 (각 21평씩)
- 옥외공양간 15평
- 방생 및 산책로, 대중교통용이
- 가액: 3억 8천만원

010-7720-9406

포교원 및 쑥뜸방안내

- 위치 : 일산, 3층건물 중 2~3층 전부사용(90평)
- 보증금 없음, 월세 70만원
- 시설비 3700만원(절충가능)
- 일산 인구밀집지역
- 비구니스님, 보살님이 운영하기 좋은 포교원
- 쑥뜸은 의료행기가 아니므로 누구나 할수 있음

010-2899-1477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입구
- 4층, 승강기 이용, 총 83평 법당외 방 3개, 주방, 욕실
- 아미, 대새지, 관음, 칠성, 산신, 용왕, 나반존자 포대
- 화상, 소불 108불, 인등 칠보 500불, 에어컨3대
- 시설A급, 보증금 1500/월 50
- 시설비 3500만원

010-9798-1091
010-3870-3673
010-4880-1533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청주 남주동 • 3층건 3층
- 평수 약 100평, 법당 50평, 큰방 3개, 욕실, 사무실
- 삼존불, 요사채, 방2, 욕실, 주방, 3백등
- 집기시설 1억 이상 들었습니다
- 인연있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님께
- 전세 5천만원, 시설집기 3천만원에 드립디다.
- 임대기간은 10년이상, 옥상 방수 마음대로 사용
- 꼭 하실분만

010-5883-2255

이완명상·전두엽훈련 학교생활 즐거워져요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16〉 금강선원 청소년참선반


청소년참선반은 법문, 이완 명상, 즐거운 전두엽훈련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8월 17일 즐거운전두엽훈련 수업 장면.

참선 현대화한 명상지도 18년
지구력 집중력 높이고 습관 개선
성적 UP 교우관계 원만
지도자 양성 · 외부강의도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졌고 제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해 속이 타는 성격이었죠. 명상과 호흡법을 배우니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고 학교에 가서도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대하는 데에도 자신감이 생겼죠.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명상을 배워볼 생각입니다."

금강선원 청소년 참선반에서 여름방학 동안 명상을 지도 받은 안준영(고2) 군의 표정은 가벼웠다. 이처럼 청소년참선반은 참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명상지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길러주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

18년전 시작된 금강선원 청소년참선반은 현재 일요일 심화반과 방학기간 7주 기초 과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청소년참선반은 그 명성이 익히 알려져 현재 〈15분 집중법〉 〈명상으로 10대의 뇌를 깨워라〉 등으로 책이 출간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학생들에게 무상법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집중력 지구력을 길러 이를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그들의 생활습관을 바꿀 수 있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참선반은 크게 법문, 이완 명상, 즐거운 전두엽훈련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8년 동안 청소년참선반을 이끌어온 김우현 교사(서울 양재고) 등을 필두로 학생들을 위한 명상지도는 물론 명상지도자 양성까지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 금강선원 청소년 참선반이다.

김우현 교사는 결국 공부도 인간관계도 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명상이라고 강조한다. "요즘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부모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공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늘 긴장해야 하고 한숨을 쉬어 가며 억지로 학교와 학원을 오가죠. 명상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다 보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져 추진력이 생깁니다."

8월 17일 진행된 청소년참선반 학생들의 수업은 흥미로웠다. 전세계 정신과 학자들의 공동체인 미국 캘리포니아 파친 스트리트의 '나무대학'에서 제공하는 명상표를 중심으로 이완명상이 시작되었다. 한 달 동안 명상을 익힌 학생들은 그 어느때보다 진지했다. 그렇게 20분의 명상이 끝나자 잠시의 휴식 후 '즐거운 전두엽훈련'이 이어졌다. 보다 깊은 집중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인 즐거운전두엽훈련은 잔상훈련, 이미지 훈련, 듣기 훈련 등을 통해 학생들이 명상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송영화 양(중3)은 금강선원이 외부강의로 진행한 국제선센터캠프에서 명상을 처음 접하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완명상을 해보고 너무 편안함을 느꼈어요. 또 늘 저를 괴롭혔던 어깨결림도 풀렸어요. 집중력이 많이 약했는데 이제는 집중표를 보고 30분 정도를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집중력이 생겼죠. 또 꿈을 결정해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목표도 생겼어요."

권재웅(중2)군은 명상을 배운 이후부터 매일 20분 명상을 실천할만큼 명상의 매력에 빠졌다. "처음에는 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자세에 집중하니 몰입도가 생겼어요. 이전에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명상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올해부터 명상지도자 과정을 개설한 금강선원은 지도자양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상반기 국제선센터 외부강의 진행에 이어 10월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 가해 학생들을 위한 명상프로그램 등을 마련 명상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나갈 예정이다. (02)445-848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명상, 문제학생들 거뜬히 변화시키죠"

청소년 명상지도자 김우현 교사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소위 말하던 문제학생들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도하며 명상을 가르쳤는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마음을 열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대화하다 보니 아이들도 잘 따르고 명상을 통해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죠."

김우현 교사〈사진〉의 명상지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의 아이들은 꿈이 없었다. 하지만 꾸준한 상담과 명상을 통해 삶의 의욕을 찾은 학생들은 각자 제 길을 찾아 나섰다. "당시 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여서 학생들은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했어요. 아무런 꿈도 목표도 없었던 아이들은 저와 명상을 하며 마음을 치유한 후 미용사 네일케어 애견사 등의 자격증을 따 사회로 진출할 수 있었죠."

결국 아이들에게 존재감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이해해주니 스스로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에는 명상은 큰 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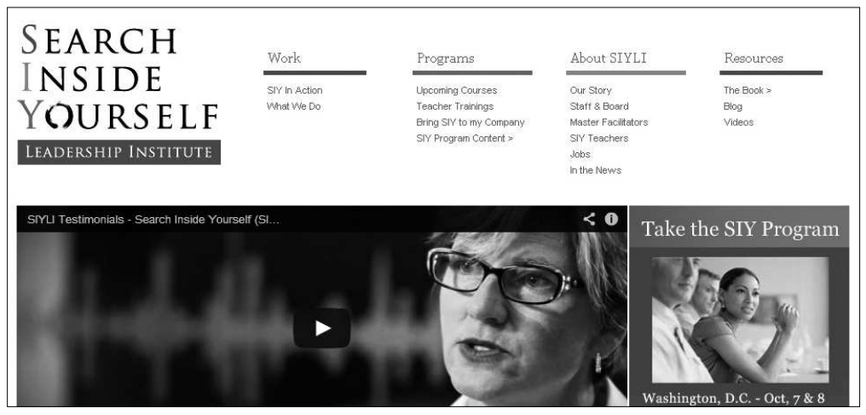
김 씨는 명상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해준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면 주변에 대해 너그러워질 수 있고 분노와 미움도 사라지게 되죠. 명상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워줍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마음경영으로 창의성·혁신 자극…생산성 극대화

〈14〉 구글 비영리법인 '내면검색 리더십 교육기관(SIYLI)'





구글에서 임직원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이끄는 차드 멍 탄(좌)과,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내면검색 리더십 교육기관(SIYLI, Search Inside Yourself Leadership Institute)' 홈페이지(우).

엔지니어 차드 멍 탄이 개발
신경과학자 · 심리학자 · 선승 동참
'온전히 집중' 반복… '선한 야망' 발전

최근 삼성 · LG계열사들은 임직원들이 전국의 명상 전문센터를 찾아 2~3일 씩 '집중 명상 교육'을 받고, 사내에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상실을 운영하는 등 '마음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직원들의 정서지능과 리더십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사실 이러한 '마음경영'은 서구지역에서 먼저 확산됐다. 다국적기업과 프로 스포츠팀 등이 '마음챙김(mindfulness)' 프로그램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

특히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은 2012년 비영리법인 '내면검색 리더십 교육기관(SIYLI, Search Inside Yourself Leadership Institute)'을 설립해 '마음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구글은 SIYLI에서 사내직원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고 마음 다스리는 법과 자존감 높이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해 이미 1000명 이상이 수강했고 1년에 4회 진행되는 강좌 신청이 시작되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명상으로 집중력 · 리더십 향상

내면검색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이끄는 사람은 차드 멍 탄(Chade-Meng Tan · 43) 씨다. 그는 2000년 구글에 입사한 초기 멤버로 검색 서비스 관리 부서에서 8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다.

'정말 유쾌한 친구(Jolly Good Fellow)'라는 타이틀을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괴짜로 알려져 있는 탄 씨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수년간 성공적인 경험을 쌓아오던 중 명상에 눈을 뜨게 된다. 이후 명상이 가진 놀라운 효과에 고무돼 구글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과학자들과 심리학자, 선승을 불러모아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개발 명상프로그램'을 2007년에 개발했다.

'내면검색(Search Inside Yourself)'이라 불리는 이 수업 프로그램은 초기에 구글 직원들을 대상으로 7주간 2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 수업을 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이전보다 감정조절이 쉬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으며 자신감이 높아지고 인간관계와 리더십 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윌리엄 조지(William George)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명상은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현재 일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고, 리더로서 동료와 협력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도 유익한 도움을 주는 수행법이다.

차드 멍 탄은 이러한 명상의 효과가 '집중력 향상→자기 감정 인식→자기 통제→자신감→리더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고 확신한다.

차드 멍 탄 씨는 그의 저서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Search Inside Yourself)〉에서 "어디서든 당신의 호흡, 즉 들이쉼과 내쉼에 딱 2분만 온전히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이걸 반복해 100분 동안 하면 변화가 생기고 100시간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며 "명상으로 연습하는 연민의 감정은 타인과 공감하고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다. 돕고 싶은 마음은 '선(善)한 야망' '겸손한 야망'으로 발전하게 되고, 좋은 리더의 최고 자질이 된다"고 강조한다.

차드 멍 탄 씨는 세계평화와 자유를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TAN TEO' 자선재단의 '정말 유쾌한 이사장'이며 창립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안겨줘 명상을 통해 깨달은 연민의 감정이 확산된다면 세계평화도 언젠가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원 · 관리자 · 임직원 과정 진행

현재 내면검색 수업은 16시간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2일 동안 참여하는 종일프로그램과 반나절 동안 4회에 걸쳐 듣는 코스로 나뉘어 있다. 또한 직급에 따른 업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웰빙과정 △관리자 과정 △임원리더십 과정으로 구분했다. 웰빙과정은 임직원 모두를 위한 것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마음챙김 수업을 제공한다. 관리자 과정에서는 팀을 이끄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감성지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임원리더십 과정은 경영진과 고위 지도자들이 명상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어머니와 딸에게 남편을 빼긴 여인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38)

연화색의 애욕 업장 소멸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계실 때다. 우선나읍에 어느 젊은 거사 한 사람이 연화색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게 되었다. 연화색은 마음과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다. 얼마 후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친정으로 거처를 옮겨 딸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아내가 해산을 했으므로 한 동안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의 어머니와 정을 통하고 말았다. 부인 연화색이 그 사실을 알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려 했다. 그러나 부부의 인연을 끊으면 부모에게 누가 될까 두려웠고, 또 젖먹이 아이가 가여워서 부끄러움을 꾹 참고 남편의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딸을 여덟 살까지 기르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나 바라내에 이르렀다. 부인은 오래 굶주리고 몹시 지쳤던 터라 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다. 이때 한 장자가 그녀를 보고는 한 눈에 들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인데, 혼자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아무개의 딸인데, 지금은 혼자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없으시다면 저의 정실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연화색을 부인으로 삼았다. 연화색은 그 집안을 두루 돌보며 모두가 화합하게 하였고, 서로 중히 여기면서 사이좋게 여덟 해를 살았다. 어느 날 장자는 그의 부인에게 말했다.

"나에게 우선나읍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거두어들이지 않은 지가 벌써 8년이나 되었소. 따져서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큰돈이 될 것이오. 한 동안 집을 비우고 다녀와야 할 것 같소."

"그 마을의 여인들이 방탕하다고 들었습니다. 여인들의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을 그런 곳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어리석지만 그 정도로 막나가는 사람은 아니오."

"그렇다면 가셔도 좋습니다만, 맹세 한 마디는 듣고 싶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정한 마음을 일으키지도, 행하지도 않을 것이오."

장자는 그렇게 부인에게 맹세를 하고 우선나읍으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한 장자는 돈을 거두어들일 곳이 많았기에 어느덧 해를 넘기게 되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낸 장자는 여인의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만약 부정한 음행을 한다면 본래의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다시 정식으로 첩을 들인다면 그것은 부정한 음행이 아닐 것이며, 맹세를 저버리는 일도 아닐 것이다."

장자는 그 후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내 구혼을 하여 둘째 부인을 얻게 되었다. 장자는 수금을 마치고 새로 얻은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부인을 따로 집을 마련해 살게 했다. 장자는 매일같이 아침이면 나갔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이상하게 여긴 연화색이 은밀하게 그의 몸종에게 남편의 행동에 대해 물어보자 몸종이 말했다.

"주인께서는 새로 작은 부인을 얻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남편이 돌아오자 연화색이 물었다.

"당신께서는 새로 작은 부인을 보았다던데 무엇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까?"

"당신이 알게 되면 나를 원망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밖에 따로 살게 한 것이오."

"제가 싫어하거나 시새움이 없을 것을 맹세하오니 작은 부인을 집으로 들여 당신 돌보는 일을 돕게 하십시오."

그러자 장자는 바로 작은 부인을 집으로 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부인은 머리를 감고 있는 작



삽화 · 강병호

은 부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작은 부인은 연화색이 고향에 두고 온 딸이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작은 부인의 모습을 살펴본 연화색은 결국 작은 부인이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옛날에는 어머니와 함께 남편을 나누었고, 지금은 딸과 남편을 같이하게 되었구나. 나고 죽고 혼미한 어지러움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애욕을 끊고 출가하여 도를 닦지 않으면, 이러한 뒤바뀜을 무엇으로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연화색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기원의 문에 이르렀다. 그때 세존께서는 마침 대중에게 에워싸여 설법을 하고 계셨다. 연화색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음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사에 들어갔다. 세존의 법을 들은 연화색은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싹 가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대중 속에 있는 연화색을 알아보시고, 사성제를 설하니, 연화색은 그 자리에서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의면서 법눈의 깨끗함을 얻었다. 연화색이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법 가운데서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바로 제자로 받아주시며 대애도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인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대애도 비구니가 이내 연화색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받게 하니 연화색은 부지런히 공부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8해탈을 갖추게 되자 얼굴 모습에 빛이 나서 옛날보다 훨씬 아름다워졌다.

그 후 연화색이 마을에 들어가 걸식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바라문 하나가 그를 보고 음심을 품게 되었다. 연화색이 뒤에 다시 걸식을 나갔는데, 그 바라문이 몰래 뒤따라 들어가 그의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 마침 철야정진을 마친 연화색은 방으로 돌아가 깊은 잠에 빠졌다. 이때 숨어 있던 바라문이 연화색비구니에게 부정한 짓을 하려 했다. 그러자 비구니의 몸은 이내 허공으로 솟아올랐고, 그 바라문은 평상 위에서 산 채로 곧바로 지옥에 떨어졌다. (〈미사색부화혜오분율〉 제5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㊳



역지사지 · 이심전심

아기의 울음소리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그치질 않았다. 계속되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나를 포함한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시작했다. 부산까지 길어야 한 시간이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승객들이 불편할 것을 모를 리 없는 아기의 엄마도 당황스럽고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모고 있으려니 불편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나도 젊은 시절에 아이 넷을 데리고 다녔고, 버스나 기차에서 같은 경험을 했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문득 지난 13년 전 쯤의 일이 생각났다. 미국 뉴욕으로 갈 일이 있었다. 나와 남편은 미국 뉴욕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밤이 되었는데 맨 앞좌석에 젊은 여인 두 사람이 똑 같은 어린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후 두 아기가 동시에 자지러지듯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기는 계속 울어댔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오래도록 계속됐다. 처음엔 걱정도 되고 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 되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앉은 부인을 보니 나보다도 더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자식 키워본 엄마가 '엄마' 마음 알아
나도 언젠가 '조상' 된다…잘 살아야

었다.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보니 일어난 짜증을 조금은 참을 수 있었다. 더 놀랐던 것은 옆자리에 앉은 그 부인이 아기를 받아 업고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기를 달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짜증을 냈던 내 마음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말로라도 한 수 거들고 싶어서 부인이게 물었다.

"아이가 어디 아픈가요?" 했더니 아이를 업은 그 부인이 "이 아이들이 외국에 입양을 가는 길이랍니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같은 마음이 들었다. 나와 남편은 잠을 잘 이루질 못했다. 꽤 긴 시간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고, 아기들의 기구한 사연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남편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뉴욕에 도착 했다.

그 두 여인은 아기를 입양자에게 인도하는 도우미였는데,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한다고 했다. 나와 남편은 그들의 짐을 찾아주었고 인사를 나누었다. 그 아기는 지금쯤 열 세 살쯤 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자랐을까? 문득 그 때 일이 생각났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짠하다. 태어난 땅에서, 나아준 부모 밑에서 살지 못하고 겨우 2달 만에 다른 나라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그 아이들이 궁금해졌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설움을 보면서 그 때 그 아이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부디 잘 커서 다시 고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했다. 그날, 그 아기의 울음에 그때 그 아기의 모습이 떠올라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로 가는 내내 '인연'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됐다. 세상엔 남의 일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특히 부모의 심정은 누구나 비슷한 것이리라. 그 옛날 먼 곳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기억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자식을 키워본 '엄마'의 마음일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선 긍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이해하고 마음을 내는 일이야 말로 '이타(利他)'의 시작이 아닐까.

조상과 후손

4월 보름이면 하안거 결제에 들어가고 기도 도량에서 는 백중까지 조상님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 영단에 조상 위패를 모시고 왕생극락을 발원한다. 그 옛날 우리들의 조상님의 모습을 뵌 일은 없지만 그 어른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내가 있음이니 당연히 모실 일이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한다. 지금 그 어른들의 영혼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모두 겁 다생으로 맺어진 인연들일 텐데.

모셔진 위패를 보면서 나와 인연 있었던 영가들의 모습을 기억하니 어찌 인연이 눈앞에 있는 인연만 인연일까 생각됐다. 기억하지 못하는 아득한 시절로부터 시작된 인연의 인연이 있음을 생각하니 지금 눈앞에 서있는 인연의 모습들이 가벼이 보이지 않음이다.

나의 이 작은 기도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정성으로 그들 영가들을 향해 합장하고 발원한다. 이미 좋은 몸 받아 좋은 세상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영가를 위해 더 나은 부처님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연 만나기를 축원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우선 내가 행복하다.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마치 숙제를 마친 느낌이라고 할까.

나 역시 언젠가는 후손들의 조상의 될 것이다. 이제 후손들에게 기억될 나의 모습에 마음이 쓰인다. 좋은 모습으로 살다 좋은 모습을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다. 2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첨부다라니경 기도문〉을 사경하시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 공덕으로 극락에 계실거란 믿는다. 기억에 남을 좋은 일 꼭 하나만이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이 70이 되니 주변에 경사보다는 조사가 더 많다. 가까운 인연들이 가을 낙엽처럼 한 잎 두 잎 떨어져 가고 있다. 나도 언젠가는 육신을 벗어야 한다. 누군가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라도 좋은 모습으로 살다 갈 일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1. 개강 : 2013년 10월 4일(금) 오후 1시
   2013년 10월 5일(토) 오후 1시
2. 4회 과정 선착순 각 5명 (수강료 120만원)
3. 누구나 쉽게 배우고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개인지도
1. 기문둔갑, 성명학, 빙의퇴마와 최면요법
2. 2명이상 지방출장지도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바로 내 집부터 중심에 주처를 세워 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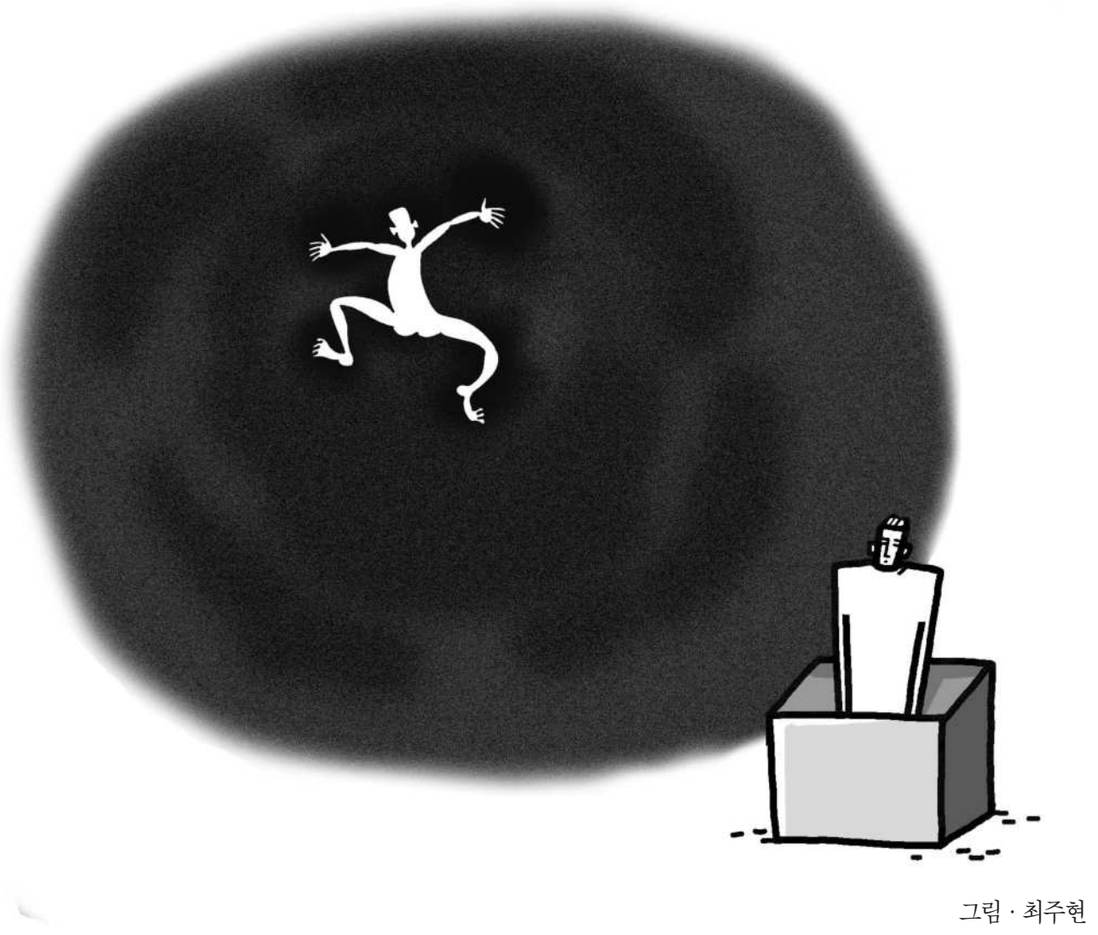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일체제불과 저와 여러 스님들과 더불어 같이 본래 한자리로 돌아갑니다. 더우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인데도 모두 그냥 '비 오거나 말거나 맞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오늘 역력히 보았습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하다가 정히 비가 와서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면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정성 여하에 달린 그 자신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것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장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스님들보다 더 신심이 돈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싸 가지고 돌아가는 우주 전체의 그 중심 주처가 우리들의 중심 주처이기도 합니다. 좀 작고 크고 이럴 뿐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기 중심 주처에 그 큰 중심 주처가 둘이 아니게 직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생활하는 그 곳에 바로 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직결이 돼 있고요. 만물만생의 마음 그 중심 주처,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마음들의 주처가 바로 우리의 마음 주처에 같이 가설이 됐다는 얘깁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일체 만물만생은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서로 뜻으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하시겠지만 근본으로 말미암아 일체가 다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도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바다의 소임자를 주해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의 관리인을 주산신이라고 했고요, 풀과 나무들의 관리인을 주림신이라고 했고요. 마음의 중심 주처라는 그 주가 모든 관리를 합니다. 갖가지 천차만별의 이름들이 다 주어져서 하나도 버릴 게 없이 그 소임을 맡아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신입니다. 그리고 또 주신들끼리 모여서 회담을 하거나 서로 통하게 하는 소임자를 주주신이라고 합니다. 천체가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중심 주처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처에 주인을, 이 몸뚱이가 집이라면 집 안에 주인을 하나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공부하지 않고 내 집이 빈집이라면,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업보성이라든가 인과성이라든가 윤회성이라든가 이 다섯 가지가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집 안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을 딱 세워 놓는다면, 중심에 주처를 세워 놓는다면 절대 바깥에서의 세균성이나 또는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업식이나 윤회성 업보성 영계성, 모두가 다 감히 그 자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안 세워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본래 있으나 자기가 생각을 해서 세워 놔야 세워집니다. 우리가 생명은 있지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몸이 움죽거려지지 않듯이, 생각이 있어야만이 몸이 움죽거리고 작용을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생각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모두가 생각이 있어야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생각이 없다면 아무리 전력이 태산 같아도 끌어 쓸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중심에 주처가 다 같이 직결이 돼 있고 연결이 돼서 가설이 돼 있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며 심성과학이며 철학이며 천체물리학이며, 모두가 종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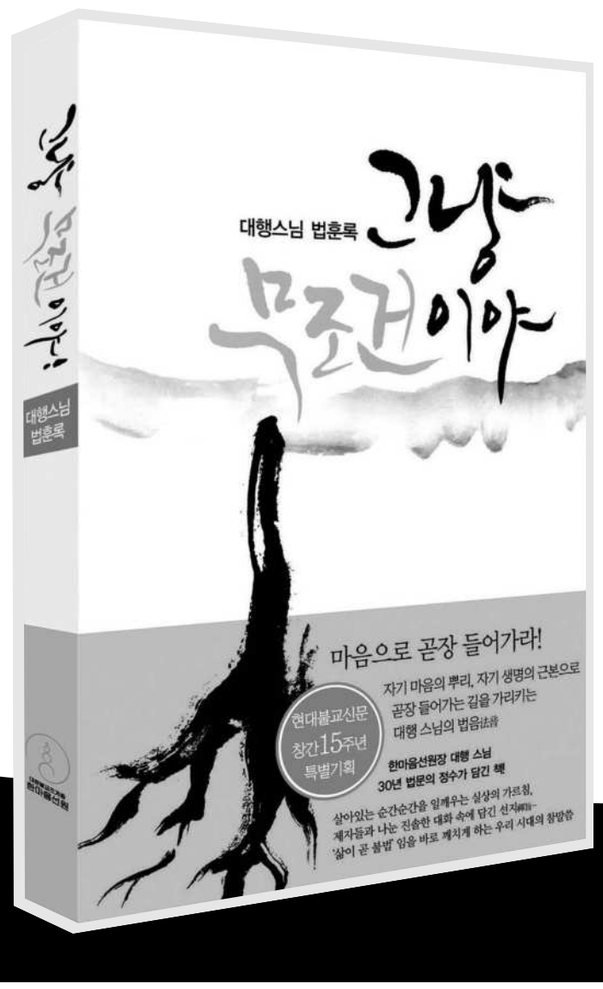
우리가 생활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무슨 상대가 있고 무슨 부처가 있고 무슨 세상이 있겠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 집부터 바로 중심에 주처를 세워 놔라' 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중심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을 모두 세워 놓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위로는 한 우주를 꿰고 아래로는 기둥이 딱 딛고 있어요. 꿰고 있다는 건 직결이 돼 있단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인공 뿌리, 주처는 움죽거리질 않아요. 움죽거리질 않고 힘만 배출하는 거죠. 힘을 배출한다고요. 축의 힘으로 인해서 수레가 걸림 없이 돌아가듯이 우리도 주처에 기둥을 딱 세워 놓는다면 그 힘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 몸뚱이가 작용을 하면서 수레같이 돌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인간이,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높고 낮고, 길고 짧고, 넓고 좁고, 크고 작고,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게 그냥 상대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주처, 주인, 주장자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주장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꿴 주장자와 내 주처의 주장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는 가설이 돼 있고, 위아래를 받치고 꿴 거는 같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세가 일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을 안 세워 놓고 그냥 가는 사람 다르고, 주인을 딱 집에다가 세워 놓고 가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항상 걸림 없이 집을 보도록 주인을 세워 놓는다면, 자기 주처를 세워 놓는다면 그게 바로 보현신이며 법신입니다. 자기가 세워 놓은 그 마음 자체가 부처라면 법신을 세워 놓고 화신, 즉 보현신을 세워 놓는다 이겁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세워 놓음으로써 바깥에서 악행, 즉 말하자면 인과성이나 윤회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이나 영계성, 이러한 잡다한 모든 영계들이나 유전에 의한 것들이나 어떠한 거를 막론하고 거기를 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한다고 주인공에 뿌리를 세워 놓은 거는, 세워져 있는데 내가 생각으로 찾아서 거기 세워 놓은 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거기다가 포함해서 돌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죠.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붙을 리가 없어요. 먼지 하나도 거기 붙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부처와 통하는 길은 내 내면의 뿌리 한 구멍밖에 없어요

☞ 29면에서 계속

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분에게는 번뇌도 붙을 자리가 없고 업보도 붙을 자리가 없고, 유전성이나 인과성 윤회성 업보성 영계성까지도 전부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만약에 빛으로 간다면 빠르기는 하지만 가는 곳만 보이겠죠. 그리고 빛으로 가다가는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도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한생각입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한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빛보다 더 빠른 이 마음은 가고 옴이 없이 땅속이든지 물속이든지 어디든지 그냥 한생각에 두루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대한 법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마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도록 마음을 넓혀서 지혜롭게 들으세요.

그리고 주인을 세워 놓지 않고 이 공부를 안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이 비었어요. 주인을 세워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숙명통 자체가 포함된 오신통을 지금 현대 말로 하자면 자동적인 컴퓨터라고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된다면 그 입력된 대로 가차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행이 저질러지거나, 윤회성이 저질러지거나, 영계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 말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몸뚱이 속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도록 돼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 것이 가차없이 자꾸자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인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과 직결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안 생기고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이고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빨리 대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치를 못하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현상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내 집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인과로써 영계가 드는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길에 오다가다가도 드는 수가 있습니다. 차에 치여 죽은 영계가 착을 두고서 그 자릴 떠나지 못해서 드는 수도 있습니다. 저 나무에, 즉 말하자면 목신이 돼 가지고서는 붙어 있다가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내 집이 비었으면 그 빈집에 자꾸 드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속에서 나오는 것도 많은데 빈집이 돼서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윤회성으로 들어오고 영계성으로 들어오고 인과성으로 들어온 것은 병원에 가도 어렵습니다. 그냥 몸에서 난 병이라야 병원에서도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유전으로 온다거나 영계성으로 온다거나 또는 바깥에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 집이라고 하고 사는 식구들이 한 집안에 둘 셋씩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내 집이라고 하며 살 때는 이 소리 하고, 또 딴 사람이 내 집이라 하고 내가 산다 하고 내가 제일이라 하고 살 때는 또 딴 소리 하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지면서 자꾸 내가 바뀌지니까 미쳤다고 하죠. 그리고 또 육신이 망가지죠. 첫째 몸이 망가져요. 부지를 못하게 하니까요. 나가라, 들어와라, 앉아라, 나가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이거는 견뎌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위의 식구들까지도 지망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들어오든 안에서 일어나든 살아가면서 유전이 돼서 들어오든, 마음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라고 하면 나라고 곧이듣는 게 인간입니다. 일체가 다 화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러는데 그렇게 윤회를 하면서 가져온 인과성은 때에 따라서는 삼촌으로도 나오고 할아버지로도 나오고 아버지로도 나오고, 뭐 뭐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러는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딴 것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름을 부르는데도 곧이듣게 돼 있습니다.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이 공부를 안 하시면 막고 대치할 수 있는 도리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긴 문제는 보이지 않는 데서 해결을 해야 하고, 마음과 마음이 인과성으로 벌어진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영계로서 벌어진 거는 영계끼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말입니다.

이러니 이 공부를 안 하고서야 어떻게 하겠느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고 너부터 그 본래 있는 거를 찾는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섭류를 네 자신이 잘 알 수 있으리라. 그럼으로써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그렇게 자유인이 된다면 네가 바로 부처고 네 한생각에 법신이 되느니라. 네 한생각에 법신이 된다면 바로 그 법에 의해 자유로운 작용이 스스로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면서 물러서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시대가 바뀌는 대로 순응하면서 우리 마음들이 대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세워야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옛날처럼 화두를 쥐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안방에서 세계를 보는 시대라 화두를 잡으면 아마 그냥그냥 빈 걸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출현한 자체가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출현했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부터 알아야죠.

나는 쑥 빼고 '부처님, 날 좀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내 병고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외쳐 봐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 봐도 그거는 끄덕도 하지 않고 통하질 않습니다. 통하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부처님과 통하는 길은 바로 내 마음속의, 내면의 털구멍 한 구멍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공부를 안 하고 주인공 주장자를 세워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장자를 세워 놓고 거기다가 모든 걸 놓고 굴려서 대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좋지 않은가 이겁니다. 나는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기도하란 말은 안 합니다. 집에서도 빌고 기도하란 말은 안 합니다. 단, 바로 자기 내면의 뿌리 털구멍, 한 구멍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놓으세요. 마음이 나오는 것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내 앞에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다 거기다가 '아, 당신이 다 하는 거니까 당신이 해결해!' 하고 '당신이 대치를 하고 당신이 화목하게 할 수 있어. 지혜롭고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이야.' 하고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다 놓고 꺼낼 때는, 내가 주인공에다 탁 놓고서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즉 자기 마음이 잘되고 못되고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럭하면 안 된다 된다를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생각이 그냥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을 삼위일체로 꿰어서 한생각을 내던진다면 법이 되는 겁니다. 한데 떨어지지 않는 법! 그대로 실천되는 법! 이 법을 그대로 행해야 세상천지의 갖가지 악행, 갖가지 부조리, 갖가지 병고…, 어떻게 일일이 말로 그 이름을 다 대리까마는,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대치할 수 있습니다. 대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요거 한마디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꿰고 뚫어서 인간 주처 자체하고 결부된 이 자체를 바로 전력이라 해도 좋고 에너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요걸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에너지가 불타고 있듯이 있는데, 그것을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능력을 배출시킬 수 있는 그 무한의 기둥, 불기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 이 마음으로써 거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병이 났으니 이 병을 너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면 그 불기둥에서 자연적으로 약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빈손이 하나 나와서 병이 난 사람한테 결부가 됩니다. 바로 한 찰나에 결부가 돼서 한 찰나에 그 병을 없애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불기둥에서 나간 거니까 불로다가 그냥 제거시키는 거죠. 어떤 거든지 막론하고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빈손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겠습니까? 빈손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명이 짧으니 명 좀 길게 해 주십시오.' 한다면 칠성부처의 빈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칠성부처라는 그 이름이 빈손에 쓰여 있어요. 허허허…. 그래서 그 칠성부처의 빈손이 나와서 한 찰나에 결부가 돼서 그 명을 다소나마라도 이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것뿐이 아니라 지장보살의 빈손도 있고 산신의 빈손도 있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해신 주림신 뭐, 모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그 불기둥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빈손의 그 이름이 탁 나오면서 자기와 결부가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자의 그 기둥 안에서 입자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입자가 나올 때는 바로 입자 하나에 칠성부처니 지장이니 뭐 전부 헤아릴 수가 없이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신이 돼서 찰나에 이끌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의 한생각이 아촉이요 한생각이 아미타요 한생각이 지장이요 한생각이 관세음이요, 한생각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나툽니다. 그거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물에서 죽게 됐을 때는, 즉 말하자면 해신으로서 생각을 하게 하면 금방 용신이 돼 버립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작용을 하는 걸 말합니다. 생각만 하고 작용을 안 한다면 무효죠. 그래서 부처님의 한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한생각을 내시지 않는다면 법신이 없고, 법신이 없다면 바로 보현신이 없어요, 작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근본, 그 뿌리인 근본이 있고, 생각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이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작용하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부처님도 계시고 도심도 있고 도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도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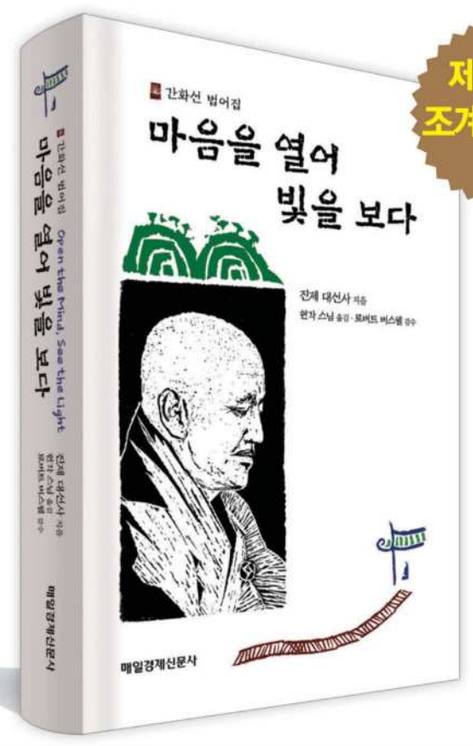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너부터 알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고
너부터 그 본래 있는 거를 찾는다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섭류를
네 자신이 잘 알 수 있느니라.
그럼으로써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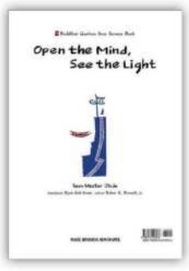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4년 10월 16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식, 진제 대선사가 알려주는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수행법!

마음을 열어 빛을 보다



제 13 대 조계종 종정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세계적인 불교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감수하고 극찬한 참선법문집!



이 책의 편집 방식은 특별하다.
책의 앞면에서부터는 한글판이 시작되고 뒷면에서부터는 영문판이 시작된다.
전 세계인들은 진제 대선사의 참선 수행법과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며,
한국독자들은 법문 공부와 동시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선사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것이지만, 그 응용에 있어서는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의 방법에 관한 선사님의 생각과 통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루이스 랭카스터** UCLA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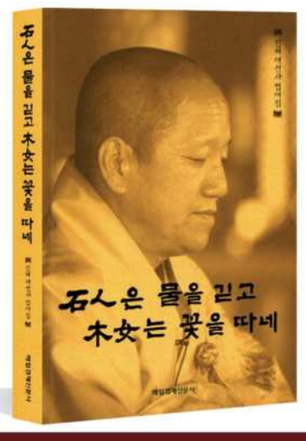
진제 대선사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법맥인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제 79대 법손으로 現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대선사 지음 | 현각 스님 옮김 | 로버트 버스웰 감수 | 신국판 변형 양장 436면 | 값 25,000원
Tel: 02)2000-2636 Fax: 02)2000-2609 www.mkbook.co.kr

진제 대선사 법어집
"영원한 행복을 위한 자기 성품계발서"
石人은 물을 긷고 木女는 꽃을 따네

"진제 대종사가 이처럼 선풍을 휘날리지 아니했다면, 오늘의 대한불교조계종이 어찌 불조의 정맥을 이은 종단이라 할 수 있겠는가."
– **종산 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구구절절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라고 화두를 참구하라는 자비의 말씀이 귀를 때리고 마음을 울린다"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올바른 삶을 위한 국민 필독서!

'참선'으로 지혜 계발하면 출세 · 성공은 따라오는 것!

진제 대선사 지음
신국판 348면 | 값 15,000원

일본, 올림픽 정신에 맞는 품격 갖길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2020년의 올림픽이 동경에서 개최키로 결정된 순간 일본 수상 아베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대표팀 감독처럼 벌떡 일어나 환호하였고, 전 일본 열도는 기쁨과 흥분으로 출렁거렸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떨떠름한 느낌을 가졌다. 이러한 떨떠름한 감정은 사촌이 논을 산다고 배 아파하는 그런 질투심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의 일본을 미워할 정도로 질긴 사람이 아니다.

필자의 꺼림칙한 느낌은 과연 일본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품격을 가진 나라인가 하는 점이고, 그리고 올림픽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상업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하위징어(Huizinga, J.)라는 네덜란드의 역사가는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Homo Ludens)'로 보면서 "문명은 놀이 안에서, 그리고 놀이로써 발생하고, 전개된다"고 말했다.

놀이는 실제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자발적인 활동으로서 놀이 자체를 즐기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다. 그리고 놀이는 규칙성과 경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는 대표적인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를 통해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고 공동체감을 기르고 개인과 사회의 행복에 큰 기능을 한다.

근대 올림픽의 제창자 쿠베르탱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의 청소년들이 손을 맞잡는 일이야말로 '세계 평화에의 지름길' 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로 출판하던 교육 잡지에 올림픽 경기를 소개하면서 올림픽 재건을 강조했다. 그 후 올림픽 정신은 인간 정신의 자랑으로 찬미되기도 하였다. 이런 글을 모아 조립하여 인용해 보자.

"사람보다 더 높이 뛰고 더 잘 달리고 더 힘센 짐승들도 많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서는 올림픽이 없다. 올림픽은 힘과 기예의 자랑이 아니라 인간정신의 자랑이다. 세계의 인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둔 게 있다면 그것은 올림픽뿐이다."

그런데 어쩌랴. 그렇지 못하니. 스포츠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스포츠맨십, 즉 스포츠맨 정신이다. 스포츠맨십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내력, 용기, 자기절제, 협동, 공정성 등을 포괄하는 가치와 행동이다. 어린 시절 축구를 즐겼던 프랑스의 저명한 실존주의 소설가인 카뮈(Camus,A.)는 "나는 윤리에 관한 모든 것을 스포츠에서 배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기실 우리 대부분이 경험한 스포츠는 실제로 우리의 윤리적 가치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검증받고, 학습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위대한 올림픽을 일본이 개최한다니 어찌 떨떠름하지 않겠는가?

전쟁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올림픽 개최국으로 여법한가
상업화 올림픽 각성 필요도

아베 정권의 일본의 최근 행각에 대해 지면을 쓰고 싶지 않다. 검은 담장에 검은 덧칠을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올림픽이 일본에 다가가는 그 추한 모습이 안타깝다. 올림픽 정신의 타락과 실종은 자주 회자되어 왔다. 올림픽이 화폐의 노예가 되고,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든지, 귀족화되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풍성하다. 그래도 올림픽은 지구촌의 축제적 성격은 아직 지니고 있다.

그런다고 해도 희망을 가져 보자. 세상에 험 없는 것이 어디 있으랴. 올림픽 정신의 재건에 대한 논의도 한쪽에선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도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이 잘 되는 곳이 스포츠가 아닌가. 정치판보다 훨씬 도덕적인 곳이다. 그리고 일본도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 의식 있고 선량한 일본인도 많다. 2020년에는 일본이 스포츠 윤리를 갖추고 올림픽 정신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리라 믿고 싶다.

그러면 어쩔 거냐. 2020년 동경 올림픽의 개최를 축하해 주자.

'청빈의 사표' 무진장 스님 추모

"청년 불자를 아꼈던 스님, 사랑합니다"

9월 9일, '청빈의 사표'로 불리웠던 무진장 스님이 원적에 들었다. 스님은 세속의 옷을 벗어냈지만, 그 여적들을 추모하는 발길은 SNS와 웹 공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의 추모 글들을 갈무리해 봤다.
〈편집자 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9월 10일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늘 존경했던 스님이었는데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시니 슬프기가 바다같습니다. 생전에 무욕으로 사셨던만큼 서방정토 친견미타하시고 구품안락 무여열반하소서! 〈제운 스님 페이스북 中〉

서울 도심 한복판에 머무르면서도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무진장 스님은 돈에 의해 수행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한 원칙주의자였다. 승복도 갈아입기 위해 딱 두 벌밖에 없으며 그 흔한 인터뷰기사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안빈낙도하신 절약과 무소유의 표상이 되신 분이다. 언제나 율장에 따라 괘색으로 된 승복을 착용한 것으로도 유명한 스님의 삶은 부처님 법대로 사는 여여(如如)한 삶 바로 그것이었다. 〈하도겸 씨 페이스북 中〉

동산불교대학장 무진장 스님께서 입적하셨습니다. 그 동안 한번이라도 더 찾아뵈야 했는데…. 무척 슬픕니다.
〈트위터 @feel_full 〉

예전에 조계사에서 한철 모시고 살았던 무진장 스님께서 어제 새벽 입적하셨습니다. 유일한 상좌이신 진관 스님에게 위독하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막상 입적소식을 들으니 허전한 마음 뿐입니다. 육체적 인연이야 때가 되면 벗어 버려야 되겠지만 나하고 인연 있었던 분들의 죽음은 슬픕니다. 〈트위터@dph0108〉

무진장 스님 생전 법문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 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법문을 듣고 실천하면 확실히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고 수행하는 것이지 절대 존재인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부처님 앞에서 소원빌어서 행복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트위터@khjsujin〉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육신의 헌옷 벗고 새옷을 입는다지만 내가 인연맺은 분을 보내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트위터@kuku141098〉

조계사청년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절 청년 불자들을 제일 사랑한 스님. 무진장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트위터 @ilraksa〉

2000년도 동산불교대학 학장이셨던 무진장 스님으로부터 졸업장과 수계를 받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불교를 포교해 주십시오.
〈ID서용칠〉

원적에 드신 무진장 스님의 영전에 삼가 엎드려 스님을 생각합니다. 열반의 길, 대해탈의 길에 드시어 다시 한번 중생제도의 큰 원을 발하시어 시방세계에 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스승님이 바라는 일 다하지 못했는데 홀연히 떠나신 스승님을 다시 뵙기 청하옵니다. 무진장 큰 스님은 위대하신 스승님이었습니다.
〈ID 장승홍〉

社說

수행 안하는 재가자 각성하자

'수행의 종교' 라는 불교에 멍에가 씌워졌다. 재가자 10명 중 7명이 수행을 안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이웃 종교인보다도 수행을 더 안했다. 이 결과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2013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를 통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실천 중인 수행?기도법 유무에 대한 질문에 29.6%만이 '수행법' 이 있다고 답했으며, 70.4%는 수행법이 없었고 밝혔다. 반면 타종교인들은 39.1%가 수행을 한다고 말해 불자들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을 하는 불자들은 대부분 염불과 호흡명상(21.3%)을 선호했으며, 경전 읽기(18.7%), 봉사(12%), 절 수행(9.3%) 등이 뒤를 이었다. 조계종의 수행법인 간화선은 4%만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

현재의 수행법을 선택한 이유는 '일상생활과 병행하기 쉽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58.7%, 이해와 실천이 쉽다는 답이 20%였다. 수행을 통해서 큰 효과를 기대한다는 답변은 8%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왜 수행하는 이들이 적을까. '수행법을 몰라서(32.0%)' 가 가장 많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9.2%)' 와 '수행이 어려워서(18.5%)' 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수행의 종교를 표방하는 불교 신자 70%가 수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신행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종교행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수행 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사찰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수행 문화 확산과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수행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가 수행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하는 이들도 많았다. 쉽고 체계적인 수행법 보급이 이뤄지지 못해 수행의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들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것이 아닌 만큼 차기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써서 효율적인 장기적 신도 수행 마스터플랜을 짜야 할 것이다.

다문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추석

민족의 명절 추석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 천만 명이 귀향길에 오르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고 가족과 친척들은 재회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여기에 올해 추석은 주말이 포함돼 소위 '황금연휴' 다. 그만큼 고향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추석이 부담되고 마음만 무거운 사람들이 있다. 소외계층과 이역만리 타향에서 명절을 맞는 이주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주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은 아직 우리 사회의 편견 때문에 더욱 외로운 존재이다. 이들을 위해 불교계도 이주민 체육대회나 차례 행사 등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지속적인 행사가 아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문화사회와 한국불교의 역할 보고서' 에 따르면 불교계 이주민지원시설은 가톨릭, 개신교의 운영시설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불자이주민들이 가톨릭과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종이 문제가 아니라 자비의 종교인 불교가 소외 계층을 품지 않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추석이 진정한 풍요의 계절'로 자리매김하려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계층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도 남이야 어떻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못된 풍조가 아직도 사회 일각에 버젓이 남아 있는 게 문제다. 불우이웃 돕기는커녕 돈을 물 쓰듯 뿌리는 과시적 소비로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고작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이다. 이래서는 사회 통합이란 한낱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명절이면 마을을 돌며 음식을 모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 주던 조상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새삼 돋보이는 시절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샘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산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 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 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감동을 느껴보자.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 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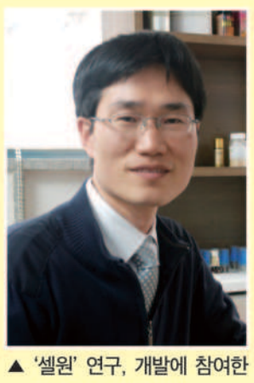
SBS KBS MBC YTN Discovery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 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